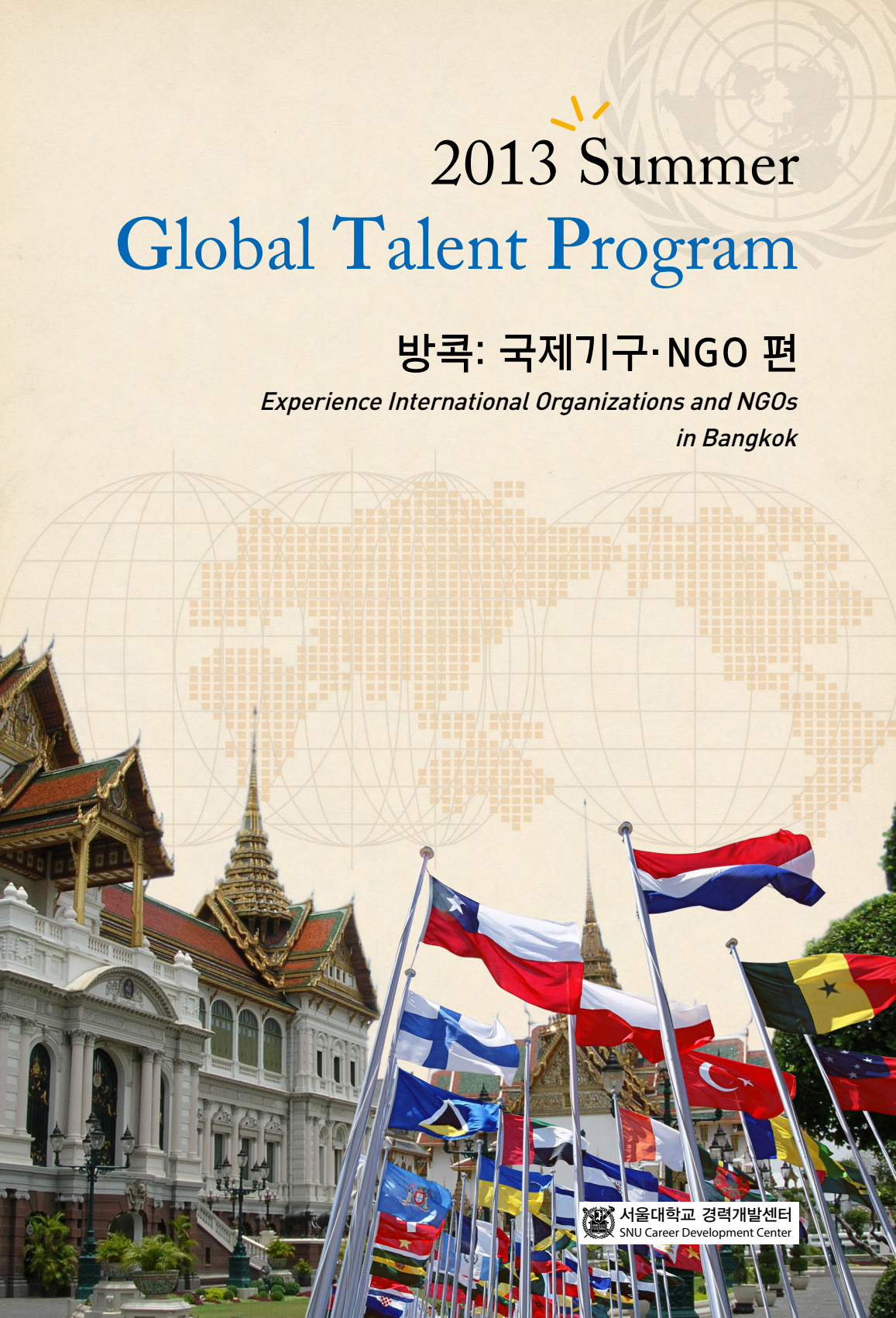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국제기구·NGO 편

*Experie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in Bangkok*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국제기구·NGO 편

- 발간사
- 2013 하계 GTP 소개
 - 학생 보고서
 - 학생 발표자료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매학기 방학 중에 Global Talent Program(GT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우수 재학생 13명을 선발하여 국제기구의 아태지역 본부가 밀집되어 있는 태국 방콕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책은 참가학생들의 발표자료 및 경험담을 국문·영문으로 수록한 것입니다.

GTP는 본교의 글로벌 인재 배출을 목표로 2007년부터 매년 두 차례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해외 글로벌 기업 또는 국제기구를 탐방해 관련 지식을 글로벌 환경에 적용,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기회를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참가 학생과 글로벌 리더 및 해외 서울대학교 동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활발한 인적 교류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한 ‘방콕: 국제기구·NGO 편’은 2013년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 동안, 본교 국제대학원 은기수 교수의 인솔로 13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SCAP)를 비롯하여 ILO, IOM, WHO, WFP, UNESCO 등 10개 국제기구와 NGO를 방문하였습니다.

출발 전에 참가 학생들은 관심 분야별로 발표 기관과 주제를 선택해 3주 간에 걸친 강도 높은 사전 교육을 통해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육, 영문 이력서 작성법,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등을 배웠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는 각 기관별로 임원진과 인사 관계자들을 만나 기관 소개를 듣고 준비한 주제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주제는 경제 문제에서부터 정치·인권·환경·식량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제적 이슈를 다루어 방문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 다. 특히, ILO와 IOM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심도 깊은 내용에 감탄하며 정기적 인턴 선발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 다.

이밖에도 참가학생들은 주태국 한국대사관 및 출라롱콘 대학 방문, 국제기 구 취업 전략 특강, 태국지역 서울대학교 동문들과의 밤을 통해 많은 인적 네 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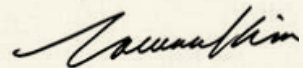
이번 GTP를 통해 방콕에 위치한 국제기구와 기업의 주요 요직에서 활발 히 활동하고 계신 동문이 많은 것을 보고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으로 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낍니다. 또한, 힘든 준비과정을 이겨내고 글로벌 마인 드와 리더십을 함양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보고서를 읽고 미래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게 될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경력개발센터는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꿈 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해외 기업 및 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 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해준 은기수 교수님과 박 회영 연구원의 헌신적인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롯데국제교육관에서



경력개발센터 소장 김태완



Contents

발간사 4

2013 하계 GTP 소개 8

◦ GTP 학생 보고서

01 쇠는 담금질할수록 더 단단해진다 26
박정준 (국제통상학 석사과정)

02 Be UNique 47
양혜진 (국제지역학 석사과정)

03 Can You See My Heart Beat, GTP? 63
오주연 (국제협력학 석사과정)

04 용기 있게, 경쟁력 있게 80
이승은 (보건학 박사과정)

05 아시아의 국제기구 중심지를 다녀와서 93
최웅식 (법학과 석사과정)

06 GTP 방콕 편에 다녀와서 109
강아름 (언어학부 10학번)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in Bangkok

- 07**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준 GTP 125
박현우 (동물생명공학부 11학번)
- 08**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준 GTP 147
배한결 (독어독문학과 11학번)
- 09** 방콕에서의 GTP를 되돌아보며 164
서혜린 (정치학과 10학번)
- 10** 우리 자신을 믿자! 181
장창섭 (경영학과 09학번)
- 11** GTP와 함께 내 미래의 커리어를 설계하다 198
정혜원 (사회복지학과 09학번)
- 12**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상 그 이상의 경험 211
조효림 (경제학부 10학번)
- 13** 천사의 도시에서 발견한 비전 224
황현정 (서양사학과 11학번)

태국의 국제기구 및 NGO 탐방

세계 속의 서울대학교로 거듭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본교생의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해온 Global Talent Program(GTP)을 통해 지금까지 170여 명의 학생들이 미국, 스위스,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개국에 1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를 다녀왔다. 2013년 여름방학에는 국제기구 아태지역 본부가 밀집되어 있는 태국 방콕을 방문해 다양한 국제기구 및 NGO의 역할과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로분야에 대한 탐색을 했다.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는 본 프로그램은 은기수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의 인솔 하에 3주간의 사전교육과 1주일간의 방콕 현지 기관탐방으로 진행되었다. 참가학생들은 사전교육 기간 동안 영어 프레젠테이션 교육, 영문 이력서 작성법, 현지 문화 등을 배웠다. 이후 현지에서 ILO, The World Bank, UNESCAP, UNESCO, WHO 등 10곳의 국제기구와 NGO를 방문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인사 관계자들을 만나 기관 소개를 듣고 환경, 식량, 경제 등 각자 연구한 주제에 대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향후 해당 분야 인턴십 및 채용 기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국제기구 · NGO편

Explo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in Bangkok!

2013. 6.23(일) ~ 6.29(토)



○ 프로그램

- 해외 인턴십 기회 획득을 위한 기관 및 기업 방문, 프레젠테이션 진행
- 리더십, 커리어 워크숍 등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 글로벌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방문기관

태국 방콕 소재 국제기구, NGO 등

○ 지원자격

서울대학교 학부 3학년 이상 (대학원생 포함, 교환/휴학생/수료생 제외)

○ 지원방법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career.snu.ac.kr>) 참조

○ 지원마감

5월2일(목) 오후 5시

○ 참가자 특전

- 프로그램비 및 항공권, 체재비(숙박, 식사, 교통) 등 지원
- 수료증 제공
- 인턴십 확보 시 지원금 제공

문의: 경력개발센터 02-880-1354, gtp@snu.ac.kr

전체 프로그램 일정

	23–June (Sun)	24–June (Mon)	25–June (Tue)	26–June (Wed)	27–June (Thurs)	28–June (Fri)	29–June (Sat)
8:00am– 8:45am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9:00am– 9:30am		Orientation	Daily Briefing	Daily Briefing	Daily Briefing	Daily Briefing	Packing
10:00am– 12:00pm		Organization Visit 1: ILO	Organization Visit 3: ANFREL	Organization Visit 5: The World Bank	Organization Visit 7: IOM	Organization Visit 9: WFP	Cultural Activities (City Tour, Grand Palace, Wats)
12:15pm– 1:30pm		Lunch	Lunch	Lunch	Lunch	Lunch	
2:00pm– 4:00pm		Organization Visit 2: FORUM–ASIA	Organization Visit 4: UN ESCAP (tentative 1:30pm–4:00pm)	Organization Visit 6: WHO	Organization Visit 8: UNESCO	Organization Visit 10: UNEP	
4:30pm– 6:00pm		Special Lecture in Korea Embassy	Career Workshop: How to get a job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r. Tae-Hyung Kim, UNESCAP)	Chulalongkom University	SNU Alumni Night (6:00–9:00 pm)		
6:30pm– 7:30pm		Dinner	Dinner	Dinner		Closing Dinner	
8:00pm– 10:00pm	Arrival at Bangkok (21:10)	Presentation Rehearsal	Presentation Rehearsal	Presentation Rehearsal	Presentation Rehearsal (10:00–11:00pm)	Departure for Korea (06:00, June 30)	

기관별 학생 발표 주제

기관	발표 학생	발표 주제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정혜원(사회복지학 4학년)	Empowering Young Workers in Korea
FORUM-ASIA	최웅식(국제법 석사과정)	Engaging Asia Youth in Human Rights
ANFREL Foundation	서혜린(정치학 4학년)	Poli-life and Elec-tainment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Transport Division – 조효림 (경제학 3학년)	Regional Railway System for Economic and Green Growth
	Environment Division – 오주연 (국제협력 석사과정)	Trade and Environment: Implications for South East Asia
The World Bank	강아름(언어학 4학년) & 박정준(국제통상 석사과정)	Expanding FTAs & Enhancing High-Tech in Ex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박현우 (동물생명공학 3학년)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장창섭(경영학 3학년)	Integrative Datab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황현정(서양사학 3학년) & 양혜진(국제지역학 석사과정)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World Food Programme	배한결(독어독문학 3학년)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
UN Environment Programme	이승은(공중보건 박사과정)	A Current Issue on Aero-Biology & Allergy

탐방 기관 소개

0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1919년 4월 베르사유조약(Treaty of Versailles)의 '제13편 노동'에 의거해 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1946년 12월에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 편입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현재 회원국은 185개국이다. 설립 목적은 사회정의 실현과 노동자의 인권 향상, 노동 조건 개선 및 노동자 생활수준의 향상이다.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제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 국제적 노동 기준 마련, 국제기술협력, 교육, 연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 기관에 1991년에 가입한 한국은 총 189개의 노동관련 협약 중 28개를 채택하여, 아직 국제적 수준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해 발표 학생은 “ILO와 한국의 청년유니온이 협력하여 한국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ILO는 매년 약 30명의 대학원생을 인턴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인사담당자인 Alex Aziz 씨는 채용을 위해 길러야 할 역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분석능력, 라이팅 스킬”을 강조했다.



ILO의 인턴십 프로그램 설명



정혜원 학생의 발표



감사패 전달



단체사진

02. FORUM-ASIA

1991년 마닐라에 설립된 인권 보호 단체로,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 47개의 회원조직을 갖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 단체 및 인권운동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 실태를 조사, 연구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발표 학생은 아시아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과 인권 운동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FORUM-ASIA는 country team과 HR team 두 분야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월 또는 6개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연 5~7명의 인턴을 선발하고 있으며, communication background와 flexibility가 채용 시 주요 고려 요건이다.



최응식 학생의 발표



Saartje Baes Programme Associate의 기관 소개



감사패 전달



단체사진

03. 주태국 한국대사관

주태국 한국대사관을 견학하고 대사관이 하는 업무, 한국과 태국의 관계, 외교관계, 진로 탐색 등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태국은 두 번째 한국 전쟁 파견국으로 한국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태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투자도 24억 달러에 달할 정도여서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국가 중 하나이다. 태국에서도 한류 열풍으로 한국인들에게 우호적이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태국 내 전공과 교양과목으로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은 58곳이나 된다. 특강을 해주신 권영습 참사관님에 따르면, 대학에 한국어교육학과를 설치해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 한국문화원 개관을 곧 앞두고 있어서 태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문화 전파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권영습 참사관님의 특강



주태국 한국대사관 앞 단체사진



대사관 민원실 견학



질의응답 시간

04. ANFREL Foundation

ANFREL은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의 약자로, 1997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시민단체로서 아시아의 민주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태국, 스리랑카, 네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민주화가 정착되지 못한 아시아 여러 국가의 시민 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선거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행해지는지를 감시하고 그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선거 과정에서 부정 선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함 호송 차량의 보호와 개표 과정 감시 등의 활동을 펼쳤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 선거에 대한 교육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직원들 모두 아시아 15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차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지역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의 발표 주제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본 유익적 정치참여의 행태”로, 한국 정치에 인터넷과 SNS가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청년층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Executive Director Ichal Supriadi 씨는 아시아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민주화를 아시아에 전파 시키는데 큰 관심을 보였다. 연 2~3명의 인턴을 선발하고 있으며, 정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외국 학생들의 지원을 적극 독려했다.



서혜린 학생의 발표



Ichal Supriadi Executive Director의 기관소개



기념패 전달



단체사진

05.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1947년 설립된 유엔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 담당 기구로, 아태지역 서부의 터키부터 동부의 키리바시, 그리고 북부의 러시아부터 남부의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역의 경제협력, 개발계획, 식량 및 자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한다. ESCAP이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만 해도 전 세계 3분의 2를 차지하며 아태지역 관련 UN 산하기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우리가 방문한 Environment and Development Division(환경개발국)과 Transport Division(교통국)의 국장님이 두 분 다 한국 분이셔서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ESCAP의 홍보담당자가 UN 빌딩 내부를 구경시켜주며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바로 올려주는 등 환대를 해주었다.

발표 학생은 환경개발국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아시아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통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철도의 장점에 대해 논리적인 전개를 해나가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ESCAP의 직원은 모두 600명으로, 국별 수요에 따라 인턴을 선발하는데 환경개발국의 경우 연 1~2명, 교통국의 경우 연 5~10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오주연 학생의 발표



조효림 학생의 발표



UN 빌딩 내부 투어



단체사진

06. Career Workshop: 국제기구 취업 전략

UNESCAP의 Disaster Risk Reduction Division에 근무하시는 김태형 박사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의 명과 암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에 따르면, UN과 Development Bank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표권이라고 한다. UN은 한 나라가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만, Bank는 기부금 1달러가 투표권 하나이다.

UN 직원으로서 갖는 장점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형성, 협력 문화, 국제회의 참석, 높은 연금, 안정적 고용 보장, 자녀 학비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업무 처리 과정과 관료주의, 복잡한 내부 규정, 문화적 갈등 등 단점도 있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영어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 따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김 박사님은 국제기구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박사학위보다 관련 분야 경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아시아 직원 출신국을 살펴보면 일본과 중국이 가장 많고, 특히 고위직에 진출한 한국인이 적은 점이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김태형 박사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UN 회의장 내부



UN 빌딩 투어

07. The World Bank

1944년 빈곤 퇴치와 개발 촉진의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주요 역할은 개도국에 금융과 기술 지원이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저금리 융자, 무이자 크레디트, 그랜트 제공을 비롯 교육·보건·공공행정·인프라스트럭처·금융·농업·환경·천연자원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협력 국가 정부기관 및 연구소, 사기업들과 함께 개도국의 교육, 보건,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120여 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직원만도 1만여 명이 넘는다. 태국 사무소의 경우 교육 분야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매기관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같은 사무소를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FC는 개발도상국에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세계은행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무역과 교육이라는 두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태국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두 학생이 발표를 했다.

세계은행 태국사무소는 워싱턴 DC 본부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올해는 인턴십 채용 계획이 없다.



강아름 학생의 발표



박정준 학생의 발표



Helen Han Investment Officer의 기관 설명



단체사진

0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48년 보건 및 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설립된 UN 전문기구로 세계의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제공, 유행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후원, 회원국의 공중보건 관련 행정 강화와 확장 지원 등의 일을 담당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서태평양·동남아시아·중동·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의 6개 지역사무소가 있다. WHO는 국제보건사업의 지도적·조정적 기구의 성격을 띠며, 주요사업은 본부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기술사업과 각 지역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에 대한 기술원조로 나누어진다.

학생의 발표 주제는 H7N9가 큰 위협이 아니지만, 인플루엔자의 변종과 내성, 재출현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었지만, 현재 WHO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국제기구 중 학부생도 인턴으로 받는 몇 안 되는 기관 중 하나로, 인턴십 기간은 최소 6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회원국의 기부금에 따라 직원 채용수가 할당되는데, 한국의 경우 기부금에 비해 직원 수가 적은 상황이어서 한국인의 채용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Quazi Monir Islam Director의 기관 소개



박현우 학생의 발표



기념패 전달



단체사진

09. Chulalongkorn University

1871년 라마 5세 출라롱콘 왕이 다양한 부문에 종사할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 왕궁 내에 세운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태국의 공주 마하 짜끄리 시린톤이 이 대학 출신일 정도로 태국에서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꼽힌다. 졸업식 때마다 왕족이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과학기술, 보건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을 포함하여 예술 및 과학 분야의 다양한 전공을 태국어와 영어로 교육한다. 학생 수는 3만 9,000여 명으로, 서울대학교보다도 규모가 크다. 학생처에서 간단하게 학교 소개를 들은 후 매년 여름방학마다 이곳에서 강의를 하시는 은기수 교수님을 따라 캠퍼스 투어를 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출라롱콘 대학생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치마길이가 짧을 수록 고학년이라고 한다.



Chulalongkorn University의 기념패 전달



출라롱콘 왕 동상 앞 단체사진



캠퍼스 투어



Chulalongkorn University의 교복

1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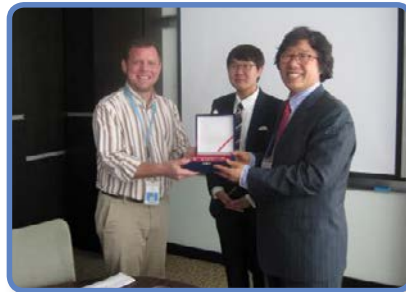
국제 이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195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주와 사회경제적 개발, 이주 과정 지원, 이주 관리 지원, 난민 및 강제이주자 피해 지원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14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현지 사무소 약 450개에 총 7,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1992년 서울에도 사무소를 설립하고 북미지역으로 이동하는 베트남 난민의 환송업무 지원, 이주 정책 및 연구, 이동, 비상 사태 및 위기 사후 이주 관리 등을 하고 있다.

학생의 발표 주제는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주민을 파견하는 국가와 받는 국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강점인 모바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관계자들은 참가 학생들의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열정에 감탄하며 향후 서울 대와 인턴 교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IOM은 연 10~15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있다.



IOM의 브리핑



기념패 전달



장창섭 학생의 발표



단체사진

11.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피해를 입은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UN 전문 기구다. 1945년 창설된 이래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규범 제정, 지식과 정보의 보급, 국제협력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과학, 세계유산 보호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발전,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에는 195개 정회원국과 8개 준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 걸쳐 53개의 지역사무소와 11개의 산하 기구를 두고 있다.

태국에 위치한 아태지역본부는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고, 특히 지속성장 가능한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이 주요 관심사이다. 한국 직원은 모두 5명이고, 소장님이 한국인이어서 특별히 집무실까지 구경시켜주시고, 국제기구 진출 경험자로서, 인생 선배로서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발표 학생들은 한국의 대중문화 사례를 분석하여, 유네스코가 전통문화 보존에서 더 나아가 대중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유네스코는 연간 약 100명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고 있다. 관심이 있는 지원자는 연중 상시 온라인에 지원서를 업로드하면 관계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연락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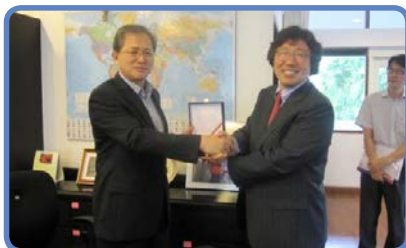
김광조 소장님의 기관 소개



학생 발표



단체사진



기념패 전달

12. SNU Alumni Night

현재 방콕에서 근무 중인 동문 아홉 분을 모시고, 해외 취업 경험담과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위한 준비사항 등에 대해 학생들과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태국 서울대학교 동문회장직을 맡고 계신 분이 ESCAP 교통국의 하동우 국장님이셔서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다. 하동우 국장님은 “후배들이 모두 영어실력도 뛰어나고 똑똑한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며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후배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동문 대부분은 탐앤탐스 커피 동남 아태평양지역 본부장님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국제무대 진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하동우 태국 서울대 동문회장님의 인사말



자기소개 시간



감사패 전달



단체사진

13. World Food Programme (WFP)

1962년 전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해 세워진 UN 산하의 식량 원조 기구이다. WFP는 전쟁이나 내전,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곳에 식량을 공급하는 일 뿐만 아니라 생활터전 복구, 만성 기아 및 영양부족을 줄이기 위한 업무까지 포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부금을 모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국가의 정부, 유엔기관, NGO, 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80여 곳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학생의 발표 주제는 “WFP가 한국 정부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사업인 Food for New Village에 산림화를 결합시킴으로써 세계 빈곤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WFP 한국사무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과 일치하여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냈다. 덕분에 발표 학생은 현재 WFP 한국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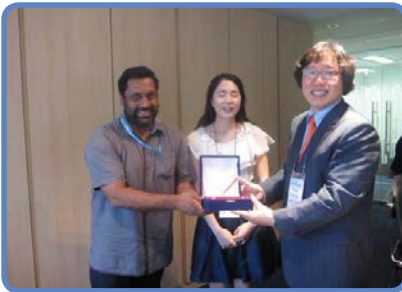
WFP의 인턴 채용 규모는 연 3명 선이다.



배한결 학생의 발표



Samir S. Wanmali Programme Advisor의 기관 소개



감사패 전달



단체사진

14.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1972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지구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모여 개최한 ‘인간환경회의’에서 지구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UN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합의해 설립되었다. UNEP의 목적은 국제연합 기구가 이행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제반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며, 아직 착수하고 있지 않은 환경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사업 분야는 Climate Change, Disasters & Conflicts, Ecosystem Management, Environmental Governance, Harmful Substances, Resource Efficiency 등 6개로 나눌 수 있다. 본부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다.

발표 학생이 보건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어서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와 대기 중 미생물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UNEP의 인턴 채용 규모는 연 6명 정도이며, 학부생도 인턴십에 지원할 수 있다.



박영우 소장의 기관 소개



이승은 학생의 발표



감사패 전달



단체사진

01

쇠는 담금질할수록 더 단단해진다

박정준 (국제통상학 석사과정)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사전교육

GTP 방콕 편은 학기가 종료되는 6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학기의 마무리와 함께 동시에 사전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절대 녹록치 않았다. 참가자 전원 모두가 같은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이 약간의 위로가 될 수는 있었으나, 결국 끝에 가서 모든 책임은 나 스스로의 것이라는 현실은 꽤나 냉정했다. 학기말 과제 제출이나 기말고사 준비는 기본이요, GTP 방콕 편의 조교인 동시에 참가자로서의 나는 프로그램 '사전'교육의 '사전'준비(?) 및 기관에서 내가 발표할 내용의 준비, 또 프로그램의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준비 등 '준비'의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대략 1인 5역 정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그야말로 일당백(一當百)의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니, 하루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

을 정도로 숨가쁘게 보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능동적 어투보다는 “하루하루가 보내졌다.”라는 수동적 표현이 더 알맞을 것 같다. 그만큼 정신없이 사전교육의 일정이 시작, 진행되었다. 조교 역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바쁜데, 발표까지 한다는 것은 욕심이였을까 하는 내 스스로에게 자문자답(自問自答)의 지경(?)에까지 이른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다.’라는 나의 막연한 자신감과 응원이 종종 ‘할 수 있을까?’라는 형태로 변화하며 지치는 때도 있었다.

면접을 통과한 뒤 바로 발표 기관이 배정되고, 그에 따라 기관에서 정해진 주제를 받거나 혹은 해당 기관을 바탕으로 하여 주제를 정하는 일반 참가자와는 달리, 조교인 나에게 먼저 다가온 숙제는 발표 기관 자체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면접 시에 1, 2, 3순위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발표 기관을, 나의 경우는 모든 참가자들이 선발되고 각자의 기관을 선정한 뒤에야 마지막 주자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혹자는 짬뽕이나 짜장면이나, 혹은 아빠가 좋으나 엄마가 좋으나와 같은 둘 중 택일의 어렵고 고민되는 상황도 아니고, 무려 10개의, 그것도 어느 한 곳도 그 명성이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국제기구들을 눈 앞에 두고 무엇을 그렇게 망설이느냐고 나를 탓할지 모르겠다. 또는, 우유부단하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마치 호텔 부페 앞에서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배만 굶주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던가.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기회 자체가 절대 흔하지 않고, 또 그런만큼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발표할 상대와 장소가 국제기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장고(長考) 끝에 나는 나의 전공, 함께 발표할 파트너와의 준비 가능 시간, 발표 주제, 관심사 등을 고려해서 세계은행(The World Bank)을 최종 선택했고 본격적 준비과

정에 돌입했다.

10개의 국제기구가 섭외되었지만, 모든 기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주제를 배정해준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는 정해진 주제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보다,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주제를 미리 정해진 세계은행을 고른 것이 비교적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것이, 나는 다른 참가자들이 적절한 주제 선정을 위해 인솔 교수님과 의 잦은 면담, 혹은 해당기관에 연락하는 등 계속해서 고민하고 수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고, 그 시간에 바로 파트너와 함께 주제에 맞는 발표 내용을 고민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물론, 그렇다고 발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방콕의 세계은행에서 지정해준 주제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번째 선택은, 태국 내 경제기반에의 투자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두번째 선택은 고소득 국가로 가기 위해 태국이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주어진 주제 중 두 번째 주제로 결정한 나와 발표 파트너 아람이는 본격적인 사전교육에 들어가게 되었다.

비록 그 사전교육 기간이 시작되기 전과 시작된 후 모두가 굉장히 빠빠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실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유용하고 필수적인 것이었다.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소개 및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를 비롯하여, 영어 발표 스킬,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본격적인 발표 내용에 대한 코칭세션까지, 발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전교육으로서 제공되었다.

특히,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봉민아 선생님께선 발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꼼꼼히 지적, 가르쳐주셨고 이후에는 개별 면담까지 해주시면서 우리의 발표 준비에 힘을 보태어 주셨다. 그 덕분에, 발표 시간이나 발음, 자기 소개 방법 및 내용의 구성에 대해

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유익한 강의 내용에 더해진 봉민아 선생님 특유의 유머감각은 덤이었다.

이어진, Danton Ford 선생님의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도 매우 유용했다. 글로벌 시대에 필수 요소인 영문이력서의 작성에 대한 구조적·내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나를 매력적인 인턴 혹은 직원으로서 어필할 수 있는 조건 및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지칠 수도 있는 수업들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측면이나 강사분들의 능력적인 부분에서 센터 측의 많은 배려가 충분히 느껴질 정도로 유익한 시간과 훌륭한 강사님들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은기수 교수님의 발표 코칭세션은 이런 상승세에 화룡점정(火龍點睛)이었다. 물론, 교수님께서 방콕 현지에서 진행해주신 코칭세션은 그 이상이었던 것만(이후에 좀 더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출국 직전까지 이어진, 6월 17일, 19일, 20일의 발표 코칭세션은 그동안의 모든 준비과정을 정리 및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였다. 물론, 학기말 과제 제출 시기와 딱 겹쳐 동시에 운영하는 데에 많은 애를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빠지거나 놓칠 수 없었던 데에는 지금껏 여러 코칭세션을 거치며, 이 모든 과정이 좀 더 나은, 그리고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세 번의 세션을 거듭하는 내내 교수님과 동료 참가자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 조언을 해주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용시키고 개선해 나갈 때마다 점점 더 발전되어가는 발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체력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런 과정이 아예 없었다면 발표가 잘 끝난 뒤의 느낌도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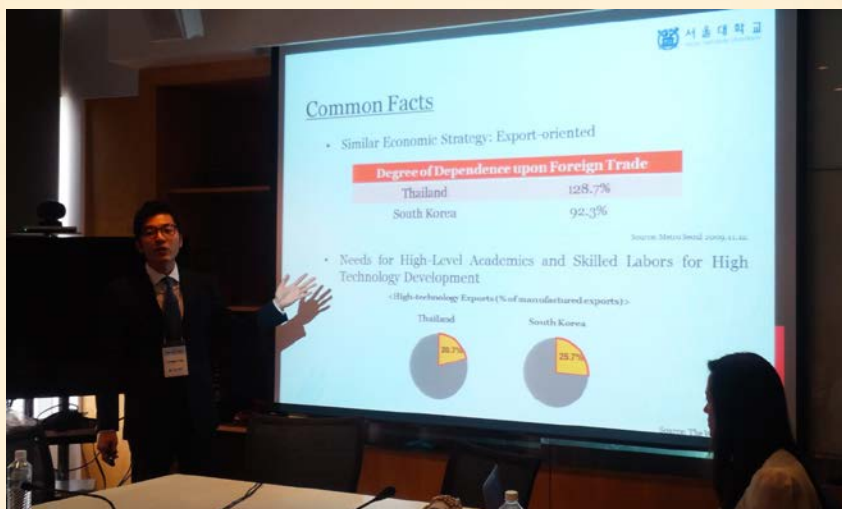
세계은행은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에 기초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인 1946년에 발족한 명실공히 세계적 국제기구의 하나로서 국제부흥 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한국계 미국인 김용 전 다트머스 대학교 총장이 제12대 총재로 임명되면서 한국에도 더욱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세계은행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은행과는 다른 개념의 기관으로서 개도국들에게 금융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원조를 하며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개발의 촉진을 장려하는 기구다. 총 투자액이 연간 500~600억 달러 수준으로, 특히 중남미 지역 그리고 분야로는 에너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약 100여 곳의 지사에 9,000명 이상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거대 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했으며, 1985년에는 서울에서 제40차 총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다시 말하지만, 본 GTP 프로그램의 핵심 활동 목적은 ‘해외 주재 글로벌 기업 및 기관에서의 발표 및 대담을 통해 직접적인 연계의 기회를 갖고, 그 안에서 인턴십 기회의 모색과 해당 기관 내 글로벌 리더와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그만큼 ‘발표’ 자체는 6박 7일의 짧고도 긴 일정 속 최중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만큼 나에게서는 조교로서 발표 여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우선 큰 결단이었고, 나아가 기관을 선정하는 것 또한 장고(長考)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 FTA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의 시간을 거쳐야 했기에 해당 기관에서 이미 주제를 정해주었다는 사실이(주제 자체까지 나와 발표 파트너인 아름이가 고민할 필요는 없었으므로) 일단은 매우 고맙고 행운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물론 그건 잠깐이었다).

배정기관인 세계은행은 친절하고 감사하게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태국 내 경제기반에의 투자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또는 “고소득 국가로 가기 위해 태국이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정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결국 발표 내용을 구상,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온전히 우리의 몫이었고, 그것은 나와 발표 파트너인 아름이가 처음 가졌던 의욕이나 계획만큼 쉬운 것은 아니었다. 주제는 두 가지로 좁혀져 있었지만,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개인적인 고민과 발표 파트너 아름이와의 상의 끝에 우리는 좀 더 넓은 주제라고 생각되는 후자를 선택, 최근 급성장하며 충분한 가능성을 보



세계은행에서 발표를 마친 뒤, 은기수 교수님과 발표 파트너 아름이와 함께.

여주고 있는 개발도상국 태국에 한국형 발전 모델을 본보기로 제안해보기로 결정했고, 그 내용에 전자의 주제를 일부 반영해보기로 결정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느껴지는데, 그것은 아름이나 나나 어떤 경제나 투자에 관한 전문지식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의 발전상을 고민, 연구해보고 제시하는 쪽이 보다 자유롭고 또 더 좋은 발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선 나 같은 경우, 발표 기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전공과의 연관성 및 나의 관심 정도나 관심 수준이었으므로, 해당 주제에 따른 발표 내용 또한 나의 전공과 관련지어 좀 더 특화되고 전문적인 그러나 동시에 듣는 이가 해당 주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도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구성하고 싶었다. 한 마디로 꽤나 의욕 넘치고 욕심도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평소 발표라 함은 모름지기 발표자(speaker) 위주로 기획, 진행, 운영되기보다는 듣는 이(listener) 위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발표 내용이 지루하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이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남이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나 나름의 철학이 반영되

었기 때문이다. 우선 아람이와의 토의 끝에 다음 준비모임 때까지 각자 구상하여 발표 내용을 준비해오기로 했고, 서론-본론 1-본론 2-결론으로 구성되는 발표의 구조 또한 논의했다.

이제와서 돌이켜보면, (물론 참가자 누구나와 한 팀이 되었어도 좋고 감사했겠지만) 아람이와 한 조가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진짜다.) 학기말 일정과 겹쳐 바쁜 와중에도, 발표 준비차 모일 때마다 열정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활 타오르는 의욕을 가지고와 조리있게 설명했고, 또 발표 파트너인 나의 의견과 (그래도 본인은 학부생, 나는 대학원생이라고) 소소한 조언들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려 했다. 나나 아람이나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존중하고 맞춰나가려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좋은 팀워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그것이 좋은 발표 내용과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주제를 정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였던 내용의 선정과 구성. 학기말 바쁜 일정 속에 매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시간 발표 내용에 대해 고민했고, 만났을 때에는 그동안 준비하고 구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빈 강의실의 화이트보드까지 사용해가며 활발하게 의견을 공유했다. 그 결과, 나는 전공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나람의 시대성과 전문성을 감안, 동시에 한국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 끝에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태국에게 FTA를 통한 무역시장 확대와 그것으로 인해 기대 가능한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고, 아람이는 한국의 특성화고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교육이 앞서 내가 설명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연관시켜 발표 내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제와 내용 자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태국과 세계은행이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발표를 준비하는 내내 특히 신경을 쓰고, 또 이와 관련해 많은 조언을 받았던 부분은 주제의 특성상 한국이 무언가 선구자 혹은 롤모델이라는 느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으나, 태국도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신흥 개도국인만큼 뭔가 가르치려는, 혹은 한국을 무조건 따르고 배우라는 식의 어감과 느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나는 발표 초반에 우선 태국의 최근 놀랍고 기록적인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이것이 한국의 그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그 성과를 진심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동력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과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닌) 일종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이 와중에도 한국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할 만한 당위성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현재 한국과 태국의 경제력을 비교해주었고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는 통상무역과 교육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강조했다.

실제 2009년 자료를 보면, 당시 한국의 무역의존도가 92.3%로 매우 높았는데 같은 시기 태국은 128.7%라는 경이로운 무역의존도를 보였고, 그들이 가진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에 비하여 그것을 다 소비하고 재생산하기에는 국내시장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시장과 수요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수출량을 늘리고 수입의 비용을 줄이면 그 경상수지가 커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공식을 제시하며,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제는 명실공히 FTA 선도국가의 하나로 자리잡은 한국은 현재 약 50개 국가들과 FTA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반면, 태국은 약 15개국에 불과했고, 그들의 경제규모도 한국의 그것과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FTA가 모든 통상환경에서의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일단 시장의 확대와

해외에서의 수입이 비용적인 면이나 절차상으로도 보다 용이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외국과의 활발하고 왕성한 통상을 통해 국내통상의 규범이나 제도적 개혁이 가능해지고, 해외 직접투자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외국 상품 및 서비스와의 경쟁을 통해 국내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전체적 눈높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도 FTA를 통한 시장 개방에 무조건 찬성하거나 일말의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개방과 협상을 통해 지금의 경제성장에 힘을 보탬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 브랜드인 애플과 견줄 수 있는 삼성이라는 국내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현대, LG와 같은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의 출현이 가능했음에 집중했다.

즉, 정리하자면 태국의 현 경제 구조가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및 통상환경, 제도 등에 대한 영리한 접근이나 활용 없이는 최근 몇 년과 같은 역사적이고 기록적인 경제발전의 유지는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의 통상 주류인 FTA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 볼 것을 제안했다. 그 와중에도 태국과 그들이 이루어낸 경제발전에 대해 존경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음은 당연지사다.

발표 기관 활동

세계은행 방문의 주인공은 나와 아름이를 비롯한 우리 GTP 팀이었지만, 세계은행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주셨다. 우선, 우리의 발표가 끝난 뒤에 호평과 함께 자신들의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 그리고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세계은행 측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디이고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었고, 이와 더불어 기관에 대한 안내 및 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소개와 인턴십 지원 방법, 모집 조건 등에 대



세계은행에서 발표를 마치고.

한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몇몇 안내책자와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보여주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서 세계은행 사무실 곳곳을 함께 걸으며, 업무 환경과 직원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었고 우리의 질문과 문의에도 성실히 답변해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다운 모습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한 분은 자신이 한국계임을 알려주시며 보다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해주셨고 우리들 한 명, 한 명과 명함과 악수를 나누며 네트워킹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이였다.

기관 방문 내용

이처럼 세계은행에서 발표 내용에 대한 호평과 우리에게 대한 환영 인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사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했던 그 외 모든 기관들에서도 결코 다르지 않은 안내와 대우를 해주었다.

우선 우리가 발표와 인턴십 기회 창출의 목적으로 방문한 10개의 국제

기구들과 NGO에서는 이미 우리의 방문 목적과 출신 학교 및 배경에 대해 조금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태도를 존중해 많은 준비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한국 출신의 글로벌 인재분들이 많이 계셨던 ILO, UNESCAP, UNESCO와 UNEP 등에서는 발표 시간 및 장소 외에서도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조언해주시면서 바쁜 일정과 무더운 날씨에 지친 우리의 심신을 어루만져 주셨다.

그 외에, 우리보다 더 많은 기관 관련 발표를 준비해주셨던 IOM이나 다과와 음료, 기관 측 발표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던 WFP, 기념품도 준비해주시고 한국의 선진화된 투표시스템에 대해 진정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ANFREL, 시종일관 진지하고 깊이있는 질문과 확고한 자신들의 철학을 가르쳐준 WHO, 그리고 여러 질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우리의 발표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줬던 FORUM-ASIA까지... 모든 기관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진지한 태도로 우리를 환대해주었다. 즉, 어느 기관에 방문해도 우리 15명은 환영 받는다는 느낌을 만끽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하여 우리도 늘 진지하고 프로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방문에 임했다.

또한, 대사관 방문이나 대학 방문, 선배님들과의 저녁식사 시간도 다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현지 교육 및 특강,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GTP의 일정이 매우 바빔을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그러함에도 사실 내일은 짹 짹 차 있었다. 바쁘지만 동시에 짹 차 있었던 일정과 프로그램의 구성에는 공통적인 이유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우선 우리가 발표 기구 외에도 다른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탐방했기 때문이다. 일주일간 우

리가 발표 및 인턴십 모색의 목적으로 방문한 국제기구 및 NGO의 수는 총 10곳이었지만, 그 외에도 하루하루 일정의 마무리로서 한국대사관과 Chulalongkorn University 등 총 5일의 공식 활동 일정 속에 4개 기관을 함께 방문해 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하루 두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중심축으로 진행되었던 이번 GTP 방콕 편의 주 일정은 기관 방문 뒤에 추가로 하루 한 곳의 기타 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물론, 진정한 마무리는 다음날 발표 준비를 위한 리허설이었지만.)

첫날에는 한국대사관, 둘째 날에는 UNESCAP에서 김태형 박사님의 특강, 셋째 날에는 태국의 최고 대학이라는 Chulalongkorn University 방문, 넷째 날에는 현지 서울대학교 선배님들과의 저녁식사를 통한 네트워킹의 자리까지 그야말로 시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꽤 찬 일정을 소화했다.

대사관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어느 정도의 환상과 동경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에 대해서 현실에서 겪는 애로사항들,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빛나는 장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은 곧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는 말이 있는데, 태국 방콕의 시내에 웅장하게 자리잡은 우리나라 대사관의 모습은 깊은 애국심과 함께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벅찬 느낌을 주었다.

다음날, UNESCAP에서 이어진 김태형 박사님의 강연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김 박사님께서서는 국제기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국제기구 직원의 현실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님이 등장하신 이후, 물론 그 이전부터 막연하게 국제기구라는 곳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그 곳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조언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국제기구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며, 국제기구에 들어와 일하는 경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Chulalongkorn University의 방문도 잊을 수 없다. 우선 가장 처음에 인상깊었던 것은 대학생들이 아직까지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였는데, 그것은 흡사 우리나라의 옛 모습을 투영해 보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촌스럽거나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정감있고 순수해보이는 모습이었으며 거기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버스의 창밖에 흰 상의에 검은 하의를 입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또 캠퍼스를 걸으며 순진무구한 웃음을 보이는 태국 학생들을 바라보며 나 또한 잠시나마 그들과 함께했다. 대학 내에서도 직원분들께서 학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자신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서울대학교에서 온 우리를 정중히 응대하는 모습에서 우리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끝으로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태국 내 서울대학교 선배님들과의 식사에서, 외국에서도 탄탄대로 성공대로를 달리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한자리에서 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태국이라는 멀고도 가까운 이 나라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정신으로 한국인의 롤모델이자 글로벌 리더로서 활약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 속 깊이 어떠한 든든함과 동경, 그리고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도 막연한 동경보다는, 외국이라는 낯선 무대에서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를 극복했을 것인가.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배우려고 노력했다. 또한, 그 다음 세대로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또 있다. 바로 일주일간의 일정 내내 항상 함께하

시며, 기관 방문과 발표로 외국에 와 있다는 기쁨을 맘껏 누릴 수 없었던 우리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톡톡히 태국의 문화와 사회 등 각 분야에 관한 재미있는 설명으로 관광 분위기를 연출해주셨던 가이드 김예윤 부장님과 태국 현지 가이드 키티 씨다. 두 분은 우리와 함께 이동하고, 바쁜 일정을 함께 소화하시며 일정에 차질 없이 가장 편안한 하루하루를 소화할 수 있도록, 이동에서부터 식당 섭외, 마지막 날의 관광 일정까지 많은 것을 계획, 진행해주셨다. 덕분에 이동 시간마다 톡톡히 여러 가지를 여쭙면서 태국에 대해 새로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태국이라는 나라, 방콕이라는 도시에 꼭 한 번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과 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해주신 기사분들, 그리고 우리 참가인원 15명 외 다른 모든 분들께 작지만 깊은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조교로서 역할을 시작했던 지난 4월부터, 최종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를 돌이켜 보았을 때, Global Talent Program이라는 의미의 GTP는 Great Training Program(때로는 Pressure)의 약자로 내게 느껴진다. 같은 GTP라도 그 해석에 따라 이렇게 다른 느낌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는 Great Training Pressure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분명 나는 GTP를 통해 그 이전의 나보다 여러 면에서 강해졌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의 기획력, 국제기구 및 해당 기관의 직원 분들을 상대

하는 소셜라이징(Socializing)과 네트워킹 스킬, 발표의 준비와 구성, 그리고 위기대처능력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보조하며 진행하는 능력까지... 이렇게까지 한 개인을 짧게는 일주일 만에, 길게는 석 달여의 시간 만에 단련시키고 그야말로 업그레이드까지 시키니, 이것이야말로 Great Training Program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처음 조교로 이 프로그램에 입문한 이래, 숙소를 검색하고 관광 일정에 대해 고민하고, 기념품을 주문하는 등의 일을 해보며 기획력을 배울 수 있었고, 국제기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기관의 직원들과 통화하고 담당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참여를 부탁드리는 등의 일을 통해 소셜라이징 스킬을 체험할 수 있었다. 또, 발표자의 한 명으로써 발표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내용을 준비하며 팀워크와 구성 능력을 단련할 수 있었고, 바쁜 일정 속에 발표 내용을 추가하고 제외하며,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편집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위기관리 및 대처능력도 키울 수가 있었다. 이런 여러 역할을 소화하며 책임감과 체력이 더욱 강해진 것은 불필재언(不必再言)일 것이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Great Training Pressure를 통해 체득한 여러 경험과 능력을 통해, 단순히 프로그램 본연의 목적인 국제기구에서의 발표, 현지에서 이루어진 글로벌 리더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준비과정 및 마무리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해져 시너지를 발휘해, 앞으로 내 인생의 가치관, 학업 및 진로설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가져왔다.

우선, 보다 현실성 있는 미래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내 위치에서 내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시간을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해 더욱 집중할 것을 배웠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팀워크와 따뜻한 응원의 말 한 마디의 놀라운 힘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꾸 강조하지만)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는데, 우선 조교로서 일주일 내내 긴장을 풀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한 형, 친구, 동생들이 본인들이 가진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고, 교수님과 선생님을 보조하면서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경험했다. 부족한 수면시간을 (거창하지만)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버티며 체력까지 더욱 증진시키면서, 나 역시 내·외적인 면 모두에서 강해졌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내 가치관, 학업, 진로설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의심치 않는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에도 지금과 같이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이자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데에는 참가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새벽까지 함께 잠을 설치시며 우리의 성공적인 발표와 프로그램 완성을 위해 총 10번의 발표를 홀로 소화하시듯, 불철주야 격무를 자원하신 은기수 교수님과,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꼼꼼하게 챙기시며 또 참가자 한 명, 한 명이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언과 응원, 버팀목의 역할을 아끼지 않으신 박희영 선생님의 존재가 있었음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며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팀워크

GTP는 ‘작지만 강한’ 프로그램이었다. 5월 중순 면접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참가자 선발 및 꼼꼼한 사전교육, 그리고 치밀하고 열성적인 발표 준비까지..., 그야말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일념으로 6월 23일 태국 방콕행 서울발 KE651편이라는 ‘한 배’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밤 9시경이 되어 방콕에 도착한 인원은 고작 15명(인솔교수, 프로그램 담당자, 조교 각 1명, 참가학생 12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과정을 거쳐 같은 장소에 선 15명의 한 팀은 비장한 각오와 함께 그 어떤 상황,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응집력과 팀워크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 6월 23일 밤 태국 방콕의 스완나품 공항에 첫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다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돌아와 이뤄진 6월 30일 새벽의 해단식 순간까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치고 각자의 바쁜 생활로 돌아와서도 종종 회자되고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우리의 팀워크는 매우 견고한 것이었다.

자신의 발표가 끝났음에도 이후 다른 팀원들의 리허설, 준비에 적극 참여해 여러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당근으로 또 때로는 채찍으로 모든 팀원의 발표가 호평 속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왔고, 중간중간의 휴식시간,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시간, 그리고 관광시간엔 동료이기 이전에 친구이자 친한 선후배, 형, 오빠, 누나, 언니, 동생으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단순히 한 팀으로 구성되고 이름 붙여지는 것만으로는 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자동으로 팀워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GTP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여 서로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주고 또 배려, 응원하면서 이번 GTP 방콕 편의 15명 참가 인원 사이엔 다른 상황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강한 팀워크가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동반자 의식이 절대 필요한 프로그램에서 그와 같은 팀워크의 중요성과 효과는 어마어마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쌓았던 ‘팀워크’는 그야말로 이번 GTP 방콕 편에 참여한 우리 ‘팀’이 성공적인 발표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자기성찰, 그리고 글로벌 리더들과의 네트워크 설립이라는 공통적 ‘워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최대 요인 중 하나였다.

향후 계획

GTP의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사기 힘든 것이었다.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가진 본연의 목적은 앞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전공지식을 심분 발휘하여, 학교의 경력개발센터가 마련해 준 이 기회의 장을 적극 활용,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국제기구 및 NGO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이번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그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룩하고 더 값진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 거창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한계를 어느 정도 시험해보고 그 과정을 통한 단련을 해냈다는 것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초반 기획부터 준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제기구와 그 구성원들이라는 거대한 무대와 대단한 관객들 앞에서 홀로(혹은 발표 파트너와 단 둘이)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5분, 20분 동안 고독한 싸움(?)을 하는 과정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대장간의 쇠처럼 두드러지고 데워짐을 반복하며 (아직도 부족하겠지만) 조금 더 단련되고 강해진 것 같다.

앞으로도 이 경험과 단련을 바탕으로 더욱 자신감있는 대학원 생활을 이어갈 생각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내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이들로부터 내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열심히 배우고, 또 나의 작고 보잘 것 없는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며, 누구에게나 책임감있고, 최선을 다하며, 자신감있는 나로 비춰지길 기대한다.

취업이나 미래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막연한 동경으로 그것을 좇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나와 내가 가진 적성 및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적극적인 선택으로 후회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GTP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부분이다. 단연코 말하는데, GTP는 절대 쉽지 않다. 아니, 솔직히 어렵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내서, 지원하고 면접을 거쳐서 선발되는 학생들은 그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욕심도 있고,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해 동경하며 완벽한 준비를 원할 것이 분명한데, 일단 준비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기 힘들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어떤 준비가 감히 ‘완벽’할 수 있겠느냐만은, 그래도 일정 수준의 준비를 하고 출국해야 하는데, 보고서 앞부분에도 설명했듯이 GTP의 본 일정 자체가 학기 끝난 직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이 학생들의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인 학기 말에 겹쳐 있다. GTP의 취지와 목적, 구성의 장점을 잘 알고 있기에 절대 그 준비과정에 소홀할 수 없고 그렇다고 대학(원)생 본연의 임무인 학교 공부에도 절대 등한시할 수는 없는 터라 체력적, 정신적으로 강해질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지에서의 땀땀한 일정 역시 두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듯이 준비과정부터 본 일정, 그리고 마무리 내용까지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담대함과 정신력, 그리고 마인드컨트롤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GTP는 나쁜 프로그램이 아니다. 아니, 좋다. 그것도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기회와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국제기구 방문, 글로벌 리더와의 만남은 달콤할 것이며, 현지에 직접 나가서 시야를 넓히는 과정에서 키워지는 우리의 내구성은 덤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그것들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향후 성공 전략으로 이어지려면, 우선 이 과정을 겪으며 강해진

자신이 다시 나약해지지 않도록 다잡을 수 있는 강인하고 굳은 심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분들과의 지속적인 연락 및 네트워크 관리도 필수적일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 내내 강조했듯 프로그램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곧 인턴십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공 전략이자 요인이 될 것이다.

02

Be UNique

양혜진 (국제지역학 석사과정)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한다. 취업 관련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아 주로 학부 4년생들이 찾는 곳이라 생각하기 쉽겠지만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로 구성된 유익한 정보를 마음껏 얻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교 이메일로 받는 소식뿐만 아니라 경력개발센터 사이트를 종종 방문해 새로운 행사 및 프로그램을 늘 눈여겨 보는 편인데, 이번 GTP 방콕 편 역시 그렇게 알게 되었다.

사실 GTP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 테마에 따라 매 학기 학생들의 국가경쟁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방학을 이용해 학부, 석사과정생들이 팀을 이루어 다녀오는 정도로 간단히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알고 있었다. 때마침 학교 곳곳에 붙은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가 매일 눈에 띄었고 국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국제기구·NGO”를 주제로 하는 이번 방콕 편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다만, 학

기 말이었던 터라 출국 전 준비사항과 관련된 교육 및 OT 참여, 발표 준비가 개인적인 학과시험과 사무실 일 등과 겹쳐 말 그대로 동시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석사과정 2년생인 나는 마지막 교과목 외 활동이 될지도 모르는 GTP 방콕 편에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지원했다.

지원과정

선발과정은 서류와 면접 심사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서류심사를 위한 지원은 경력개발센터 웹사이트에서 접수한다. 자기소개서, 영어 성적, 학교 성적 등 기본적인 서류도 함께 등록하게끔 되어 있다. 취업 준비 기간은 아니었지만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몰라 꾸준히 공인 영어 성적을 유지해왔었고, 나머지 서류는 어렵지 않게 준비가 가능했다. 지원서 양식에는 지원자의 관심주제가 무엇인지 미리 밝히는 섹션이 있고, GTP에 지원하는 이유와 지원자가 GTP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장기적 미래계획을 비롯한 이 프로그램이 지원자의 커리어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 같은지 등 간단하게 보여도 진지한 자세를 갖고 답해야 하는 질문사항이다.

개인의 관심 분야는 문화외교를 키워드로 진행되는 나의 논문 주제에 따라 Education and Culture(교육과 문화)를 택했고 이에 따라 방문 예정 기관 중 나의 관심 1순위였던 UNESCO(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발표자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따라서 지원서 작성을 단지 면접 기회를 얻기 위한 별개의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성하는 순간부터 GTP 참가자라는 마음을 갖고 임하는 것이 다른 수많은 참가자의 지원서 사이에서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진지하게 임한 사람의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것과 확실히 차이가 있을 테니 말이다.

실제로 프로그램 종료 후 나의 지원서를 다시 읽어보니 내가 작성한 대로 또 마음먹은 대로 나는 단기계획 달성 과정에 이미 들어선 상태였다. 진심은 통한다는 말을 믿는다. 또 이루고 싶다면 “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지원서 작성이 여러모로 많은 걸 안겨준 셈이다.

사전교육

사실 GTP에 지원한 이유가 단지 출국 이후 방콕 프로그램이 흥미로워 보여서는 아니었다. 출국 전 실시되는 사전교육은 단기간에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개인지도를 포함한 질 높은 강의를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큰 혜택이었다. 개인 발표 주제가 정해진 후에 콘텐츠와 발표기술에 관련한 개인 면담시간을 제외하고도 교육은 약 18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태국에 대한 소개도 좋았지만 영문 이력서, 커버레터 작성법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유익한 내용이었다. 사실 학부 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알고 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었고, 이력서와 커버레터는 (특히 외국계 기업이나 국제기구를 대상) 또 목적에 따른 선호 형식이 있고 주의해야 할 부분, 최근 몇 년간 바뀌어 온 트렌드 등이 있어 이를 직접 듣고 그 자리에서 내 것을 고쳐나가는 방식이라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효과가 좋았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발표 주제는 참가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방문하게 될 기관당 한 명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주제는 기관에서 미리 보내온 것을 발전시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주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이기에 떠올리고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의견을 원하는 것들이었고 단지 창의적이어야만 할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고 여기에 준비된 발표기술까지 접목시켜야 한다. 한 마디로 약 10~15분짜리 공연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

이었다.

주제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전 발표하게 될 기관의 성격과 관련된 곳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지도교수 등을 만나보고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나는 작년부터 서울시청소년문화교류센터에서 “뿌리 깊은 세계유산” 교육프로그램을 다문화교육과 엮어 강사 및 평가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때 특별 강의를 해주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커뮤니케이션팀 김귀배 팀장님을 따로 만나 뵙고 현장에서 희망브릿지, 세종프로젝트, 세계유산지킴이사업 등 현재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젝트, 현황, 성과 등에 대해 직접 전해 들었다. 그 밖에도 세계유산 프로그램 담당자인 교류협력팀 전은숙 선생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프로그램 담당이신 국제대학원 은기수 교수님을 가장 자주 찾아뵈어 콘텐츠, 발표 내용 기본구성 등에 관련된 상의를 했다. 틈틈이 경력개발센터 박희영 연구원님의 지도로 영문이력서와 커버레터 최종 수정작업이 이루어졌고,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봉민아 강사님의 프레젠테이션 스킬 개별 지도, 뿐만 아니라 은기수 교수님과 모든 참가자가 출국 전 발표연습을 해 보며 보완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리허설 세션이 3회 진행되었다. 출국 후보다 사실 출국 전이 훨씬 더 바쁘고 정신없게 지나간 것 같은데 돌아보니 그 정도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소장이 한국인(Director 김광조)인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으며 방문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었고 방콕 교육부와도 가까운 곳에 있다. 김광조 소장(Director)님은 바쁜 와중에 다음 약속을 미루어가면서 GTP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 도착하자마자 간단히 환영사를 해주시는 것 외에 예정에 없던 시간이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으나 결론적으로 소장님은 사무실에 참가자 모두를 초대하셨고 발표 후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마친 뒤 인생 선배로서, 국제기구 진출 경험자로서 또 세계에서 영향력을 펼치는 한국인 중 한 사람으로서 아낌없이 진심이 느껴지는 조언을 해주셨다. “내가 만약 다시 학생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역사공부와 언어공부를 하겠어요.” 어찌 보면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이슈와 국제관계적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국사를 비롯한 세계사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중요한 것을 놓친 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정신을 빼앗긴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셨다.

또한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와 스페인어의 매력과 그 중요성도 강조하셨다. 경주 출신인 김광조 소장님은 굵은 중저음 목소리에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묻어나지만 정확하고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하셨고, 매우 한국적이면서도 독특한 연 만들기가 취미라며 직접 만들어 전시한 연을 소개하셨다.

이렇듯 한 주 동안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방문을 통해 직접 느끼고 보고 듣는 것

자체도 큰 수확 중 하나였다.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는 주로 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 중에 있었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곳인 만큼, 기관 내 문화는 매우 자유롭고 평화로워 보였다.

발표 주제 및 내용

유네스코에서 미리 보내 온 주제는 “What Korean students can contribute to the world with a focus o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였고 교육, 과학, 문화 분야 중 하나로 좁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발표하는 열 팀 중 두 팀만 2인 1조였는데 그 중 한 팀이 유네스코였다. 짧은 시간 내에 흐름을 둘로 잘 나누어 15분짜리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다.

파트너와 함께 가장 먼저 한국학생, 즉 한국의 젊은 세대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선발된 학생의 발표라 한국 학생의 시각에서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의견을 기대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내가 택한 ‘문화’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은 무엇이 될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접근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처음 갈피를 잡는데 많이 헤맸다. 생각보다 주제가 넓어서 좁혀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다. 이유인즉슨 Action plan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접근을 했기 때문인데, 이미 유네스코를 비롯한 여러 문화교류 기관에서 젊은이기에 할 수 있는 각종 국·내외 봉사활동, 전공을 살린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활발히 또 훌륭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student body를 키워 한국 인재를 양성하여 단·장기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에도 역시 멘토-멘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접근은 특별히 기발한 결론을 끌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뭔가 특별함 없이 계속 예상 가능하고 이미 있는 것의 연속선상에서만 결론이 나오기 일쑤

였다.

결국, Korean student를 Korean young generation의 개념으로 보고 한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Korean young generation culture 중 대표적인 'Pop culture'를 키워드로 잡고 한국 젊은 세대의 대표적 문화인 Pop culture가 유네스코에서 지향하는 세계적 차원의 Cultural diversity(문화다양성)와 Intercultural dialogue(문화 간 소통)를 강화하는데 어떠한 수단으로 역할을 해낼지에 대한 내용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기로 했다. 최종 주제는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로 결정했다. 유네스코 문화부 산업은 주로 각 국가 및 사회의 고유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 것의 소중함을 인정해 주는 개념의 접근으로 많이 시도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사업만 하는 곳으로 아는 젊은이들이 많을 정도로 역사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존하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 사실이다. 반면 대중문화와 같은 수익이 목적인 문화 개념은 오히려 비즈니스 상품으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생겼다 하면 곧 사라지는 짧은 생명주기 또한 특징으로 갖고 있어 고급문화(High culture)와 상반되는 개념인 저급문화(Low culture)라고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통문화와 마찬가지로 대중문화도 충분히 관용(tolerance)과 상호 간 이해(mutual understanding)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최근 증명해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증가하는 국제이주에 따라 Ethnic heterogeneity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인해 더더욱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또한 심각해져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목적인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소통이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가 현실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다문화 정책 시행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국가들조차

도 2012년 그들의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표를 했다. 그만큼 각기 다른 배경과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에 정책시행 등 강제성의 성격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동시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Pop culture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긍정적 이미지를 인식하여 문화 간 소통을 이루어내고 문화적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 다른 두 그룹 간의 이해증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팀은 그 예로 한국의 Pop culture, 즉 K-culture를 소개하며 그 타당성을 말하고자 했다. 더군다나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를 이루어가는 한국은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모습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상대방의 전통적 가치 및 문화 또는 우리의 것을 서로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에서 오는 문화적 소통뿐만 아니라 유네스코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대중문화, Pop culture의 분야도 전통문화에 버금가는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유네스코가 ‘문화’라는 개념을 대할 때 좀 더 넓은 시야로부터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발표 기관 활동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는 문화, 교육, 과학 중 교육에 많은 중점을 둔 사업이 진행 중이다. 나의 개인적 관심인 동시에 우리 팀의 발표 주제가 ‘문화’인 것에 비해 문화국 담당자가 시간관계상 나와 있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웠지만, 방콕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과 인턴이 Information Session에 함께 자리했다. 덕분에 다른 기관보다 더 긴 Q&A 세션을 가졌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 오고 갈 수 있었다. 실제



유네스코에서 나의 발표.

로 그들은 모두 국제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생이었고, 논문 주제는 꼭 문화에 직접 관련은 없었으나 젠더(gender), 교육, 국제개발협력 등 다양했다. 그들이 왜 유네스코 인턴을 선택했는지, 현재까지 배운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 방문 내용

대부분 우리 그룹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짧지만 각 기관 방문 시 진행되는 우리 측의 발표를 좋아하고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는 반응이었다. 커리어가 없는 어린 학생들의 방문이라고 생각했다가 나름대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탄탄한 콘텐츠 구성을 위한 노력이 보였는지, 기특하면서도 대견한 눈빛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또한 새로운 방안이나 제안을 할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나 혹은 현재 해당 기관에서 의미 있게 다루는 이슈로, 학생들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거



유네스코에서 기관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

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 반응이 좋았다. 여기에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따로 배우고 연습한 과정을 거친 것이 중요한 사전교육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방콕 내 프로그램 기간 중 앞으로 매년 혹은 매 학기 서울대 학생을 인턴으로 한 명 이상 뽑겠다고 빠른 연락이 온 기관도 두 군데나 있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WFP 방콕 사무소는 아니지만 방학기간 중 한국사무소에서 인턴 기회를 얻은 참가자도 있다. 이렇듯 GTP의 장점 중 하나는 현지 기관을 방문하면서 얻는 직접적인 자극 및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빠른 피드백으로 실제 인턴으로까지 연결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각 기관마다 두세 명의 직원이 직접 짧은 형식의 발표를 준비한 것에서 우리를 배려하고 성의를 다해 맞이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각 기관에서 열심히 활동중인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가슴 뭉클하면서도 뿌듯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직책에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본인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으며, 그들의 표정과 말

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 것이라는 나의 막연한 상상에 잘 들어맞았다. 존경스럽기도 하고 곧 논문작업과 취업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의 국제무대 진출을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용기를 얻었고 지쳐 있던 몸과 마음이 그때마다 새롭게 다져지는 기분이었다.

현지 교육 및 특강

첫 날 방문했던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대사관과 대사관저를 보면 두 나라의 관계와 그 나라의 영향력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하지만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대사관 건물은 입장과 동시에 뿌듯함을 안겨주었다. 대사관에서 우릴 맞아 주신 참사관님은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앞두고 유익한 강연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UNESCAP 방문 날 우리 그룹은 김태형 박사님과 special talk를 가졌다. “UN에서 일하기”라는 주제로 누구나 궁금하지만 물어볼 곳이 없었던, UN 인턴 후기나 소개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진짜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 위주로 차근차근 언제나 그렇듯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개발정책학과에서는 학기 중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국제개발정책학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그 주제는 환경, 발전, 젠더, 인권, 평화, 빈곤, 보건, 공공행정 등 다양하다. 나는 세미나를 홍보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데, 지난 학기 3월에 있었던 “Status and Challenges on Environment and Growth from UN perspectives” 강연 때 김태형 박사님을 뵈는 적이 있었고 재미있게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박사님을 다시 뵈 수 있어 반가웠고 목요일 동문회의



주태국 한국대사관 앞에서 단체사진.

밤 저녁식사 때 또 한 번 만나 뵈어 일방적이지만 나중에는 친근한 느낌까지 들었다. GTP 참가자 중 방콕에 좀 더 머물렀던 학생과는 따로 시간을 내어 필요한 조언을 해주셨다니 단연 인간미 넘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신 분이였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등 기타 활동

동문의 밤 저녁식사는 방콕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뷔페에서 있었는데, 선배님들은 먼저 도착해서 일정이 약간 지체되어 늦어진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셨다. 공식 일정인 기관 방문을 단 하루 앞둔 목요일 저녁, 참가자들은 많이 지치기도 한 (특히나 나는 당일 오후 발표를 막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서인지 더더욱 피곤했던 것 같다) 상태였다. 하지만 UN에서 지난 며칠간 프로그램상 만났던 분들을 이렇게 ‘동문의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 다시 뵈고 여유롭게 저녁식사를 즐기며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사항들도 질문할 기회가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열정적이고 욕심 많은 열두 명의 참가자는 아마도 이번 GTP 방콕 편을 통해 각자 얻은 바가 있을 것이다. 이 짧은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전 세대에서 지금보다도 더 어렵게 어학공부를 하시고, 후배를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들게 노력하셨을 인생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 뵈면서,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 가지 일과 고민들로 스스로에게 불평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분들이 직접 보여주신 에너지에 많은 힘과 용기를 얻었다. 이는 분명 석사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학업에 충력을 다할 수 있게끔 지칠 때마다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 자체도 알차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기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알게 된 것 또한 나의 생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진로설계에 있어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내가 꼭 좋아해 왔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나의 분야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덤으로 얻은 할 수 있다는 긍정에너지야말로 진로설계를 원활히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팀워크

이번 GTP 방콕 편을 참가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참가자들 간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긴장 속에 진행되는 매일 아침과 오후의 발표는 아무리 개인발표라 할지라도 함께 긴장하고 참가자들이 서로가 서로

에게 보내주는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매일 밤 세미나 룸에서 자정 가까이까지 진행되었던 리허설은 발표가 끝난 사람도, 발표일이 곧 다가와 준비할 것이 많은 사람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다 함께 힘 합쳐 수정하고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발표내용은 나머지 멤버들로 하여금 다음 날 아침 청중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비슷한 떨림과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해! 파이팅.” 끝나면 “잘 했어! 진짜 멋있었어”, “정말 애썼다. 기관 참여자들이 좋아하던데?” 등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거의 매일 밤 잠을 설치며 가장 애쓰신 은기수 교수님과 박희영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다.

발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팀워크는 더한 힘을 발휘한다. 리허설을 계속 지켜봐 온 멤버들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지도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함께 매일 발표를 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것 같다. 간혹 중간에 발표자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꼭 말해야 하는 키워드를 놓칠 경우엔 하나같이 입을 모아 눈빛, 손짓, 심지어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때 그때 필요한 1초의 도움을 주고 받고 있었다. 기관 관계자들도 이 상황을 못 보진 않았을 테지만 완벽한 발표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을 것이며, 꼭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중 인턴기회 연락이 곳곳에서 온 것을 보면 분명 우리 그룹에 대한 또 학교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상이 좋게 남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향후 계획

UNESCO 방콕사무소에 이제까지 서울대 학생이 인턴으로 일한 적이 없다는 말에 놀랍고도 의아했다. 실제로 지원 인원 자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선발이 되어도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이 유네스코 측 설명이었다. 실제로 인턴 중인 다섯 명의 석사과정생들도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

대학교 등 다양했지만 이번 기수에도 서울대생은 없었다. 나는 문화외교를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당장 우선순위로 마무리해야 할 논문작업이 끝난다면 관련기관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나의 관심 기관은 유네스코도 물론 포함되며 커리어의 시작이 인턴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적절한 시기에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반드시 지원할 것이다. 만일 그곳이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라면 정말 좋은 인연이 될 것 같다. 문화와 교육분야에 관심 있다면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관심기구에서 지원하는 Job opportunities → Internship 카테고리를 유심히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하든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있다면 소기의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GTP는 매학기 다른 소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나의 단기 및 중장기 계획에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전공이 무관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떠한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더라도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 동기는 탄탄하고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학기 공지가 뜨길 기다린다면 미리 공인 영어 성적 날짜가 유효한지 확인하고, 1차 서류 합격자라면 열정적으로 발표 준비에 임할 자세와 (기관 방문 시 선호기관 순위를 조사하는데 이때 신중하길 바란다. 그와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관심과 흥미가 연결된 것이어야 발표 준비를 하거나 리서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전교육, OT, 발표준비 등 모든 출국 준비를 기말고사와 함께 이겨낼 정신무장을 한다면 매우 뿌듯한 방학의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국제기구 인턴을 생각 중이라면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석사



UN 건물 내 카페테리아.

과정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어나 스페인어 같이 영어 외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더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여기에 확실한 목적과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분명 환영받는 레쥬메와 커버레터의 완성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지원자로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UN 건물 내 카페테리아 이름은 'be UNique'(위 사진)이다. 그 곳에서 점심을 몇 번 하게 되었는데, 확실한 메시지 전달력을 지닌 독특한 이름의 그 식당 문을 드나들며, 함께 참가했던 친구와 '꼭 기억해야지'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난다. 이번 GTP에서 보고, 배우고, 얻고, 느낀 것을 잘 키우고 닦아, 꼭 'be UNique' 카페테리아에서 매일 점심을 먹지 않더라도 나만의 색과 스토리가 있는 '유니크'한 사람이 되어 기관 방문 동안 만난 분들처럼 하고자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Can You See My Heart Beat, GTP?

오주연 (국제협력학 석사과정)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국제기구, 드디어 기회가 오다!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국제기구를 목표로 두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았지만, 국제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3학기 때에, 보건대학원에 기후 변화특론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 GTP 방콕 편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지원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방콕 편이고, 내가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던 UNESCAP을 가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아무래도 학부생보다는 일정 면에서 여유롭지 못한 대학원생인지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쪼개서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당시 일주일에 이들은 회사에 출근하던 상황인지라, 점심시간에 택시를 타고 학교에 와서 면접을 보는 등 일분일초를 쪼개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일초를 쏘개서 준비한 GTP

GTP에 지원하기 위해서 경력개발센터 사이트에 여러 가지 나와 관련된 경력을 기술했다. 최대한 자세히 입력했는데, 평소에 영문 이력서를 준비해놓고 나의 경력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놓았기 때문에 지원 당시에는 간단히 항목들을 간추리고, 복사와 붙여넣기로 손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평소에 준비를 해놓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자기소개서에는 지난 4년간 회사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한 왜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했다. 대학원에서 나의 주 관심분야인 무역, 환경, 개발 관련 수업들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웠고,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기술했다. 상세히 기술할수록 당시에는 시간을 뺏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 나의 커리어나 연구분야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원 동기와 나의 소개를 자세히 쓰면서 내가 발표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발표하고 싶은지, 나의 주 관심 국제기구는 어디인지 명료화할 수 있었다.

1차를 합격하고 면접날이 다가왔다.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나는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고 첫번째로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순서가 첫번째인 것은 처음이라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면접이기도 했고, 면접 당시에 은기수 교수님의 예리하고 디테일한 질문에 많이 당황했다. 시리아 사태가 과연 국제문제인지 아니면 그 나라의 문제인지, 왜 미국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지 않는지 등 굉장히 답변하기 애매한 어려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나는 최대한 질문에 답변했고, 또한 내 관심분야가 무역, 환경, 개발임을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더불어 교수님께서서는 직장 경험이 있어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간절함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왜 이 프로그램에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서 계속해서 질문하셨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정말 국제기구에 취업하는게 나에게 간절한 일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다. 나는 그때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는지, 나의 장기적인 커리어 플랜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힘들게 점심시간을 쪼개서 면접을 보러 갔지만, 돌아가는 길은 정말 힘이 쑥 빠졌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은기수 교수님과 박희영 선생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덕분에, 나는 대학원 생활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방콕에서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알찬 사전교육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사전교육이 일정으로 잡혀 있어서 기말고사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귀찮아 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 사전교육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영문 커버레터, 이력서 쓰기부터 시작해서 PT하는 법에 대한 강의 등 하나하나 정말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 나름 발표나 PT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PT 수업에서 디테일한 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 PT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였다. 평소에 영문 커버레터, 이력서나 PT 강의를 듣고 싶었던 나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다.

영문 커버레터, 이력서 작성 시간에는 사전에 내 자료들을 보내놓으면 선생님께서 강의 중간에 샘플로 사용하시며 고쳐주셨는데, 이 부분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나의 개인 정보가 모든 학생들에게 공유되는 사태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피드백에 비하면 그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PT 강의 이후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을 다시 만나 일대일 강습

을 받기도 했는데, 평소에 PT 하는 방법 면에서 궁금했거나, 나의 개인적인 습관 중 고쳐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쭙볼 기회였다. 물론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서 바쁘고 힘들지만, 잠을 조금 줄이더라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한다면 정말 뽕(?)을 빼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러한 양질의 교육을 준비해준 박희영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2. 현지 활동

UNESCAP이란

나는 UNESCAP의 Divis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UNESCAP은 개인적으로 평소에 관심이 많은 기관이었던 탓에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기관과 부서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였다.

UNESCAP은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약자로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이다. ESCAP(에스캡)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재건과 개발, 경제 활동 수준 향상 및 지역 내 국가 간 또는 지역 외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관이다. 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아 평소에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 관련된 페이지들을 찾을 때 UNESCAP 사이트에 종종 들어와서 자료들을 찾곤 했다.

UNESCAP의 주요 활동으로는 1) 산업화 지원, 2) 아시아 태평양 교통망 구축, 3) 국제무역 촉진, 4) 경제, 사회 조사 분석 및 개발정책 연구, 5) 통계 작성 지원, 6) 개발금융 확충을 위한 금융 협력, 7) 사회이슈 대응, 8) 환경과 지속가능 개발, 9)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국제연합 기관 간 조정

기능 수행이 있다.

Trade and Environment(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를 논하다

나는 UNESCAP의 환경 & 개발국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 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환경문제와 이것을 개발과 연관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시에 나는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경제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그 과목을 수강하면서 나의 term paper 주제는 Trade and Environment였다. Term paper를 준비하면서 25개 이상의 페이퍼들을 읽은 상태이고, 발표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단계여서 나는 준비가 한층 더 수월했다. GTP에 선발되어도 정말 자신의 관심분야와 관련해 발표하는 기회가 흔치는 않은데, 나는 정말 내가 연구하고 싶었던 분야를 발표할 수 있어서 더 쉽고 즐겁게 태국행을 준비할 수 있었다.

Trade and Environment를 주제로 환경경제학 수업시간에 발표를 했고, 나는 홍중호 교수님께 UNESCAP에서 발표하게 될 것을 말씀드리고 피드백을 요청드렸다. 교수님께서서는 나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고, 신선하고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말씀해주셨다. 아무래도 ESCAP에서 발표하는 것이니, 아시아 내의 선진국(한국, 일본)과 개발도상국(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더 맞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 나는 적극 반영해 발표 자료들을 보충했다.

Trade and Environment의 주 내용은 국제 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역과 환경의 관계에는 대표적으로 Factor Endowment Hypothesis와 Pollution Haven Hypothesis가 있다. Factor Endowment Hypothesis는 Heckscher-Ohlin Theory를 바탕으로, factor endowmen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보다 capital abundant하기 때문에 capital intensive goods를 생산, 수출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labor abundant하기 때문에 labor intensive goods를 생산, 수출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capital intensive goods가 더 pollution intensive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Heckscher-Ohlin Theory에 의해서 factor endowment가 무역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면, 선진국들은 capital intensive (pollution intensive) goods를 생산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게 된다.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는 labor intensive goods를 생산하기 때문에 선진국들보다는 환경오염을 덜 경험하게 된다.

또다른 가설인 Pollution Haven Hypothesis에서는 선진국들의 환경규제가 무역과 환경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규제가 강화되게 되는데, 이때 환경규제로 인해 pollution intensive한 산업들은 환경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을 높이게 된다.

이 두 가지 가설들을 시계열로 풀어보면, Factor Endowment Hypothesis에 의해서 선진국들은 환경문제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게 된다.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Pollution Haven Hypothesis가 기술하는 대로 dirty industry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Pollution haven이 되고 이러한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시아 내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일본과 한국의 제조업이나 dirty industry들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나는 이 부분을 집중 조명하여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했다.

우선 왜 나의 제언들이 필요한지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후변화로

인해 동남아시아들이 얼마나 경제성장에 방해를 받고 있는지 아시아 개발은행의 연구를 제시했다. 또한 Environment Kuznets Curve에 의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경오염 수준은 앞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악화되는 정도를 환경과 경제성장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는 방지하고 잠재 수준을 낮출 수 있음을 강조했다.

첫번째로 내가 제안한 바는 ‘No Race to the Bottom’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명 beauty contest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산업 불문, 투자국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거나 면세를 해주는 등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 판단하면 무분별하게 해외투자를 하려는 것이 개발도상국들의 현실이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경제성장이 주 목적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교육수준을 높이거나, 양질의 정책으로 선택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들이 환경규제로 인해 총비용의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되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환경 관련 비용은 총 비용의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labor이 풍부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들을 갖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기업들이 환경규제 때문에 자신들에게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국내 capacity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무조건적인 무관세 또는 저관세율 정책은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제안은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라는 것이다. 물론 경기침체로 녹색성장, 녹색경제, 기후변화라는 용어들이 어느새 쏙 들어가버리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환경문제, 기후변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또한 요즘은 국제기업들이 평판이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강제로 합부로 개발도상국들에 투자하여 노동을 착취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갈수록 평판이나 사회적 책

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는 시대임을 인식하고, 이제는 개발도상국들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환경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기업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Dirty industry들이 개발도상국들로 옮겨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개발도상국들 또한 환경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런 매력적인 경제성장의 기회를 외면하지는 않는다. 이게 현실이라면, 그 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롭게 도입하여 개발도상국들에 투자한다면 잠재 환경오염 수준을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는 기업들에 한해서 보조금을 제공해주거나 관세율을 낮춰준다면 이는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도입하도록 동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제언으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모두 win-win 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다. 선진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면 환경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한 기업들은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환경친화적인 기술 도입은 국제적 평판을 얻게 할 것이고 또한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FDI를 통해서 경제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환경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잠재 환경오염 수준을 낮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win win strategy를 아시아 내의 선진국-개발도상국 관계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요지였다.

내가 발표하는 동안 서울대학교 방문을 담당해주셨던 강경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나의 발표내용을 필기하시면서 경청하셨다. 또한 다른 직원들 외 인턴들도 15명 정도 들어와서 발표를 들어주었는데 모두들 집중해주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다.



UNESCOAP 환경개발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나의 모습.

발표가 끝난 후, 전문가이신 환경국 분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나는 돌아와서도 그 분들에게 이 발표 주제를 논문 주제로 삼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그래서 현재 논문 주제로 Trade and Environment를 가져가기로 했고, 현재 데이터 분석 단계에 있다. GTP는 단순히 국제기구에서 발표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넘어, 내 논문 주제를 잡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해주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던 것은 UNESCOAP의 홍보과에서 우리의 방문을 취재했는데, UNESCOAP 페이스북에 나의 발표와 관련해 사진과 설명을 포스트해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로 링크를 친구들과 공유했다.

UN과 친해지다

처음에 UN 건물로 들어섰을 때가 기억난다. 모두가 UN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 사진 찍었고, 반기문 사무총장님 사진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흥분감을 감출 수 없었다. UN Conference Hall에 가서 실제로 회의를 하고 있

는 각국 대표들을 볼 수 있었다. TV에서만 보던 그런 풍경을 내가 직접 보다니 신기했었고, 저 자리에 언젠간 꼭 앉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나의 꿈을 다잡았다.

지난해 국제대학원을 방문해 강연을 해주셨던 김태형 박사님께서 UN 근무 환경과 취업 경로 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들은 실제로 UN에서 근무하기 위해 어떻게 커리어를 플랜해야 하는지, 여자들의 경우 결혼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여쭙았고, 박사님은 정말 어디서도 말해주지 않을 귀한, 깨알 같은 정보들을 공유해주셨다.

항상 국제기구라는 타이틀에 가려져 환상을 갖고 막연히 좋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UN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UN의 한계가 무엇인지, 또한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조금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듣는 국제문제

UN 외에도 World Food Programme, World Health Organization, UNESCO, 크고 작은 NGO들을 방문했다. 각 기관 성격에 맞게 학생들은 발표를 준비했다. NGO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들의 비전과 소신을 갖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오히려 큰 국제기구보다 우리를 더 환영해주었고,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었다. 많은 기관에서는 자신들의 비전을 공유해주고, 자신들의 미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었다. 이러한 비전의 공유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일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내가 잘 모르던 재난, 보건, 선거, 문화와

관련된 국제문제와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게 되어 여러모로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Q&A 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평소에 내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할 기회들이 좋았다. 항상 이론적으로만 배우던 국제문제들을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에게서 들으면서 내가 학술적으로 배우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론이나 학문으로서 개발과 국제문제들을 논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지금까지 배운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였다.

매일 밤 이어지는 리허설과 피드백

매일 밤 다음날 발표자들은 다른 학생들과 교수님, 선생님 앞에서 발표 리허설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 다음날이 발표인데 교수님과 학생들의 예리한 지적과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행히 추가 수정할 사항은 없었지만, 많은 학생이 다음날 발표를 위해서 밤을 새곤 했다.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발표가, 다음날 모두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면 정말 새롭고 놀라운 발표로 바뀌어 있어 우리 모두 놀라곤 했다. 힘들게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래도 서로 응원하는 마음들과 격려가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서로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는 일인지 알기에, 발표가 끝날 때마다 찾아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곤 했다. 서로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24시간 내내 붙어 있어도 갈등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교수님께서 호숫해하셨던 점은 날이 갈수록 학생들의 실력이 는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어리버리했던 우리도 어느새 서로의 발표를 진지하게 듣고 피드백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해 있었다. 교수님은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뿌듯해하셨다. 태국에서의 일주일의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은 분명하다.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국제대학원 은기수 교수님, 혜진이와 함께.

태국의 미래를 보다 - Chulalongkorn University 탐방

여러 기관들 외에 Chulalongkorn University를 방문했다. 태국의 서울대인 Chulalongkorn University는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는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 국왕이 대학 졸업식 때 학생들을 일일이 만날 정도로 태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정말 귀하고 대단한 일이다.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모여 있는 대학에 방문했을 때 학교 측은 우리를 적극 환영하며 받아주었다.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주었고, 은기수 교수님께서도 방학 때마다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교수님을 따라 우리는 캠퍼스 투어를 했다.

대학에서 교복을 입는다는 점이 특이하면서도 개개인마다 교복을 줄이거나 개성에 맞게 맞춤하여 입는걸 보면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다. 같이 GTP에 참여한 학생 중 다음 학기에 Chulalongkorn University



UN Conference Hall에서 같은 국제대학원 혜진이와 함께.

로 교환학생을 오는 학생이 있어,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학교를 투어하고 탐방했다.

후배를 생각하는 따뜻한 선배님들의 마음 - 서울대학교 동문회

방콕에는 꽤 많은 동문, 선배님들께서 거주하고 계신다. UN 기구들을 돌아보면서 국장 직급뿐만 아니라 여러 포지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문회에는 UNESCAP 교통국 국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셨고, 김태형 박사님 외 국제기구에서 만난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셨다.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사모님들도 뵈면서 남편을 따라 타지에서 사시는 고충을 듣기도 했고, 옆에서 지켜볼 때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다.

또한 환경컨설팅에 관심이 있던 나는 컨설팅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선배님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네트워킹할 수 있

었다. 선배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자 애쓰셨다. 그 점이 굉장히 감사했고, 나도 나중에 귀감되고 도움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다.

이후 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콕에서 3일 더 머물렀는데 그때 선배님들을 다시 한 번 만나뵙고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바쁘신 업무시간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시고 후배의 인생이나 진로 조언을 해주신 점은 아직도 많이 감사하다. 진로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있어서도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내겐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다.

태국을 배우다

프로그램 내내 현지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고 계신 한국인 분이 안내를 해주셨는데, 버스 안에서 짹짹이 그분의 설명을 듣는 재미가 쏠쏠했다.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들도 그분으로부터 태국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알고 관찰하니 새롭게 다가오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항상 여행할 때는 그 나라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서 항상 이야기해주는 분이 계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은 여행을 하는 날이었다. 5일 동안 빡빡한 일정으로 피곤했지만, 그 모든게 끝나고 우리는 궁전, 사원들을 방문했다. 현지 가이드가 함께해 태국과 버마(미얀마)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유적지들을 찾아가니 사뭇 새로웠다. 단순히 부처상인줄 알았지만 그 사원의 배경에는 어떠한 스토리가 있는지 알게 되니 매우 흥미로웠다.

박희영 선생님의 깨알 같은 배려로 일정 중에 태국 전신 마사지가 있었



세계은행에서.



마지막 날 왕궁 투어.

는데, 마지막 쌓였던 피로가 모두 녹아내리는 시간이었다. 일주일 동안 일정 면에서 정말 짹짹하고 밤새 발표 준비하느라 다들 잠이 부족해 버스에서 쪽잠을 자곤 했는데, 선생님의 마지막 배려는 정말 감동이었다. 일주일간의 일정을 이토록 알차게 기획해주신 박희영 선생님과 은기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마음의 등불을 켜준 GTP

개인적으로 소명을 갖고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왔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접하고, 학문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렇기에 국제기구는 어느새 내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3학기였다. 그

러나 GTP를 통해서 다시금 대학원에 내가 왜 진학했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마음에서 멀어지던 국제기구가 다시 올림으로 다가왔고, 그 곳에서 전문가들을 만나 실질적인 조언을 얻으니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GTP가 꺼져가는 마음의 등불을 켜주었다.

향후 계획

GTP를 다녀온 후,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 분석 단계인데, 임의적인 내용은 한국의 dirty industry가 환경규제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 단계인지라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환경 분야에 테크니컬한 지식이 없어 포기하려던 나에게 GTP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다. 환경 문제라면 문과생인 나에게는 지극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층 더 깊이 연구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두번째 직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모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지만, 분명한건 내 머릿속에서 한동안 한쪽으로 치워두었던 내 초심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나의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갖든 안 갖든 항상 마음 속에 국제 문제(특히 환경, 무역, 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연구하고 싶다는 점이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나는 주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인턴을 한 경험이 있어 어떻게 보면 해외 취업을 경험해보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계 기업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 취업을 꿈꾸지만 막상 준비를 실천으

로 옮기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제약도 많지만, 실력적인 면도 완비하지 않고서 막연히 해외 취업을 꿈꾸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분명한 건 우리는 더 이상 한국에만 머무르는 세대가 아니라는 점이며, 나 또한 이것을 위기이자 기회로 여기고 있다. 영어로는 부족한 시대인 것 같아 나도 앞으로는 중국어를 배우고 싶고, 기회만 된다면 실천으로 옮기고 싶다. 이처럼 기본적인 언어를 포함하여 세계에 있는 수많은 실력자를 제치고 취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루하루를 알차게 48시간처럼 쓰고, 매일 비전을 향해서 성실히 살다 보면 기회는 알아서 찾아오고, 나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을 거라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다!

용기 있게, 경쟁력 있게

이승은 (보건학 박사과정)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나는 왜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편(국제기구 편)을 선택했는가?”
 이것은 나에게 있어, 곧, ‘왜 나는 ‘보건(保健)학자’의 길을 선택했는가?’와 같은,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의 답으로부터 출발한다. 다시 말해, 학사에서 석사, 그리고 지금의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보건’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두었던, ‘보건학(保健學)’을 향해 달려왔던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서 출발한다면, ‘나는 왜 국제기구에 가고 싶었던가?’에 대한 답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줄곧, 보다 많은 사람을 보다 많은 질병으로부터 해방케 하고자 하는 학문들에 관심을 가졌고, 내가 혜택받은 것들로 혜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내가 쌓아온 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국제기구’에도 늘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국제기구’에서 일해야만 하

는 이유가 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내가 보건학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세계 보편적인 보건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기구가 주목하고 해결해나가는 방법들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에서 ‘국제기구’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접해볼 수 기회가 많지 않다. 늘, 가보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지원자들과의 경쟁에서, 한국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언어의 벽부터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의 벽들로 도전해볼 기회조차 쉽게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것이 참 막연한 꿈에 그칠 때가 많다. 스무 해 넘게 한국에서 살아왔고, 기관에 아는 이도 하나 없었던 나 역시, 도전해볼 엄두도 쉽게 나지 않을 만큼 ‘국제기구’에서 일해 보고 싶다는 것은 정말 막연한 바람이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하는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편’은 나에게도, 그리고 본 편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친구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늘, 막연한 바람만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중, 학과 게시판에서 ‘GTP 방콕 편’ 참가자 모집 공고를 보았을 때의 설렘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망설임으로 또 공고만 확인하기를 며칠째. 그러다가 문득, ‘무엇부터’가 ‘2013 GTP 방콕 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치며, 용기 내어 큰 바람을 안고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다.

지원과정

물론,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매해 다른 성격의 국제기관 및 다국적 회사들을 방문하기에 각 지원자들에게는 준비해야 할 방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첫째가 지원을 위한 ‘용기’가 필요했다면, 둘째는 참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매해마다 방문기관의 성격이 달라지는 Global Talent Program에 어떻게 하면 참가자로서 선발될 수 있을 것인가? ‘국제기구 편’뿐만이 아닌 보편적인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

본 프로그램에서 나 또한 가장 크게 깨달은 선발 전략,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가 심사자의 지원자에 대한 첫인상과 선입견을 남긴다.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1차 서류심사보다 2차 면접이 선발 여부를 결정하는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많은 경우에서 선발 심사가 중치를 보면, 이것은 정말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나 또한 그러한 생각으로 이전까지 늘 마감 일자에 임박해서 급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 제출하고는 면접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는 매번 통과했지만 이상하게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던 나는, 면접 준비에 더 집착하게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준비과정에서 이곳저곳에서 조언을 들어가며 내가 깨닫게 된, 다음 설명할 이유들에서,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다음 지원자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우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떤 질문이라도,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만 하는가?’라는 물음을 안고 있다. 이것은 곧, 심사자가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던지는 질문이 된다. 때문에, 심사자의 대부분은, 자기소개서에서 지원자가 설명하고 있는 1) 지원자의 자격, 2) 지원자가 프로그램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 그리고 3) 지원자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그들의 질문인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만 하는가?’에 합당하게 답하고 있는지를 보고 지원자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선입견을 품게 되기도 한다. 그리고 심사자의 대부분은 지원자가 어떠한하겠다는 기대를 하고서 면접에 임하며 그러한 기대를 확인하는 과정이 곧, 면접이 된다. 다시 말해, 이미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과정을 통해 심사자의 선발 선호 지원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지원자들도 있다. 하지만 내가 심사자가 되었던 경험들과 나를 심사하셨던 분들의 조언을 빌어보면 역전의 승리를 거두는 지원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원서에 언급될 객관적인 이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사자가 궁금할 질문에 정확한 답을 찾아 간단명료하게 정보를 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부족한 것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자를 설득할 힘이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소개서에서 보이는 것은 더욱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자 스스로도 보다 설득력 있는 답을 찾게 되며, 이것은 면접에서도 당연히 드러나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보다 성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다만, 마감일자가 임박하면 귀찮기도 하고, 실제 서류보다는 상위 단계에서 떨어지기만 하는 걸 보면 자기소개서보다는 면접 준비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자꾸만 든다. 나 또한 이러한 실수들을 알면서도 반복해왔지만, 본 지원 경험과정에서 선발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자기소개서 작성에 보다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투자했고, 높은 경쟁률에도 선발될 수 있었기에 다음 지원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다.

정해진 형식은 없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민할 것을 추천한다. 나를 표현하기 위한 형식은 남들과 다를 수 있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질문의 순서를 바꾸어도 좋고, 공간이 된다면 표를 이용해도 좋고 그림을

이용해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간단명료한 것이 좋으며, 심사자가 읽기 편하도록 결론은 앞에 언급해두는 것이 좋다.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심사자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식상한 형식을 표나 그림을 통해 적당히 변화를 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심사자는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서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원자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면접에 임함을 다음 지원자들이 다시 한 번 명심한다면, 분명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사전교육

열심히 노력한 끝에, 열두 명의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선발되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본 프로그램에 선발된다고 해서 모두가 본 프로그램의 참가 목적을 달성한 것은 아니다.

경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의 중요한 혜택이기도 하면서 관문이기도 한, 사전교육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전교육은 크게 1) 영문 이력서 작성 교육과 2) 영어 발표 준비 및 전략 교육이 있는데, 학기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과정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는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교육으로, 참가자들을 위한 '혜택'이다. 물론, '국제기구' 지원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지만, 보편적인 해외 기업 및 기관 지원을 위한 이력서 작성 및 발표전략 교육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본 프로그램의 가장 유익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CV와 구별하여 Resume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발표에 있어서 발표자의 태도와 발표 자료의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는 분명 '국제기구'뿐 아니라 해외 기업 및 기관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때

문에, 다소 빠듯하게 진행되는 일정에도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사전 교육에 성심껏 참여한다면, 이 또한 기관방문 못지않게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임을, 후에 참가자들이 꼭 기억했으면 한다.

2. GTP 방콕 편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2013 Global Talent Program(GTP) 방콕 편(국제기구 편)에서, 평소 환경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유엔환경기구(UNEP: UN Environment Programme)에서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UNEP는 크게, 1) Climate Change, 2) Disasters & Conflicts, 3) Ecosystem Management, 4) Environmental Governance, 5) Harmful Substances 그리고 6) Resource Efficiency의 여섯 가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기구로서, 환경문 제들과 관련된 경제, 법, 복지, 교육 및 정치, 과학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GTP 참가자들의 발표 준비 모습.



UNEP에서 나의 발표.

특히 UNEP는 최근 유엔에서 Climate Change라는 주제를 정치/경제/보건 등의 전 영역에서 관심을 가질 것을 권장하면서 그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UNESCAP 및 WHO 등과의 협업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유엔기구라고 할 수 있겠다.

발표 주제 및 내용

이에, 발표자였던 나는, 보건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UNEP에서 관심

을 두고 있는 Climate Change 및 Ecosystem Management와 관련한 보건 이슈 한 가지를 기관 전문가 분들과 나누고자, '대기 미생물학에 관한 최근 이슈: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와 대기 중 미생물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기관에 전달된 주제는 1) 최근 생명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유해인자 규명 및 관리가 가능해진 2) 대기 중 미생물과, 지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대표적 환경 관련 질환인 알레르기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3) 환경오염물질 못지않게 이와 같은 대기 중 알레르기 유발인자(Aeroallergen)의 변화를 UNEP에서 앞으로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담아, 4) 그러한 과정에 있어 어떠한 점들이 중요할 것 인지를 짚어 보는 것이었다.

다소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구성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발표와 이후 토론과정을 통해 의도한 바대로 기관 전문가들이 본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에 잊지 못할 보람되고 귀중한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발표 기관 활동

본 기관에서는 학생 발표시간 외에도, UNEP 아/태지역 사무소 박용우 소장님의 기관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기관 전문가들과 GTP 참가자들 간의 미팅이 진행되었는데, 소개 후 쏟아지는 학생들의 수많은 질문에도 성심껏 답해주신 덕으로 기관에서 진행되는 일들과 환경기구의 비전 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환경보건 연구자로서 발표 주제에 보다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고, 기관에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기관 환경보건 전문가들을 자리에 초대해주셨던 점이 발표자로서 많이 감사하고, 꿈을 꾸는 학생으로서 보다 큰 보람과 포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기관 방문 내용

물론, UNEP 외 ILO, UNESCAP, UNESCO 혹은 ANFREL, FORUM-ASIA와 같은 NGO 방문에서도, 부족한 학생들의 발표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피드백 주심에, 프로그램 내내 기관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참가자로서 참 뿌듯했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관심을 가졌던 기관에서부터 나에게 생소했던 기관들까지, 다양한 국제기구들에서 각각 어떤 일들을 하고, 기관에서 겪는 어려운 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에 계신 분들을 통해 직접 진솔한 답들을 들을 수 있었음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넘을 수 없을 것이라 두려워하기만 했던 벽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히 허물어질 수 있었음에 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귀중한 또 하나의 인맥이 생겼다면 그것도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큰 수확이었지만, 이전에 WHO 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기구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과 관련이 있겠지 막연히 생각했던 나에게, 본 프로그램



UNEP에서 단체사진.

을 통한 다양한 국제기구 방문으로 UNEP에서도 환경과 관련한 보건문제를, ILO에서도 산업과 관련한 보건문제를, UNESCO 교육부에서도 교육과 관련한 보건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이 또 다른 큰 수확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현지 교육 및 특강

현지 기관들에서는 물론,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뿐 아니라, 기관 전문가들의 국제기구 업무와 국제기구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 소개도 향후 국제기구에서 일하고자 꿈꾸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나에게,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에 계신 참서관님들의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다. 태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선견지명이 있었으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현지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 지원’과 같이 현지 한국문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듣게 되었을 때 한국인으로서 많이 자랑스

럽고 그 동안에 있었을 수많은 노력들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현지의 여러 국제기구를 방문하면서 많은 한국 분들을 뵈 수 있었던 것도 각 개인의 노력에 못지않게 오랜 시간 동안 각 부처에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가능했던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까지도 대사관에서 들었던 여러 이야기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2013 Global Talent Program 방콕(국제기구) 편.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나는, 첫째는 나의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데에 있어 정보와 네트워크가 생겼으며, 둘째는 망설이기만 했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

첫째, 앞으로 나의 진로를 설계해 나가는 데에 있어 어떠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생겼나.

- 1) 각 국제기구에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향후 어떠한 일에 보다 주목할 계획이며, 각 기구에서 가지는 전략과 조직 구조로 어떻게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가?
- 2) 향후 주목할 이슈에 대하여 혹은 보편적으로 어떠한 인재를 선호할 것인가?
- 3) 기구들이 제공하는 여러 자리 중에 내가 목표하는 진로와 맞는 자리는 어떠한 것인가?
- 4) 향후 국제기구에서 일하기를 혹은 국제기구와 일하기를 희망했을 때, 누구를 통해 어떠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는가?

가령, 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발표했던 기간인 UNEP 외에도 WHO에서 기관 전문가들에게 평소 궁금했던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공표하지 않았지만 계획 중인 사안들과 공표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안들 등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었고, 그러면서 자연히 그곳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연이 되어 향후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된 정보와 인연으로, 앞으로 보건학자로서 국제기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정보와 네트워크 못지않게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용기와 자신감.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한 학생으로였지만, 전문가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나누고 피드백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이러한 자리에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그 꿈을 실현해보고자 이를 발판으로 더 큰 무대를 위한 단계들에 도전하겠다는 용기가 자연히 생기게 되었음에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는 바이다.

다시 말해,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고 싶은 사람’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며, 이토록 좋은 기회를 기획하고 마련해 준 기관과 학교에 정말 감사한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좋은 기회에 꼭 도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

향후 계획

사실, 다른 참가자들과 달리 박사과정에 들어서 있는 나에게는, 본 프로그램의 참가가 단순히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있지 않다. 물론, ‘국가기구’보다는 세계 각 곳의 경쟁자들과 만나야 하는 ‘국제기구’는 어떤 전문가든 한번쯤 일해보고 싶은 곳이고

본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이것이 보다 실현 가능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작게는 인턴십을 획득하는 것에서부터 단기채용이 되는 것까지 큰 발돋움이었다. 하지만 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생각들이 현실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보완을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또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음에 더 보람된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본 프로그램을 거치며 환경보존학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1) 앞으로 ‘국제기구’만이 아닌, ‘국제사회’가 주목할 기후변화(Climate Change)와 그로 인해 변화할 생태계 그리고 변화한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안게 될 건강 문제들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배워나가고자 하며, 2)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다국적 협력만이 이룰 수 있는 과제, 국가 간 기술과 정보의 격차를 ‘국제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3) 앞으로 또 한 명의 전문인으로서 국제적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언어적 소양 및 이슈에 대한 감각을 함께 길러 나가고자 계획해 본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앞으로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될 대부분의 후배들이 나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본 글을 통해 글로벌 인턴십을 따고자 하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기업과 기관에 취직하고자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번번히 실패만 맛보고 있을 몇몇 지원자들에게 나는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다국적 회사 및 기관의 인턴십을 따내는 일은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어렵다. 언어의 장벽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더 그러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선발 전략에서도 설명했듯이, 결코 언어에, 영어면접에만 집착하여 본질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말자. 지원할 회사 및 기관들 역시, 언어 외에도 경쟁자들과 견줄 만한 전문성을 증명하지 못한 인턴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 통역과 번역이 주된 업무가 아니라면, 결국 그 이상의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전문성은 학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전문성’이란 학생 각자가 자신만이 갖는 ‘경쟁력’을 의미한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직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될 수도 있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들 역시, 영어를 잘해서만 선발된 것이 아니며 참가 중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며칠 밤을 고민했고,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과제들을 그들만의 아이디어와 오랜 시간 다져진 전문성으로 해보인 것이다. 그것은 프로그램 선발과정에서의 과제였던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났을 것이고, 프로그램 진행 중 발표 준비 과정에서 분명 드러났다.

단순한 인턴십을 따기 위해 화술만 준비된 사람은 오랜 시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결국 이길 수 없다. 본 프로그램 역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더 좋을지, 발표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는 알려주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에 맞게 자료를 조직해내는 것은, 그래서 자신을 주어진 무대에서 돋보이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참가자들의 몫이다.

그래서 나는 지원자들이 프로그램에 선발되고자 하는 단기 목표가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결국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글로벌 기업과 기관에 참가자 각자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았으면 한다.

05

아시아의 국제기구 중심지를 다녀와서

최웅식 (법학과 석사과정)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내가 GTP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였다. 나는 학부 때부터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일찍이 UN 등 관심 가는 분야의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해볼 기회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몇몇 예외적인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자격에 '대학원 재학생 이상'이라는 학력 조건이 제시되어 있었던 까닭에 학부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인턴십 모집에 지원해볼 생각조차 못했다. 나는 학부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장차 대학원에 다니게 될 경우 국제기구 인턴십 수행 시 교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나 지원금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다방면으로 알아본 바 있다. 그리하여 작년에 대학원에 진학하기 이전부터 나는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여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면밀히 사전조사를 한 적 있어서 해외인턴십지원금 사업이나

GTP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나는 국제기구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경력개발센터에서 과거에 수행했던 '2010 GTP-파리 & 제네바 편'을 눈여겨보았는데, 작년 상반기 대학원 진학 후 경력개발센터 글로벌취업지원부에 연락하여 추후 국제기구 편 GTP 시행 여부에 대해 문의해본 적도 있었으나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또 GTP가 매년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주제로 일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경력개발센터에서 작년 여름방학 동안 교내에서 진행한 '글로벌역량강화캠프'에 청강 형식으로 참가하면서 일부 강연을 방청했었는데, 이를 통해 이전 GTP 참가자의 경험담도 들어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다음 기회에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GTP가 진행된다면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봄학기에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외인턴십지원금 사업을 알아보던 중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올해 GTP 방콕 편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당시에 내가 인턴십을 지원했던 기관은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본부였다. 하지만 인턴십 합격 여부도 미정인 상태인데다 기관에서 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 대신에 다른 지역에 소재한 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였다. 태국 방콕에도 OHCHR 동남아 지역사무소가 소재해 있어서 해당 방콕 지역사무소도 인턴십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주저하지 않고 GTP 방콕 편 참가자 모집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과정

나는 지원서에 내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한 이상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국제기구 인턴십에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격 요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회가 되면 제네바에 소재한 OHCHR 본부나 방콕에 소재한 동남아 지역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올해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을 준비 중이던 나의 관심사와 진로희망은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에 잘 부합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면접에서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이미 기술했던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면접관에게 영어로 전달할 기회가 있었다. 또한 내가 당시 국제기구 인턴십에 지원하고 있던 진행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사전교육

금번 GTP 방콕 편 참가자로 확정된 직후 가장 궁금했던 점은 방문 기관들이었다. 모집 공고문에는 “방콕 소재 ESCAP, UNESCO, WFP 등 국제기구 및 NGO, Chulalongkorn University 등”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을 뿐, 모든 방문 기관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OHCHR 동남아 지역사무소가 ESCAP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던 터라 해당 기관도 방문하리라고 짐작했었다.

그런데 자세한 방문 기관 목록은 사전교육 첫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로소 알 수 있었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해당 지역사무소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각자 특정 기관에 배정되어 자신이 맡은 기관에서 주어진 주제에 관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문 기관들 중에는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UN의 인권보호체계와

밀접한 활동을 벌이는 기구로 FORUM-ASIA라는 NGO가 있었다. FORUM-ASIA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표적이면서도 몇 안 되는 지역 차원의 인권단체이기 때문에 내게는 상당히 친숙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이미 국내 NGO에서 인턴 내지 자원활동가로 활동해본 경험이 있는 데다 이제는 국제기구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보고 싶었던 터라 NGO에서의 인턴십에 대해서는 당장 큰 관심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FORUM-ASIA가 나의 전공과 관심 분야와 관련이 깊은 기관인 것은 사실이었다. 또한 나는 발표 당일 해당 기관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FORUM-ASIA를 발표 기관으로 택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희망하는 기관을 2지망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기관 배정은 경력개발센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가장 적합한 FORUM-ASIA의 발표자 후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FORUM-ASIA를 자신의 1지망으로 기재한 참가자가 나뿐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1지망으로 기재했던 대로 FORUM-ASIA에서 발표하기로 배정되었다.

기관 배정 이후에 주어진 다음 과제는 배정받은 기관에서 어떤 주제로 무엇에 대해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를 구성하는 문제였다. 이는 단지 국내 사전 준비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현지에 가서 발표 전날 밤까지 끊임없이 맞닥뜨려야 했던 난제이기도 했다. 이 문제는 발표하는 대상인 청중이 과연 누구이고, 청중의 수준이 얼마만큼 되며 청중이 기대하는 바와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전에 발표 주제를 지정해주었다. 즉, 주제의 범위와 방향을 큰 틀에서는 제시해준 셈이기 때문에 발표자는 그에 따라 세부 주제를 정하면 되었다. 아예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는 기관들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발표자는 해당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을 골자로 발표 내용을 채우면 되었다.

하지만 발표 주제를 지정해주지 않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몇몇 기관들도 있었는데, FORUM-ASIA도 여기에 해당되었다. 그 결과 나는 초반부터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비록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제 선정과 범위의 적절성에 관해 은기수 교수님을 비롯한 동료 학우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평과 조언을 들으면서 발표 내용을 다듬어가긴 했으나 정작 FORUM-ASIA 현지 활동가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가장 듣고 싶어하는지를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다소 해매고 있다는 느낌을 종종 받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번 FORUM-ASIA 방문을 가능케 해 주신 현지 한국인 활동가인 김기연 FORUM-ASIA 부사무국장님에게 연락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나는 2년 전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진행된 ‘제네바 UN인권연수’에 참가한 바 있었는데, 특강 자리에서 (당시에는) 김기연 FORUM-ASIA UN 국장님을 만나본 적 있어서 인사도 드릴 겸 발표 주제에 관한 조언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끝내 회신을 받아보지 못했다. 만약 발표 기관 측에서 발표 주제를 제시해주었다더라면 기관에서 관심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대략이라도 파악하여 사전 준비 과정에서 세부 주제를 정하는 데 한결 수월했으리라 짐작된다.

사전교육 기간 동안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또다른 부분은 사전교육이 진행된 시기였다. 사전교육이 학기중에서 가장 분주한 기말고사 전후로 편성되는 바람에 학업에 전념하는 것과 동시에 이력서, 커머레터, 발표 자료 초안이나 최종본 제출 등 경력개발센터로부터 여러 차례 요구받았던 과제들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벅찬 느낌이었다.

발표 준비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에는 틀림

이 없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사전교육이 진행되었는데, 그중에는 ‘이력서 및 커버레터 작성법’ 특강이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했다. 자신이 작성해온 이력서를 강사로부터 검토받은 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세세하게 지적해준 덕분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또 강연을 하는 도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강사에게 질문할 수 있었던 덕분에 그동안 영문 이력서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의문점들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내가 배정받은 FORUM-ASIA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개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추구하는 지역인 권단체이다. 본 단체는 1991년 마닐라에 설립되었으며 지역사무국은 1994년 이래로 방콕에 위치해 있다. 현재는 아시아 16개국에 분포되어 있는 47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에 있는 여러 인권단체와 인권옹호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 내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에 8개 단체, 남아시아에 5개 단체 그리고 동북아에 3개 단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FORUM-ASIA는 국제연대활동과 정부 및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차원의 인권운동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이고 조정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규범과 기준에 따라 아시아 내 모든 개인, 집단 그리고 인민들, 특히 가난하고 차별받는 자들의 모든 인권이 완전히 존중받고 실현되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공평하고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사회를



FORUM-ASIA에서 단체사진.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FORUM-ASIA는 태국 방콕,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 FORUM-ASIA가 중점을 두고 있는 네 가지 주제는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법심사 가능성, 회사의 책무성), 3) 민주화(정치에 참여할 권리), 4) 인권옹호자 보호(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옹호자)이다. 그리고 중점을 두고 있는 5가지 프로그램 분야는 1) 국가인권기구, 2) 지역인권보호체제(ASEAN 또는 SAARC), 3) UN 인권보호체제, 4) 인권훈련 및 지도자 양성, 5) 지역 차원 및 지역 간 연대활동이다.

이중에서 FORUM-ASIA가 가장 역점을 두는 활동 중 하나는 인권옹호자 보호이다. 인권옹호자들이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경비를 지원해주는가 하면, 국가로부터 박해의 대상이 되는 인권옹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타국으로 임시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러한 연유로 인권옹호자를 현장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FORUM-

ASIA의 활동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발표 주제 및 내용

기관에서 발표 주제를 사전에 지정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택해서 발표를 준비했던 주제는 'Engaging Asian Youth in Human Rights'이었다. FORUM-ASIA가 아시아 청년들이 인권보호 및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나의 주제는 FORUM-ASIA가 아시아의 대표적인 지역인원단체로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영향력, 그리고 아시아 청년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잠재력에 비추어볼 때 발표하기에 적절한 주제라는 판단이 들었다.

발표는 우선 우리의 전반적인 인권 인식 실태를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근래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의 인권인식조사 자료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및 국제인권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한 실정이고 국민이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인권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곤 하지만, 동아시아를 실존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간주하기에는 동북아와 동남아 간에 사회·경제적인 격차와 불균형이 상당히 크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대중매체에서 아시아의 인권문제 중 특정 현안만 주목받을 뿐, 여타 다른 인권 현안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등 국민이 아시아의 인권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다른 요인도 분석했다.

본론에서는 아시아 청년들이 인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권리에 기반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접근하자는 것(human right-based approach to volunteering)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아시아 청년 인권 포럼'(Asian Youth Human Rights Forum)을 조직하자는 것이었다.

우선 첫 번째 제안인 권리에 기반하여 접근한 자원활동과 관련해 근래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사업, 인도적 지원, 선교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원활동을 하러 개발도상국 등 해외로 나가는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소개했다. 그러나 자원활동가들이 현지의 관습이나 타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자원활동의 본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자원활동가들이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의도치 않은 여러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국에 앞서서 충분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과 무엇보다도 자원활동을 시혜적인 자선이나 기부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이 자력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원활동가들 중 다수가 청년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들이 해외 자원활동을 통해 아시아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이 큰 편인데, 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FORUM-ASIA가 아시아 청년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권리에 기반한 자원활동 관련 출국 전 사전 교육·훈련 자료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FORUM-ASIA에 있는 각 회원단체에 소속된 인턴, 자원활동가, 학생 그리고 여타 청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청년 인권 포럼’(Asian Youth Human Rights Forum)을 구성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때 FORUM-ASIA가 포럼 회의를 주관하고 여타 교육활동을 벌이는 등 교류와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인권에 관심이 있는 아시아 청년들을 연결시켜주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성세대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거나 외면해온 인권 현안에 아시아 청년들이 지역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와 동남아 간의 간극을 좁히고 인권이 신장된 참된 의미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제시했다.

발표 기관 활동

FORUM-ASIA는 우리가 방문했던 여타 기관들과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났다. 우리와 동행해서 길을 안내해준 현지 안내인마저 골목길을 잘못 들어서 위치를 찾는 데 한동안 헤맸던 기관이기도 했다. 그에 반해 다른 방문기관들은 주로 큰 길가에 위치해 있고 여러 기구들이 밀집돼있는 유명한 건물에 자리잡고 있어 찾아가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비록 FORUM-ASIA 사무소가 다층건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우리가 견학했던 여타 국제기구에 비추어 보면 사무실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외관에서부터 국제기구와 NGO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방문 당일 우리를 맞이해준 사람은 Saartje Baes라는 활동가였는데, 본래 만나기로 약속했던 담당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 담당자의 사정상 본인이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었다. 사전교육 때 안내받았던 대로 방문 기관 담당자에게 나의 이력서 및 커버레터를 이미 발송했는데, 담당자를 대신하는 활동가가 본 프로그램의 취지나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숙지하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사무소에 도착한 후 우리는 위층에 있는 회의실로 이동했는데, 내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선 Saartje Baes 활동가로부터 FORUM-ASIA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들었다. 그녀는 벨기에 출신으로서 FORUM-ASIA에서 활동하기 시작한지 2~3년 정도 되었다고 본인을 소개했다. 우리가 방문했던 다른 국제기구에서처럼 회의실에는 직급이 높은 직원이 동석한 것도 아니었고 정장을 착용했던 우리와는 달리 현지 활동가들은 사무실에서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어서 격식을 차리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동료 학우들은 그녀가 발표를 하는 도중에도 질문을 던지는 등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다소 편안한 분위기였다. 다음으로는 나의 발표가 이어졌고, 발표를 마친 이후에는



FORUM-ASIA에서 기념패 전달.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우리를 맞이하고 회의실에서 우리와 시간을 함께했던 FORUM-ASIA 관계자는 그녀뿐이었다. 발표 준비를 하는 내내 내가 염두에 두고 있던 청중은 FORUM-ASIA 활동가들이었고, 발표를 마치고 나면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반응과 생각이었다. 특히 FORUM-ASIA 측에 제시했던 두 가지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하지만 질의응답 때 주로 우리 동료 학우들이 발언했으며 발표를 들었던 그녀는 나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발표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을 뿐이었다. 인권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도중 오히려 그녀는 한국에서 학교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 비록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특정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인권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유익한 측면도 있었지만, 방문기관 측에서 발표자로부터 가장 관심있게 듣고 싶은 주제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가 없어 발표 후 기관 측으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관 방문 내용

동료 학우들이 발표했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자리를 함께했던 기관 관계자가 적어도 4~5명은 되었으며 발표자의 발표를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편이었다. 동료 학우들의 발표에 대해서는 기관 측으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는 동료 학우들이 발표에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칭찬을 넘어서 발표 내용과 관련해 발표자가 간과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는 등 기탄없는 평을 내렸을 때 나는 해당 기관에서 궁극적으로 중시하고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편, 동료 학우들의 발표뿐만 아니라, 방문 기관 측에서 준비한 발표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발표 형식은 기관마다 상이했는데, 기관의 임무와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할 때보다는 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들려주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방문 기관 중 가장 흥미로운 시간을 보냈던 곳은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라는 NGO였다. ANFREL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다년간의 실무경험이 있는 여러 활동가로부터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는데, 토론할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아시아의 선거에 대한 활동가들과 벌였던 토론은 흥미진진했다. ANFREL 활동가들도 한국의 선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덕분에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현지 교육 및 특강

현지 교육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매일 저녁마다 밤늦게까지 숙소에서 있는 회의실에 모여서 다음날 발표를 맡은 동료 학우의 발표 리허설을 듣는 시간이었다. 이는 발표 예정자가 예행연습을 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은기수 교수님을 비롯해 다른 동료 학우들로부터 평을 듣고 자신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발표 예정자에게 자신의 발표 준비를 마무리짓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료 학우들도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실전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발표자의 실력뿐만 아니라, 이를 검토하고 평하는 동료 학우들의 판단력도 점차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현지 도착 바로 다음날에 발표를 맡았는데, 프로그램 일정상 모든 동료 학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비록 동료 학우들에 비해 발표를 일찍 마쳐서 기관 방문 첫날을 제외한 남은 일정 동안에는 별다른 부담감이 없어서 편하긴 했지만, 발표 전날에 동료 학우들로부터 평을 들어보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한편, 김태형 박사님의 특강도 상당히 유익했다. 나는 오랜전부터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을 가졌던 터라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재직하고 있는 한국인 초청 간담회나 강연에 여러 차례 참석한 바 있다. 하지만 김태형 박사님만큼 국제기구에서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진솔하게 들려준 경우를 보지 못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경우의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설명해준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우리가 Chulalongkorn University를 탐방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



ANFRE에서 기관 브리핑을 듣고 있는 모습.

어운 것은 교복차림을 하고 있던 대학생들이었다. 남학생들은 모두 검정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있어서 마치 고등학교에 들어선 기분이 었다. 또 졸업식 때마다 태국 국왕이 직접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격식을 상당히 중시하는 대학문화가 발달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편, 동문의 밤에는 여러 선배님을 만나뵈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동년배인 인턴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이처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연락처를 주고받기에는 동문의 밤이 가장 좋은 기회였다. 한편, 그 외에도 기관 방문 시 현직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자신을 소개할 때 등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는 수시로 있었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누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나는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이때 국내에서 넉넉히 준비해 챙겨갔던 내 명함은 매우 유용했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나는 금번 GTP와 유사한 교육연수에 참가한 경험도 있고, 그동안 해외에서 체류해본 경험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내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방콕이 국제기구들이 밀집해 있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영어만으로도 현지에서 생활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나의 편견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어를 구사하는 안내인이 없었다면 기관들을 찾아다니기가 상당히 곤란했을 것이다. 이처럼 나는 비영어권에 소재한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경우 현지어의 구사 가능 여부가 현지에서의 일상생활을 상당 부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는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팀워크

다른 동료 학우들과의 협력정신은 국내 사전교육 때부터 시작해서 현지에 가서도 저녁 때마다 진행된 리허설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발현되었다. 비록 발표 주제와 관심사는 모두 다르긴 했지만, 매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에게 평을 하며 기탄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표 예정자를 포함해서 모두 서로에게서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향후 계획

GTP를 준비하던 중 나는 올해 봄에 인턴십에 지원했던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본부로부터 하반기 인턴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얼마 전부터 제네바 현지에 와서 인턴십을 시작했다. 비록 방콕에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번 GTP에 참가했던 덕분에 나는

국제기구에 대한 시야와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또 GTP에 참가하면서 배우고 터득한 경험들은 내가 현재 인턴십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얼마전 나는 방콕에서는 연락이 안 된 김기연 FORUM-ASIA 부사무장님을 이곳 제네바에서 우연히 만나볼 기회가 있었다. 물론 나를 소개하면서 근래에 FORUM-ASIA 방콕사무소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비록 방콕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사무소에 있는 활동가들과 네트워킹할 기회는 별로 없었지만, 이번에 방콕사무소를 방문했던 것을 기반으로 제네바에서 나의 네트워크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취업과 관련해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졸업을 앞두고 있고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기회를 적극 이용해보기를 권장하고 싶다.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될 경우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볼 흔치 않는 기회가 올텐데, 출국할 때 자신의 명함을 반드시 챙겨갈 것을 권하고 싶다. 특별한 소속이 없는 전업 대학(원)생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함은 하나 제작할 것을 추천한다.

06

GTP 방콕 편에 다녀와서

강아름 (언어학부 10학번)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방콕 GTP의 홍보 포스터를 우연히 게시판에서 보게 되었다. 평소 게시판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포스터만 유독 눈에 들어왔을까? 항상 관심있게 생각하던 ‘NGO’, 이 세 글자가 크게 쓰여 있어 그랬던 것 같다. 포스터를 보고 바로 지원할 마음을 굳힌 것은 아니었다. 외국에 나가는 일은 얻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예컨대 그때 국내의 다른 일정과 겹치지는 않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준비할 것은 많은지 등을 모두 체크해보아야 한다. 나를 제일 망설이게 했던 것은 계절학기 첫 주와 GTP 기간이 겹친다는 사실이었다. 여러 날을 고민하고, 결국 계절학기 첫 주를 빠지고라도 GTP에 지원해보자는 결심이 섰다. 합격하면 교수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할 생각이었다.

지원과정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는 공지를 받게 됐다. 면접 날까지 방콕에 위치한 NGO에 대해 리서치를 하고,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했다. 면접은 100% 영어로 진행됐고, 내가 GTP에 참여해야만 하는 이유, 포부를 묻는 질문부터 미래 내 꿈에 대한 질문까지 광범위하게 던져졌다. 면접 때는 추가질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사전교육

합격자들은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처음으로 다른 합격자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듣고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학과, 이름도 알게 되고 지원 동기도 공유한다. 나는 전공 수업과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겹쳐 전공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사전교육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된다. 모두 경력개발센터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통해서 얻는 바도 크기 때문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추천한다. 나는 교육을 모두 가지는 못해서 그 점이 아쉽다. 여러 가지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는데, 발표 스킬, 발표 주제 선정, 레쥬메 작성 등이 그 예이다. 사전교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력서에 대한 것이다. 외국인 강사께서 오셔서 영어 레쥬메 쓰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 국내용 이력서와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전교육이 없었으면 레쥬메 작성이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자기가 발표하고 싶은 기관 1, 2, 3순위를 정하라는 메일을 받게 된다. 이를 수합하여 GTP 측에서 각자가 맡아 발표할 기관을 통보한다. 본인은 2위에 적은 기관인 World Bank에서 발표를 하게 됐

다. 보통 1인당 1기관에서 발표를 한다.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2명이 1기관에서 발표하는 팀이 2팀이 선정되었다. 발표 주제는 기관에서 보통 정해주지만, 자유 주제를 주기도 한다. World Bank에서는 주제를 미리 선정해서 보내줬다. “How to improv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ailand”, “How Thailand can learn from Korea’s experience in moving towards high income country”의 두 가지 주제였고, 우리 팀은 후자를 선택했다.

발표 기관 배정부부터 방콕으로의 출국 전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 넉넉한 한 달이 아니고 촉박하게 한 달이다. 주제를 받았으면 바로 개요를 짜고 발표 내용, 발표 PPT를 구상해야 한다. 더구나, 그 기간이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리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 만일 팀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회의를 무리해서라도 자주 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만 좋은 개요가 나올 수 있다.

출국에 임박해서, 경력개발센터에서 총 세 번의 리허설을 거치게 된다. 정석대로 하면, 첫 번째 리허설 전까지 PPT가 완성되어야 하며, 발표 내용이 숙지되어야 한다. 나는 리허설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발표 피드백을 받을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리허설 날짜를 실제 발표 날짜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리허설 때는 오픈 피드백을 받게 된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그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하므로 각오해야 한다. 첫날 리허설은 모두가 난관을 겪었지만 점차 두 번째, 세 번째 리허설을 거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출국 직전까지 PPT 완성은 계속된다. 교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발표 내용을 다듬는다. 출국 직전에는 PPT 외에도 준비할 것이 많다. 한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 내내 정장을 입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벌의 정장이 필요하다. 나는 정장 세 벌을 준비했다. 옷가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

도 많이 챙겨야 한다. 또한 태국 화폐로 환전해야 하는데, 나는 달러만 가지고 가서 조금 더 비싸게 돈을 낸 면이 없지 않다. 달러를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태국 돈으로 환전하는 것이 더 좋다. 또 필수적으로 준비할 것이 노트와 필기도구 그리고 노트북이다. 가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필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비상약, 슬리퍼, 선글라스, 선크림 등을 준비한다.

드디어 비행기를 탄다. 오후 비행기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제 시간에 도착해서 담소를 나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까지는 5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비행기 안에서는 다들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비행기에서 내려서는 우리가 대여한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룸메이트는 도착해서 방 키를 받으면서 알려줬다. 짐을 풀고, 따뜻한 물로 씻으니 그제서야 방콕에 왔다는 것이 실감났다. 하지만 무작정 신나는 감정은 아니었다. 첫날 발표자들은 우선 내일 있을 발표에 대비한 리허설을 하느라,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발표를 계속 퇴고하느라 바빴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나와 정준 오빠가 발표하게 된 기관은 World Bank이다. World Bank는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어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용자나 각종 프로젝트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방콕에 위치한 World Bank 지부는 특히 아태지역의 문제를 관할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아태지역에 특수화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개발에 힘쓰고 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전술했듯이, World Bank에서는 주제를 미리 선정해서 보내주었고, 그 중에서 “How Thailand can learn from Korea’s experience in moving towards high income country”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과 태국의 비교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한국의 과거사를 리서치하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 경과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발표 기관 활동

발표 당일, World Bank로 가는 내내 발표 내용을 숙지했다. World Bank는 다른 UN 기관과는 달리, 숙소에서 많이 떨어진 곳에 있었다. 기관에서 두 분이 참석해주신 가운데 World Bank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듣고 우리 팀의 발표가 이어졌다. 피드백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나서 간단한 사내 투어가 마련되어 있었다. World Bank의 사옥은 전 부서가 문이 없이 열린 오피스였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그만큼 서로 의사소통하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World Bank에서 발표하고 있는 박정준 선배.



World Bank에서 발표하고 있는 나.

기관 방문 내용

다른 기관들은 시간 순서에 따라 적어 보았다. 방콕에 도착한 밤,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다. 드디어 프로그램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첫날 방문할 기관은 ILO와 FORUM-ASIA였다. 발표자들은 계속해서 스크립트와 PPT를 체크했다. ILO는 숙소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약 10분만에 도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건물은 UN ESCAP 건물이라고 하는데, ILO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들이 모여 있었다. 들어갈 때 소지품 검사를 거치고, 여권을 제출한다. 그러면 당사에서 출입증을 발권해준다. 이 출입



UN 건물을 처음 보고 놀란 최웅식 선배.



UN 건물 앞에서 단체사진.

증을 찍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ILO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세 분의 한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이 여러 명 참여했고, 그 중의 한 분인 Alex Aziz께서 ILO와 ILO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셨다. 본인도 인턴으로 시작해서 지금 정식으로 일하게 됐다고 하니, 우리 학생들의 눈도 반짝일 수밖에 없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로서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다. ILO에서 발표를 담당한 해원 언니는 한국 청년 노조와 ILO와의 협력을 제안하는 발표를 했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ILO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혜원 선배.

마지막으로 감사패 증정과 사진 촬영을 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했다. 점심 식사는 그 건물 2층에 위치한 카페테리아였다. 뷔페식이었고, 다양한 먹거리가 있었다. 태국 현지 음식에서부터 서양식 음식, 각종 디저트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는 FORUM-ASIA로 향했다. 이곳은 다소 찾아가기 어려웠다. 골목골목을 지난 후, 그래도 차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야 했다. 어렵게 찾은 그곳은 외관은 허름했지만 엄청난 일을 하는 곳임을 느낌으로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은 지원이 부족한, 그러나 사람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FORUM-ASIA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보호를 통해 궁극적인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벨기에 인으로서 FORUM-ASIA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Sarah 한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먼저 Sarah에게 간단히 기관 설명을 들은 후 웅식 오빠의 발표가 있었다. 아시아에서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의 특강.

다음에는, 방콕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을 찾았다. 대사관에 오기 전에 우연히 미얀마 대사관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허름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건물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구부터 굉장히 화려하고 큰 건물이 우리 눈 앞에 나타났다. 여기가 한국대사관이라고 한다. 나도 모르게 뿌듯해졌다. 대사관은 위치해 있는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힘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태국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회의실에 착석한 후, 참서관님께 여러 말씀을 청해 들었다. 특히 태국과 우리나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며, 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태국에 많은 수의 한국 교포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다음 날, 먼저 향한 곳은 ANFREL이었다. ANFREL은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를 지향하는 NGO이다. 태국뿐만 아니라 전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었다. 이 기관은 유일하게 태국인들만 참석했고, 우리를 너무나 환대해 주셨다. 다과뿐만 아니라 각종 팸플릿과 티셔츠를 넣은 에코백 하나를 통째로 주셨다. 먼저 ANFREL 측



UN 회의장.

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나눈 후, 헤린이의 발표가 이어졌다. 트위터 도입과 대한민국의 선거 · 투표 양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발표였다. 질문 세션에서 그분들도 우리나라 이번 대선의 높은 투표율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날의 일정은 조금 빠듯했다. ANFREL에서 신속히 UNESCAP 건물로 이동했다. 마찬가지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여권을 맡긴 후 입장할 수 있었다.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시기 위해서인지 크게 환영해주시면서 올라가기 전부터 여러 설명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셨다. 감사했다. UNESCAP은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을 의미한다. 먼저 Environment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Transport 부서로 넘어가기로 했다. Environment 부서에 도착했더니 이미 직원분들께서 와 계셨다. 기관과 부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가적으로 지금 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환경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프랑스인이 직접 CD까지 나누어주며 상세히 설명해줬다. 그 다음에는 주연 언니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 다음에는 Transport 부서로 열른 이동했다. 기관 설명은 짧게 듣고

바로 헤림이의 발표가 있었다. 철도의 효율성에 대한 발표였는데, 참석하신 전문가분께 큰 호응을 얻었다.

그 다음에는 UNESCAP 소속의 한 태국 여성분께서 건물을 간단히 투어해주셨다. 몇층에 무엇



WHO 기관 소개.

이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몰랐던 여러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회의장이다.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곳이었다. 아직 회의가 시작되지 않아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신기했다. 엄숙한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동문 선배이신 김태형 박사님의 강연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강연은 조금 특별했는데, 가식 없이 정말 순도 100% 진실한 강연이었기 때문이다. UN의 허와 실에 대해 낱알이 말씀해 주셨다. 포장없이 정말 경험하신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다. 이밖에 레쥬메 준비, 인터뷰 대비 등 UN에 입성하기 위한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다음 날, World Bank에서의 발표를 마치고 WHO로 이동했다. WHO는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설립한 UN 전문기구이다. WHO도 기관에서 두 분이 참석해주셨다. 인도 분께서 기관 발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현우의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에는 전반적인 인턴십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청해 들을 수 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IOM으로 향했다. IOM은 모든 기관을 통틀어 우리를 제일 환대해준 기관이다. 국제이주기구인 IOM은 유럽 내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설립돼 직업, 교육, 자유 등 다양한 목적 때문에 증가하는



IOM의 기관 소개.

이주민을 지원하는 국제 조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 기관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셨고, 세부적인 프로젝트 설명도 무려 세 분이나 나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해주셨다. 직접 일에 뛰어들어 활동하고 계신 분들께 기관에 대해 진정으로 배운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싶었다. IOM이라는 기관이 있는 지도 몰랐는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또 직접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욱 와닿았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이 아쉽다.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를 많이 신경써 주셨지만, IOM은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었다. 그 다음에 창섭 오빠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UNESCO로 이동했다. UNESCO의 기관장님이 우리나라 분이셔서 너무나 놀라웠다. 여러 말씀을 청해 들을 수 있었다. UNESCO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자리에 가실 수 있었는지까지 말씀해 주셨다. 한국인 인턴도 세 명이나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다. 이 분들은 막 인턴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생생한 인턴제도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한 분은 하버드대학생이었다. 다른 한 분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지원제도를 꼭 활용하라며 팁을 주셨다. 일본 여성분께서 UNESCO 기관에 대한 자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주셔서 그것을 경청한 후에, 우리 모두는 기관장님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혜진 언니와 현정이가 준비한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에는 WFP와 UNEP이 예정되어 있었다. 마지막까지 수고한 한결이와 승은 언니가 프로그램의 마지막 발표를 점찍는 순간이었다. 먼저 WFP로 향했다. WFP는 세계식량계획을 의미하며, 세계식량안보와 극빈국의 농업개발 문제, 식량개발에 관한 정책 토의, 식량원조 모금, 개발도상국의 식량자급정책에 관한 지원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WFP는 이름대로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해주셨다. 기관 소개를 듣고 한결이의 “Food for New Village” 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UNEP으로 이동했다. UNEP에는 한국인 분들이 많았고, 또 그분들께서 다른 직원 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UNEP은 국제연합 환경계획으로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주관하고 있다. 우리 GTP 프로그램의 마지막 발표자인 승은 언니가 환경에 의한 알레르기,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UNEP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한국인 선배께서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질문을 해주셨다.

현지 교육 및 특강

현지에서는 매일 밤, 다음 날 있을 발표를 리허설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했다. 실전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 보완할 점, 좋았던 점 등을 서로 돌아가면서 말했다. 이러한 피드백 세션을 통해 다음 날 발표자들은 더욱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동문의 밤에서
하동우 회장님의 환영사.



서울대학교 동문의 밤에서의
네트워킹.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Chulalongkorn University 탐방이 기억에 남는다. Chulalongkorn University는 태국의 서울대와 같은 곳이다. 공립에, 역사도 오래되었고, 무엇보다 태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재들이 모두 모인 대학이다. 특히 Chulalongkorn University 공과대학은 아시아 25순위에 들만큼 유명하다. 우리를 위해서 Chulalongkorn University 측에서 직접 오셔서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영상을 보여주셨다. 다음 학기에 여기로 교환학

생으로 오는 창섭 오빠도 있는만큼 다들 경청했다. 우리를 위해 다과도 마련해 주시고 목마르지 말라고 계속해서 물을 따라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 설명을 들은 후에는 Chulalongkorn University를 도보로 걸으면서 견학하며 사진을 찍었다.

또한 특별히 마련되어 있던 서울대학교 동문의 밤도 기억에 남는다. 방콕에 거주하시는 서울대학교 동문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청해 듣는 자리였다. 방콕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부인과 함께 나오신 선배님도 있었고 홀로 오신 선배님도 있었다. 맛있는 뷔페를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진로 상담도 하고 살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듣기도 했다. 처음에는 동문 회장님, 총무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했다. 우리 테이블에서는 현재 UN에서 김태형 박사님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동문 선배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우리 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유학하셨다고 하는데 유학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어쩌면 NGO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했던 GTP였다. 하지만 기관 조사와 발표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세계 문제에 대해 훨씬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순발력, 발표력도 기를 수 있었던 기회였다. 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학교의 감사한 지원금을 받아 가는 프로그램인 만큼, 일정이 빡빡했다. 그러나 그러했기에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정보와 더불어 순발력이나 인내력, 체력

등을 함께 습득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학우들이 GTP와 같은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팀워크

발표는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GTP는 팀워크를 기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함께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만들면서 돈독한 팀워크가 형성된다. GTP를 통해 다시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향후 계획

GTP를 통해서 얻은 인턴십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관에 대한 인턴을 지원하고, 실무 경험을 쌓고자 한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글로벌 인턴십도 한국에서 리쿠르팅하는 인턴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내가 이 분야, 이 기관에서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 기여하고 싶은 지가 인턴십 성공 전략의 열쇠가 될 것이다.

07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준 GTP

박현우 (동물생명공학부 11학번)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나는 마이스누 공지사항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편인데, 3학년이 되면서 학교생활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해보고자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도 자주 들어갔다. 특히 이번 방학 때는 여름 계절학기를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다른 활동이나 인턴십 등을 해보고자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에 GTP 방콕 편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다. 방학 동안 예정되어 있던 한 달 간의 전공실습 때문에 방학기간을 통째로 반납해야 하는 기업체나 회사 인턴십은 시간대가 맞지 않았고, 휴학생 위주로 장기간 모집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한달 이하의 짧은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1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해외도 다녀올 수 있으면서 여러 국제기구를 방문하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기회까지 주어지는 GTP를 보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다.

우선 전공분야가 동물생명공학이기 때문에 국내 축산업계나 제약회사 쪽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외는 달리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NGO를 방문하는 GTP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영어 실력 배양 및 시야 넓히기”였다. 평소 발표하는 것을 좋아해서 기회만 되면 항상 발표를 하려고 했었고, 영어 스피킹을 위해 학원을 다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GTP를 통해 영어 발표를, 그것도 이름 있는 국제기구에 직접 가서 하게 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또한 방문을 통해 기관에 계시는 관계자 분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고 오면 나중에 인턴십이나 해외로 나가게 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과정

선발과정은 크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서류접수를 통해 자신의 경력사항, 수상 내역, 비교과 활동, 지원하게 된 계기, GTP 참가자로서 내가 갖춘 여러 능력과 자격 및 흥미 분야, 나의 미래 진로 계획 등을 적어 서류전형에서 평가했다.

서류전형 통과자들을 대상으로 영어면접을 진행했는데, 참가자들끼리 얘기해보니까 면접 시 질문은 다 달랐던 것 같다. 면접관은 담당교수님과 프로그램 담당자 두 분이 계셨고, 2:1 영어면접으로 진행되었다. 나의 경우는 GTP에 지원하게 된 계기, 앞으로 나의 직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GTP 참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국제기관과 글로벌 기업의 역할 및 목표 차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서 좀 당황하고 제대로 대답을 못해서 면접장을 나오자마자 당연히 탈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일 바로 합격 메일이 와서 좀 놀랐다. 면접인 만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갔었는데, 이러한 준비성과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자기소개서나 지원서에 경력사항을 적는 칸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

는데, 아직 학부 3학년이고 미필이며 학교나 동아리 활동 이외에 별다른 활동을 한 것이 없어서 경력으로 무엇을 적어야 할지 힘들었다. 학기 중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실험실 인턴 활동을 적고, 연구 주제와 연구 결과만을 간략히 제시했다. 수상 경력의 경우는 학과 내에서 했던 학생 발표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을 기재했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인문사회계열보다 대외 활동, 공모전, 인턴 등의 경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있는 만큼만 기재하고 자신이 왜 선정되어야 하는지 그 참가 목표와 의의, 앞으로의 계획, 비전 등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다.

사전교육

내용

사전교육은 학기 중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되었는데, 한 번은 KOTRA에서 오신 분의 방콕 특강을 들었고, 한 번은 언어교육원 강사님께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킬 및 슬라이드 구성에 대해 배웠다. 비록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기기는 하지만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방콕에 대해 알고 가니, 현지 가이드의 설명도 더 이해가 쉽게 되고 방문의 목적도 명확해진 것 같았다. 프레젠테이션 교육 역시 유익했는데, 영어 발표 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접속어나 문장, 발음 교정 및 트레이닝, 슬라이드 구성 및 PPT 작성법에 대해서도 전문성 있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또한 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들었다. 기존에 써놨던 것을 지우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정도로 국문과는 형식이 다른 부분이 꽤 많아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참가자별로 발표 기관과 발표 주제가 확정된 이후에는 담당 기관에 제출할 자신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발표 PPT 초안

및 내용 구성을 가지고 프로그램 담당 교수님과 10~15분 정도 내용 보완 및 수정 과정을 거쳤다.

발표 준비

참가자들은 총 10개의 기관과 각 기관에서 제시한 발표 주제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적어서 제출했고, 참가자들의 우선순위가 최대한 반영되어 각자의 발표 기관이 선정되었다. 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류독감(H7N9)에 대한 발표를 맡았는데 사회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분야와는 거리가 멀어서, 전공 학과에 동물면역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도움을 부탁드렸다. 다행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학부생으로서 정말 좋은 기회를 얻었다며 발표의 큰 틀을 잡아주시고, 궁금한 점과 필요한 논문 및 자료 등의 제공을 아끼지 않으셨다. 덕분에 막막했던 발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고, 시간 낭비 없이 현재 면역학 및 백신, 약물의 현황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어서 발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발표를 위한 자료 조사와 PPT 제작은 시험기간에 조금씩 짬을 내어 진행했고, 발표 리허설은 중강 이후 출국 전에 진행했다. 중강 후 바로 그 다음주가 출국 일정이어서 일주일 정도밖에 기간이 남지 않아 좀 촉박했는데, 일주일에 세 번이나 발표 리허설을 하며 교수님과 참가자들이 서로서로 내용과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추 수 있었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보건기구는 보건 및 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설립된 UN 산하의 전문기구로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설립 목표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태평양·동남아시아·중동·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의 6개 지역사무소가 있다. 우리가 방문한 방콕 WHO는 전 세계에 설치된 국가별 사무소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49년 8월 17일에 65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WHO의 국내 활동으로는 정규협력사업과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별지원사업 등이 있고 기술자문 및 보건요원 기술 훈련, 연구 및 세미나와 워크숍, 보건 분야에의 자금지원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WHO 측에서 제시한 주제는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Why Non communicable disease is important and what should we do?”, “Between Hypertension and Diabetes, which one you should tackle first and why?”의 세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평소 동물면역학과 동물유래 질병에 관심이 있던 터라, 조류독감의 한 종류인 H7N9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H7N9의 위험성에 대해 제시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백신 및 백신 적용 전략과 약물에 대해 발표를 구성했으나,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하던 5월 중순과 발표기간인 6월

말 사이에 H7N9이 점차 쇠퇴 단계로 접어드는 바람에 결국 출국 일주일 전에 결론을 뒤집었다. H7N9은 큰 위협이 아니지만, 인플루엔자의 변종과 내성, 재출현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발표의 주제로 설정했다.

우선 1918년에 발생한 Spanish Flu(H1N1)에서부터 시작하여 조류독감의 역사를 설명한 후, 최근에 발생한 조류독감인 H5N1, H1N1과의 비교를 통해 H7N9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했고, H5N1의 잠복기 및 변종 출현으로 인해 발생한 높은 치사율 등을 감안했을 때 백신과 약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체적인 백신 전략으로는 백신 보조제의 사용, 포위접종, 집단면역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후 이를 조류독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 약물인 타미플루와 릴렌자의 현황, 특허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실시 전략까지 설명했다.

발표 기관 활동

방문한 WHO는 방콕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무소로, Director는 인도에서 오신 Dr. Quazi Monir Islam이었다. Ministry of Health 건물에 있어서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웅장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큰 규모는 아니었고 근무자는 5~6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

미팅장에는 Director 분과 한국인 직원 한 분께서 참여하셨고, 처음에 간단하게 사무실을 둘러본 후 30분가량 WHO의 역할과 최근의 이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발표 직전이라 긴장하고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주변에 앉아 있던 동료들이 응원의 눈빛을 보내 주어 힘을 내 발표할 수 있었다.

15분 정도 H7N9을 주제로 발표를 무사히 마친 후, Director 분의 몇 가



UN 본부 앞에서 은기수 교수님과 함께.

지 질문에 대답하며 나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들었는데 너무 전문가이셔서 깜짝 놀랐다.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어떤 점을 놓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해주셨다. 자세한 내용까지 질문하셔서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발표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보건정책적 접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특허권 강제실시와 백신 전략에 대한 실질적 실행과정에 대해서도 WHO의 입장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기관 방문 내용

방콕 현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5일 동안 매일 2개의 기관씩 총 10개의 기관을 방문했다. 첫날은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및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와, 아시아 지역의 인권 등의 주제를 다루는 FORUM-ASIA라는 NGO 단체를 방문했다. ILO는 UN의 전문기구 중 하나로, 이곳에서 발표를 맡은 참가

자는 우리나라의 청년유니온과 ILO의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현재 ILO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초에 정식 기구로 승인된 청년유니온과 ILO가 협력한다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한국의 실업 및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FORUM-ASIA에서 발표를 맡은 참가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는 내용인 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FORUM-ASIA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인 만큼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둘째 날에는 아시아의 선거 감시기구인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아시아 자유선거네트워크)과 UNESCAP(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를 방문했다. ANFREL에 계신 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셨고, 마지막에 인사할 때는 “이제 태국에 친구가 생겼으니 앞으로 자주 연락하며 서로의 의견과 관심사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셨다. 여기에서의 발표 주제는 Election과 Entertainment 및 SNS였는데, 최근 들어 유명 정치인이나 정치 현상에 대해 이를 희화화하고 딱딱한 정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잘 설명해주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한 활발한 투표 독려 활동을 통해 젊은 층의 투표율, 정치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을 알려주었다. ANFREL 직원들 모두 한국의 사례를 보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라며 감탄했고, 정치 참여의 증가가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라며 아무 의견 없이 투표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이후에 방문한 UNESCAP에서는 환경국과 교통국 두 군데에서 발표를 진행했는데, 두 곳 모두 한국 분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환경국에서는 국제 개발의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발전 및 환경오염 등의 내용을



WHO 담당자이신 Dr. Quazi Monir Islam 및 은기수 교수님과 함께.

구체적인 이론과 가설을 통해 제시했고, 교통국에서는 railway를 통한 개발의 장점과 그 효과에 대해 여러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완성도 높은 발표를 했다.

셋째 날에는 장기개발자금의 공여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The World Bank를 다녀온 후 내가 발표한 기관인 WHO에 갔다. The World Bank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분석해가며 trade와 education을 통한 태국의 발전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2명의 참가자가 팀을 이루어 발표했다. 태국의 시장 개방 필요성, FTA 등의 무역 측면에서 설명한 후 교육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WHO에서는 내가 H7N9이라는 주제로 과거의 다른 바이러스들과 비교한 후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이것이 큰 위험은 아니지만, 앞으로 발생할 조류독감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drug, vaccine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WHO에서 GTP 참가자 단체사진.

넷째 날에는 이주민의 직업·교육·자유 등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IOM(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간 후 UNESCO(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에 갔다. IOM에서도 ANFREL처럼 우리를 크게 환영해주셨는데, 담당자 분들께서 무려 5개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주실 만큼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했다. 발표 주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내는 국가와 받는 국가 모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UNESCO의 경우 우리 쪽에서 준비하고 관심을 가진 분야는 한국의 pop culture 사례를 분석하며 UNESCO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제시하여 관심을 촉구하는 팀 발표였는데, 태국 UNESCO에는 문화 분야가 아닌 교육 분야의 담당자 분들만 계셔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좀 아쉬웠다.

마지막 날에는 UN 산하의 식량 원조 기구인 WFP(World Food Programme, 세계 식량 계획)와, UN의 환경 관련 활동의 종합 관리와 국제 협력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UNEP(UN Environmental Programme, 유엔 환경계획)에 방문했다. WFP는 방문 기관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으

로, 내 전공 분야와도 연관성이 있었고 여러 영상을 비롯한 발표자료를 통해 WFP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다. 우리의 발표 주제는 새마을사업 등의 국내 사례를 Forestation과 연관시켜, 현재 WFP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Forestation 사업을 접목시키는 것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GMO와 같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아직까지는 기아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답변이었다. WFP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들 중 대부분이 위험성을 이유로 GMO의 지원은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UNEP에서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참가자가 Allergy를 주제로 공공보건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했고, UNEP와 WHO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HELI(Health and Environment Linkages Initiative)에 대한 현황과 사업 제안을 하는 내용이었다.

현지교육 및 특강

한국대사관

첫날 ILO와 FORUM-ASIA를 방문한 후 태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방문했다. 외국에 있는 대사관의 크기와 규모가 그 나라에서의 위상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는데, 한국대사관의 규모와 웅장함으로 보아 태국에서 한국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전통 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건물 앞 정원에 태극기 모양으로 조경을 해놓은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태극기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눈에 띄었고, 양쪽 벽면에는 역대 태국 대사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후 권영섭, 신성철 참사관님과 2시간에 가까운 토론을 진행했다. 태국대사관의 구조와 그 역할, 태국에서 한국의 위상, 앞으로 대사관이 해나가야 할 임무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다. 대사관은 크게 정부 업무, 문화 및 교육 업무, 경제 업무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중 인상적인 것은 현재 태국에 8개 정도의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 태국어학과가 없는 것을 감안했을 때 태국에서 한국의 입지를 느낄 수 있었고, 미래에는 한국어교육학과가 개설되어 태국인 한국어교사 배출을 통해 더욱 더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UNESCAP 특강

둘째 날 UNESCAP에서의 발표를 마친 후에 UN 회의장 및 건물을 둘러본 후, Economic Affairs Officer로 근무하시고 계신 김태형 박사님의 특강을 들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는데, UN이라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방문 전에 UN은 그저 전 세계의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국제 기구라는 추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직접 방문해 발표를 하고 설명을 들으며 그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면, 이 특강을 통해 UN이라는 기관이 아닌 그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담당하는 업무의 스케일도 크고 직원 복지, 보수도 좋아서 놀랐다. 정년도 62세로 한국보다 길고 자녀 교육비 등의 지원, 보수 및 연금 수령액 등에 대해 실질적인 액수까지 알려주셔서 좋았다. 그 외에 국제기구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 수십 가지를 짚어가며 설명해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Presentation 리허설

현지에서 매일 일정을 마친 후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호텔 세미나실에 모여 발표 리허설을 진행했다. 다음 날 발표를 하게 될 두 사람이 최종 리

허설을 하고, 그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며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었는데, 아마 이 리허설이 없었다면 모든 발표의 질이 절반으로 똑 떨어졌을 것이다. 하룻밤밖에 남지 않은 만큼 모두들 거침없이 코멘트를 해 주었는데, 모든 발표자가 이를 잘 반영해 다음 날 훨씬 높은 수준의 발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Chulalongkorn University 탐방

태국 최고 명문인 Chulalongkorn University 탐방은 학교에 대한 소개 영상 및 설명을 들은 후 짧은 캠퍼스 투어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담당 교수님인 은기수 교수님이 매년 이곳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런지 학교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일일 가이드로 30분 정도의 학교 투어를 직접 이끌어주셨다. Chulalongkorn University의 졸업식에는 왕족이 직접 참여해 한 명 한 명 졸업장을 수여해주시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를 보여주기도 하듯 졸업식 한 달 전부터 준비가 한창이었다. 중·고등학교처럼 교복을 입고 다녀서 놀랐고, 학교를 대표하는 색이 핑크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참가자 중 나의 룸메이트 형이 다음 학기에 이곳으로 교환학생을 온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역대 두 번째로 오는 것이라고 한다.

서울대학교에도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구경을 오는데, 나도 지인들의 부탁으로 서너 번 학교 구경을 시켜준 적이 있다. 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 관심 있는 학과의 건물 위주로 동선을 짜고 구경시켜주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보여주는 곳이 바로 학생회관과 중앙도서관이다. 학생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수많은 동아리 방을 보여주며 대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좋고, 서점이나 문구점, 약국 등의 시설을 통해 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보여주기 좋기 때문이다. 중앙 도서관 안쪽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 규모와 소장자료, 열람실 정보 등에 대해 알려주면 “역시 서울대”라며 감탄하곤 했다. Chulalongkorn University의 탐방과 비교했을 때, Chulalongkorn University 역시 문구점, 서점 등의 편의시설이 많이 위치해 있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둘러보는 못했지만, 강당 같은 곳에서 요가와 체육활동 등을 하고 있었고 벽면 여기저기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했다.

SNU Alumni Night

이 프로그램 역시 가장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Centara 호텔에서 진행되었는데, 24층에 위치한 최고급 뷔페에서 열 분가량의 선배님들과 함께 근사한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다. 참가 학생 중 나 혼자만 농생대생이었는데, 선배님들 중 농생대 졸업생이 두 분이나 있었고 우리 과 91학번 선배님도 계셔서 정말 반갑게 인사드렸다. 과거 축산학과에서 동물자원학과로, 현재 동물생명공학과로 바뀐 우리과는 한 학년에 3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이고 재학생들도 그런 과가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과 선배님을 만나 더욱 기뻐던 것 같다. 선배님께서는 전공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셨는데, 회계법인에서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탐앤탐스 커피 동남아시아지역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셨다. 또 다른 농대 선배님은 농경제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국제 농업발전 및 정책에 관한 업무를 맡고 계셨다. 그 외 UN이나 여러 국제기구의 중요한 위치에서 근무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선배님들을 보며, 앞으로 나의 목표를 더 넓게 확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Closing Dinner

모두의 발표가 끝난 금요일 저녁은 시내에 위치한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먹었다. 가이드 분께서 설명해주셨는데 여기는 전부 살아 있는 신선한 해산물로 조리하기 때문에 훨씬 맛있고 고급 음식점이라고 한다. 신선한 왕새우와 크랩을 정말 부족함 없이 먹었고, 모두들 발표에 대한 부담 없이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끄럽게 떠들며 만찬을 즐겼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밥을 다 먹을 때쯤 우리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끝말잇기를 하고 게임을 하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너무 신나서 흥분한 나머지 원탁 테이블을 돌리다가 접시를 깨버렸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태국에 잠시 휴양차 놀러 온 성시경이 등장해서 모두들 놀랐는데, 이 모든 것이 그 동영상에 찍힌 것이다. 성시경은 한국인들을 보더니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따로 밥을 먹었고, 몇 명은 음식점을 나오면서 사인도 받아왔다. 너무 까칠하게 대해서 좀 실망하기는 했지만, 위 영상을 보고 실컷 웃으며 평생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될 것 같다.

이 날 저녁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태국 전통요리는 물론 일식, 한식, 중식, 양식까지 먹고 뷔페도 자주 가서 바쁜 일정도 힘을 내어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Bangkok City Tour

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방콕 시티 투어와 방콕 근교의 아유타야 관광이었다. 이날만큼은 정장을 벗어 던지고 편한 복장으로 모두들 태국을 즐기다가 올 수 있었다. 아침 일곱 시부터 모여서 바쁜 관광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방콕의 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차오프라야 강에서 배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트레스를 확 풀었다.

이후 엄청난 스케일과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차오프라야 강 위에서 찍은 왕궁 근처의 사진.



왕궁 내부

을 관광하고, 방콕 근교의 아유타야로 이동하여 3개의 사원을 구경하고 왔다. 사람도 많고 왕궁 전체가 도금으로 뒤덮여 있어서 그런지 반사되는 열기로 인해 엄청나게 뜨거웠지만 태국 국왕의 위엄과 그 힘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사실 가만히 있어도 땀으로 뒤덮일 정도로 너무 더워서, 아유타야로 이동할 때만 해도 무슨 사원을 3개씩이나 구경하나 싶어서 그냥 시원한 곳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는데, 사원을 직접 방문하자마자 이런 생각은 싹 사라졌다.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3가지 사원 모두 색다른 고유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다. 웅장한 사원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벽돌의 색, 푸르른 나무와 잔디의 초록색, 하얀 뭉게구름이 떠 있는 새파란 하늘이 어우러져서 정말 아무렇게나 찍어도 사진의 색감이 정말 좋았다. 엄청난 크기의 불상과 사원 건물을 보며 불교의 나라 태국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아유타야 관광 이후에 다시 방콕으로 돌아와서 태국 전통 마사지를 받았다. 이런 전문 마사지 솜은 처음이라서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시원하고 뭉쳐 있던 것들이 싹 사라진 느낌이었다. 마사지

를 받고 나서 일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이번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느낀 가장 큰 교훈은 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전공 분야만 공부하다 보니 관련된 분야 이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국제기구 방문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방문했던 10개 기관에서의 토론 및 정보 교류 하나하나가 전부 강의를 듣는 느낌이었고, 관련 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아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고급 지식을 습득하고 온 것 같아 정말 기쁘다. 축산업과 생명공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경영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전공자들 뿐만 아니라 국제대학원, 보건대학원, 법학대학원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참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방문하는 기관의 목록을 처음 받았을 때 내가 알던 국제기구는 UN, WHO, WFP, 유네스코 등이 전부였지만, 방문 이후에 UN의 구조와 그 산하기구의 역할, 아시아 지역의 여러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NGO 등의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다. 나와는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세계를 느끼고 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또 다른 교훈은 바로 동기부여다. 농생대는 특히 다른 분야와 겹치는 내

용이 적어서 대부분 하나의 전공만을 살려 관련 업계로 비교적 쉽게 진출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느낌이 강했다. 복수전공이나 인턴십, 대외활동 등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영어공부 역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영어는 기본이고 제2, 제3외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 외에 이를 접목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를 찾아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다. 덕분에 나도 앞으로 GTP의 기억을 떠올리며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GTP를 통해 내 발표 능력과 영어 실력 배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무대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했었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 작년부터 발표 및 프레젠테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참가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파워포인트도 배우고 슬라이드 제작 및 기획에 관련된 책도 읽으며 이론을 쌓은 것이 최근에 있었던 여러 발표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발표 경험이 GTP 참가자로 선발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참가 이후에 배운 프레젠테이션 교육과 발표가 다시 나에게 귀중한 경험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 것 같다. 영어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더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팀워크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모였을 때만 해도 서로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어서 어색하고 분위기도 조용했지만, 사전교육을 받고 발표 리허설을 하며 조금씩 말을 트기 시작했다. 처음에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 말을 붙이고 하는 것이 좀 어려웠는데, 다행히 모두들 활발하고 잘 맞아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출발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인사만 하고 발표 진행 상황 정도만

묻는 사이였는데, 방콕 도착 후 하루이틀 만에 서로 다들 친해져서 시끄럽게 떠들며 분위기가 훨씬 더 편해졌던 것 같다.

팀워크 또한 대단했다. 오전부터 뻘뻘하게 진행된 일정 때문에 모두들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발표할 사람들을 위해 매일 밤 진행된 발표 리허설에 모두 참석하여 큰 도움을 주었다. 자신의 발표가 끝났음에도 놀러 가지 않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었다. 회의실 사용이 끝난 이후에도 발표자의 방에 직접 찾아가 서로서로 피드백을 해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거침없이 지적해 준 덕분에 발표자들이 밤새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다면 발표의 질이 훨씬 낮았을 것 같다. 다행히 모두들 큰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고 기관 관계자분들 역시 매우 만족해 했다. ILO와 IOM에서는 매년 서울대 학생들을 인턴으로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고, UNESCAP의 한국분들도 발표의 구성과 내용, 영어 실력 모두에 감탄하며 극찬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좋은 결과 모두 서로의 팀워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토론만 한 것은 아니다. 방콕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때쯤 여유가 생겨서, 좋은 기회 덕분에 태국까지 왔는데 발표만 하고 갈 수는 없지 않냐며 잠자는 시간까지 반납하고 다같이 밤에 놀러 나가서 새벽에 들어 오기도 했다. 야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먹기도 하고 맥주도 한 잔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다 온 일주일이었던 것 같다.

향후 계획

우선 올해 12월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남은 4학년 생활을 하며 진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주전공인 축산업과 부전공인 소비자학을 결합하여 ‘축산과 소비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커리어를 쌓을 계획이다.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동물의 영양 및 질병 분야인데, 축



일정 마지막 날, 출국 직전 저녁을 먹은 일식 뷔페 집에서.

산 전공생 중 소비자학을 부전공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이번 GTP를 통해 WHO에서 조류독감에 대해 발표했던 경험은 내게 귀중한 재산이 될 것이고, 방학 때 예정되어 있는 실습을 통해 축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어공부를 꾸준히 하여 해외로의 진출 및 국제시장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고, 국제농업정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원식 선배님을 비롯하여 방문 기관의 담당자 분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을 받고자 한다.

귀국 후 명함을 받은 선배님들 몇 분께 감사의 메일을 드렸는데, 선배님들 모두 재능 있는 후배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대견스럽다는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국제기구에 더 많이 진출하여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발표의 큰 틀을 잡아주셨던 전공 교수님 역시 학부생으로서 귀한 경험을 해서 축하한다며 앞으로 내 진로 설계에 있어서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해주셨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GTP 방콕 편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글로벌 인턴십 자리의 획득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ILO와 IOM에서 매년 인턴을 받겠다는 좋은 결과를 얻어올 수 있었다. 아직 인턴십을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인턴십 자리 획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도, 능력도, 스펙도 아닌, '정보'인 것 같다. 항상 자신이 원하는 자리의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로 원한다면 담당자와의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GTP를 통해 여러 국제기관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목표를 달성하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인턴십 자리 획득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카페나 사이트 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경력개발센터의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움되는 것들만 선별되어 올라오면서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 모집 공고와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피드백, GTP와 같은 경력개발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진행되므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일 GTP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방학 중에 진행되지만 사전 준비과정이 학기 중에 밀도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외국에 놀러 가겠다는 생각으로 지원하면 절대로 안 된다. 다른 바쁜 일정 없이 GTP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고, 학기 중 시험기간에도 조금씩 짬을 내어 프로그램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방문 목적과 GTP의 진행 목적이 맞지 않으면 귀국 이후 프로그램 보고서를 작성하

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힘들기 때문에, GTP 지원서에도 나와 있듯이 자신의 진로 계획에 있어서 GTP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고 지원했으면 한다.

물론 해외로 가는 만큼 어느 정도 즐기고 놀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 어떨 때는 밥 먹는 시간이 30분도 안 될 만큼 일정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참가자들과 잘 어울리면서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GTP는 자신의 여러 분야에 도움을 주는, 정말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GTP 방콕 편을 통해 나의 진로계획에 필요한 경력 개발, 앞으로 공부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화, 방문 기관과 담당자에게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부딪히며 시야를 넓히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창, 외국 문화를 경험하며 즐길 수 있는 기회, 잊지 못할 추억 이 모두를 가져다 주었다.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준 GTP

배한결 (독어독문학과 11학번)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2013 GTP 방콕 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my SNU 사이트를 통해서였다. 평소에 OIA와 my SNU 그리고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는 최대한 자주 체크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올라오는지 눈여겨보려고 노력했던 덕분에 GTP 공고가 게시된 당일 운 좋게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지사항에서 GTP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읽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나의 미래를 그려볼 때면, 상상했던 다양한 미래의 모습 중에는 항상 외교관과 국제기구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일주일간 방콕의 다양한 국제기구를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제기구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나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다.

또한 국제기구에서 직접 발표를 해보기도 하고 현지의 직원들로부터 직접 인턴십 기회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 경험을 언제 다시 해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다. 나아가 방콕으로 출국하기 전에는 프레젠테이션 발표 기술과 Resume와 Cover Letter 작성법 등까지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 가까운 듯 생소한 태국의 방콕이라니.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보이며 최선을 다해 지원해볼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자, 놓치면 후회할 기회인 동시에, 나를 한 단계 성장시켜줄 경험임이 분명했다.

지원과정

꼭 가보고 말겠다는 의지가 생기자, 가장 첫 관문인 지원서 역시 내가 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가신청서의 첫 부분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 외에 학점이나 예상 졸업시기, 외국어 능력과 이전의 근무/인턴 경험 그리고 대외활동 등을 간단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Statement of Purpose를 서술해야 했는데, 워싱턴 편에 가셨던 선배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지원자의 1차 서류 전형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가르는 데 핵심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부분은 세 개의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2013 하계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편에 지원을 하는가?’를 묻는 다소 일반적인 질문이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자질, 기술, 관심이나 나를 최적의 참가자로 만들어주는가? 내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물었으며, 마지막으로 ‘나의 커리어 목표와, 그것을 이루는데 있어서 GTP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서술하기를 원하는 질문이 주어졌다.

각 질문을 답하는 데 있어서 나의 강점, 장점들과 국제기구에 대한 오랜 관심,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정 등을 적절히 엮어 스토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또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그 동안 어떤 활동들을 통

해 그런 관심을 보이고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세한 예시들을 많이 포함시키고자 했다. 또한 앞으로 나의 미래와 커리어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며, 나에게 이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경험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했다. 이때 절박함이 묻어 나오게끔 했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것 역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의 일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지원 마감 날짜까지 몇 일 내내 고치고 더하며 작성했던 지원서와는 달리 면접의 경우는 막상 서류전형에 합격했으니 며칠 뒤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도 딱히 무엇을 준비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주어진 정보는 단지 영어 면접이라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거창하게 무엇을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고 다만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일찍 도착하여 내가 작성했던 지원서를 훑어보며 스스로에게 행운을 빌 뿐이었다. 면접은 그리 길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박희영 선생님과 담당 교수님이신 은기수 교수님께서 맞아주셨다.

나의 경우는 세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자기 소개를 해보라는 질문과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의 커리어에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냐는 처음 두 개의 질문은 지원서와 비슷하여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 시리아 crisis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UN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지막 질문은 정말 당황스러웠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물자 지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의 대답을 했지만 현재 시리아 군이 어떤 UN 관계자들도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순간 나는 정말 당황하여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잠시만 시간을 주실 수 있냐고 여쭙본 뒤 최대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UN Security Council이 경

제 제재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시리아에도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와 비슷하게 경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했고, 대답과 함께 내 면접시간은 끝이 났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던 그 짧은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 마지막 질문 때문에 솔직히 내가 불으리라는 확신을 하지 못했는데, 그날 저녁 바로 합격을 했다는 메일을 받고 뿔 뜻이 기뻐다. 어떻게든 대답을 하려는 성의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사전교육

합격자 발표 며칠 후에 첫 사전교육이 있었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참가자들 간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GTP의 의의와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그 후 약 두 시간에 걸쳐 오랜 기간 방콕에서 근무를 하신 KOTRA의 하승범 서비스산업 유치 팀장님께 우리가 가게 될 태국 방콕의 역사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태국과 방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방콕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다음 교육 시간, PPT 제작과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관해서는 언어교육원의 봉민아 선생님께서 약 3시간에 걸친 강의를 해주셨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 달여 과정의 수업을 3시간 만에 몰아서 하려다 보니 발표 스킬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소화하고 체화하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PT 제작에 관한 팁들은 이후 본격적으로 발표를 준비하며 PPT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용했다. 특히 화려한 배경이나 불필요한 데코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관중들이 발표를 듣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끗한 하얀색 배경을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게 되었다.

국립외교원의 외국어 강사로 계신 Danton Ford 선생님의 Cover Letter와 Resume 작성법에 관한 강의는 약 3~4주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전교육 중에서 가장 유용한 수업이었다. 아직 Cover Letter는 둘째치고 제대로 된 Resume 하나도 작성해 본 적 없던 나로서는 선생님이 주신 팁 하나하나가 새로운 정보이자 큰 도움이었다. 수업 전에 대략 작성해 본 Resume를 가져와서 한 명 한 명씩 개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좋았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도 좋다고 하시면서 이메일을 가르쳐주셔서, 실제로 방문기관에 Cover Letter와 Resume를 보내기 이전에 선생님께 보냈더니, 며칠 뒤 기꺼이 몇몇 군데 수정하셔서 답장을 보내주신 덕분에 부족한 나의 경험들을 잘 살리고 포장하여 좋은 Resume를 작성할 수 있었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내가 발표를 하게 되었던 기관은 UN World Food Programme의 아시아 지역 사무소였다. WFP는 인도주의적 국제기구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구로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약 8억 7만 명의 인구를 위해 가난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기구였다. WFP는 전쟁이나 자연 재해로 인해 발생한 비상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운반하기도 하고, 비상 상황이 종료된 곳이나 단지 가난 그 자체로 인해 배고픔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 가난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식량기구라고 해서, 정말 단순히 음식만을 전달하는 기관으로 생각했던 것은 큰 오산이었다. WFP가 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School

Meals Project, Food for Assets, Purchase for Progress 등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은 전부 비상 상황이 아닌 곳에서 ‘가난’이라는 식량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School Meals Project는 모두에게 무작정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몫과 가족들의 몫을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당장의 배고픔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인상 깊었다. Food for Assets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각 지역의 기후와 지형에 맞춘 효과적인 작업 방법들을 주민에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고, Purchase for Progress는 외부에서 음식을 일방적으로 ‘퍼다주기’보다는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그 지역의 시장에서 직접 식량을 구입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달하는 활동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기아 문제에 접근하는 줄은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WFP에 대해 알아가며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처음에 WFP 측으로부터 배정받은 나의 발표 주제는 “현재 세계 기아 인구가 8억 7천만 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기아 극복 문제에 나설 수 있겠는가”였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기도 하고 아직 WFP는 물론 한국 정부나 민간기업들이 이런 일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기에 일단은 전반적인 조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WFP 사이트에서 각종 보고서, 활동 일지, 뉴스와 통계 수치 등을 살펴보고 WFP에 대한 조사를 하며 이 기구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자 노력했다.

또 한국 정부의 국제 협력 사업을 담당하며 해외 원조에 관한 사항들

을 맡고 있는 KOICA 사이트에 들어가 해외 지원 국가나 규모, 국제기구와의 연계 등 다양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조사를 하던 중 한국과 WFP가 파트너십을 맺어 함께 진행하고 있는 Food For New Village라는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방향으로 나의 주제를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 물론, 최종적으로 발표 주제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몇 번에 걸친 리허설을 하면서였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교수님과 다른 참가자들에게 들은 조언을 참고하여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Food For New Village에 착안하여,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게 되었다.

KOICA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개발도상국이 1970~8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새마을 운동 사업’을 전수받기 위해 한국에 끊임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발표 주제를 구체화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이미 그런 러브콜에 부응하여 몇몇의 개도국에서 이미 새마을 사업의 비법을 전수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WFP와는 별도의 파트너십을 맺어 앞서 언급한 Food for New Village라는 이름 아래 함께 협력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WFP의 활동보다 차별화되고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과 1970~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조사를 더 실시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당시 새마을 운동과 함께 ‘산림 녹화 사업’을 실시했다는 사실이었다. 전 국토에 나무를 심는 운동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경제성장으로 인한 지나친 산림 파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연구를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다시 KOICA 사이트를 조사해보자, 실제 우리나라가 이미 내몽고와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이미 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산림 강



WFP에서 발표하는 나의 모습.



발표가 끝난 뒤 감사패 전달.

국'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의 발표 주제는 여기에 착안하여 정해졌다. 한국이 새마을 운동과 산림화를 함께 실시해 효과적으로 기아를 퇴치할 수 있었으니, 현재 새마을 운동만을 본딴 Food For New Village 프로그램에 산림화 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또한 모든 국제기구들이 21세기 최대 지구적 과제로 꼽는 기후 변화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사막화된 지역을 산림화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효과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세계식량기구 역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기후 변화의 문제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음을 사전 조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기에, 나의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기후 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현지 교육 및 특강

발표 준비로 인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 하루 뻑뻑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일정에 사실 현지 교육이 항상 마냥 기대되고 달가울 리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 흔히 들을 수 있는 정보들과는 차별화된 정보들을 귀땀해주

시고 몸소 현장에서 근무하며 접하고 느낀 것들을 직접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기에, 항상 기대 이상의 감명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 강연은 둘째 날 UNESAP 방문 이후 UN 기구에서 김태형 박사님께서 해주신 특강이었다. UN 기구에서 국제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정말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솔직한 이야기들로 들려주셨다. 평소 궁



UN 건물 앞 만국기.

금했던 질문에 대해서도 재미있

고 거침 없는 솔직함으로 답변해 주셔서 국제기구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기를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더욱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강연이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등 기타 활동

‘태국의 서울대’인 Chulalongkorn University 방문은 참 신선했다.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 태국의 대학교와 대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방콕의 대학생들은 교복을 입는다는 점과 태국인들은 각 요일을 상징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방문했던 Chulalongkorn University의 경우 화요일에 해당하는 색인 분홍색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 내의 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시설들이 분홍색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왓 프라마하탓의
불상 머리 앞에서.

한 태국 왕의 권위와 왕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졸업식 때 왕에게 직접 졸업장을 받으며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영광스러워한다는 정보는 흥미로웠다.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만나 볼 수 있었던 동문의 밤은 가장 즐거웠던 밤 중에 하나였다. 여태껏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규모의 뷔페에서의 식사가 다음날 발표를 앞두고 있던 나의 긴장감마저 날려버릴 만큼 행복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UN 기구에서 근무하시는 국제공무원,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나와 계시는 외교관 분들, 그리고 내가 자주 가는 탐앤탐스 카페의 아시아 지역 사장님까지, 정말 우리 선배님들이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하며 대단한 활약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 역시 언젠가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함과 동시에, 나는 훗날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기관 방문을 제외한 기타 활동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마지막 날의 관광은 빠뜨릴 수 없는 하이라이트였다. 기관 발표 날들 중에서 마지막 날에



에메랄드 사원 앞에서.

발표하게 된 덕분에 끝까지 마음 편한 날 하루 없었는데, 마침내 모든 걱정이 후련하게 해결되어서 그런지 기관 방문만큼이나 촌촌하고 빈틈없는 하루 일정마저도 하나하나 즐겁고 행복했다. 수상카를 탄 이후 방문했던 네 개의 사원 중에서 왓 프라마하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역사적으로 태국은 버마의 침략을 끊임없이 당해왔고, 번번히 버마에게 패배한 쓰라린 아픔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불상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데 하나 같이 머리가 잘려나간 거대한 유적지의 모습 앞에서 뭘지 모를 태국인들의 울분이 느껴지는 듯했다. 왓 프라마하타이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보리수 나무 뿌리에 감겨진 듯한 거대한 불상의 머리이다. 이 머리 역시 다른 불상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버마의 자행으로 인해 잘려져 나간 것이었는데, 그 주위에 나무가 뿌리를 박고 자라남으로써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했다. 혹시 태국에 또 올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와보고 싶은 곳이었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GTP 발표 준비를 하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4일 밤을 연속으로 새워왔을 만큼, 무지하게 힘들었던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한 마디는 “It’s worth it!”일 것이다. 2013년 여름 방학을 GTP 방콕 편과 함께 맞이한 것은 둘도 없는 행운이자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얘기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소중한 값진 경험이었다. 방콕에서의 하루하루는 정말 너무나도 알차서, 일주일이 몇 달처럼 느껴졌을 정도였다. 또한 방콕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딱히 팀으로 준비할 일이 없었던 어색하던 대부분의 참가자들과도 방콕에서 함께한 일주일 만에 많은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기도 했다. 2013 Global Talent Program 방콕 편을 다녀오게 된 것은, 가히 ‘신의 한 수’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잘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한다.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싶었던 목적이 기관 방문이었던 만큼 분명히 내 대학생활의 큰 획을 그을 사건이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한 국제기구의 관계자들,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언제 또 해볼지 모르는 (대학생으로서는 아마 다시는 또 해보지 못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특히 아주 작은 규모의 수업에서도 발표를 하기만 하면 지나치게 긴장하고 떨었던 ‘발표 올렁증’이 있는 나에게 이 프로그램은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 명의 대학생에게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만 보였던 발표를 한 번 하고 나니, 수업시간의 발표에 대해서는 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비록 1주일이긴 하지만 하루 종일 영어로 각종 설명을 들은 것은 한동안 숨겨져 있었던 영어에 대한 자신감 역시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는 계기였다. 무엇보다도 국제기구

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국제적인 환경, 특히 국제기구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는 그 사실을 더욱 절감하고 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기 시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내가 그곳에서 만난 분들을 기억하는 것만큼 그분들도 나를 기억할 리는 없음을 알지만,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발표를 훌륭하게 수행해준 덕분에 우리는 모든 기관에서 서울대 방문자들로서는 인상 깊게 기억될 것임은 확신할 수 있다. 훗날 이번 여름에 만나뵈었던 분들, 혹은 방문했던 기관에 다시 인연이 닿게 된다면 자랑스럽게 당시 참가했던 학생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방콕에서 뵈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사전 교육을 해주셨던 국립외교원의 Danton Ford 선생님과도 인연을 지속하고 싶어 돌아와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를 기억해 주심은 물론 오히려 연락을 드린 것에 대해 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시작이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GTP가 선물한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한다면 다른 참가자들과의 인연도 빠질 수 없다. 참가자 한 명 한 명에게서 너무나도 배울 점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과 1주일밖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국제대학원에 다니며 상당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양한 곳에서 인턴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본 언니, 오빠들은 물론이고 나와 한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언니들도 얼마나 다 대단해 보이던지. 달리 자유시간이 주어질 여유조차 없을 만큼 열심히 돌아다녔던 기관들에서만큼이나 그런 참가자들에게서도 많이 배운 것 같다.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나누었던 대화들은 피곤한 일정들을 기꺼이 소화해낼 수 있게 해준 엔돌핀이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소하지만 큰 기쁨이었다.



기관 방문 사이 사이 소소한 즐거움.



마지막 날 사원에서.

향후 계획

앞서 많은 점들을 나열했지만, GTP가 나에게 가져다 준 가장 가치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바로 나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번 발표가 결정적인 매개가 되어, WFP 한국 사무소에서 무급 인턴으로(국제기구의 원칙상 대학원생 이상만을 인턴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영어 정식 명칭은 Volunteer라고 한다.) 일을 해보게 된 것이다. 방콕 사무소에서 하게 될 발표를 준비하며 나는 WFP 한국 사무소를 몇 차례 방문했었다. WFP 한국 사무소는 특히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상당한 이점이 있었다. 사무소의 작은 규모와 발표 준비 초반 나의 잦은 방문으로 인해 소장님을 비롯한 사무소의 직원 분들에게서는 내가 방콕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져 주셨다.

내가 방콕에서 돌아오자 소장님께서서는 나의 PPT 자료를 받아보길 원하셨고, 발표 내용에 관한 설명과 함께 PPT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렸다. 그랬더니 소장님께서서는 내가 정한 주제(소장님과 상담을 할 때만 해도 발표

준비를 막 시작하던 때라서, 당시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과 내가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주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시면서 사무소로 초대를 해주셨다. 그리하여 모든 발표가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방문한 한국 사무소에서 나는 소장님과 함께 PPT를 보며 간단하게 나의 발표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드리게 되었다. 놀라웠던 것은 마침 지금 소장님께서 정부에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시는데, 그 보고서가 내



이동하는 버스에서.

발표 주제였던 Food For New Village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인턴을 해 볼 생각은 없냐”는 소장님의 질문에 당연히 해 보고 싶다는 내 대답이 튀어나온 데 걸린 시간은 2초도 안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날부터 바로 소장님께 Cover Letter와 Resume를 보내 형식과 절차에 맞게 인턴 지원을 하게 되었다. GTP 사전교육에서 배운 대로 맞춰서 Cover Letter와 Resume를 작성해 보내자 그 다음 주에 면접과 필기 시험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직원 분께 받았다. 이미 소장님을 여러 번 뵈기도 했고, 소장님께서도 내가 WFP에 관심이 많다는 것과 최근 발표를 하며 많은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면접은 비교적 무난하고 화기애애하게 30분간 진행되었다. 물론 면접을 함께 보셨던 직원 분과 소장님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나에게 던져 주셔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면접이 끝난 직후에는 약 한 시간 동안 필기시험을 보았는데, WFP와 Hunger에 관한 서술형 두 문제가 나왔다.

첫 번째 질문은 처음에 나에게 주어졌던 발표 주제와 상당히 비슷한 것

이었다. 기아 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WFP는 전적으로 기부금에 의존해 활동하는데, 여기에 있어 한국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 한국 기업, 한국의 민간에게 각각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이었다. 발표 주제를 구체화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상당히 했기에, 그 생각을 조금 더 다듬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써내려 갔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는 인류가 빈곤을 퇴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의 의견과 그 의견에 대한 이유를 묻고, 그렇다면 그것에 있어 WFP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 질문의 경우도 발표 준비를 위해 WFP 홈페이지에서 수많은 자료들을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나만의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적절하게 뒷받침하여 답을 작성하는 데 주력했다.

결과적으로 약 사흘 정도 뒤 무급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고, 당장 다음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나는 소장님을 도와 Food For New Village에 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는데, 그토록 열심히 조사하고 약 한 달여간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주제에 관한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된다. 솔직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은 실제로 인턴ships을 구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참여해 잊지 못할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었는데, 운이 좋았던 덕분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 이번 인턴ships을 통해서는 또 어떤 다른 문이 열리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GTP에 참여함으로써 그러지 않았으면 시도해보지 않았을 도전을 해보고, 오지 않았을 기회를 잡아서 비교적 어린 나이에 국제 기구에서 —그 일이 크던 작던, 아주 사소한 일이던 — 무엇인가 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GTP이다.



아유타야 유적지에서.

끝마치며

혹시나 GTP 참가를 망설이고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이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최선을 다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하여 참가자로 선발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GTP에 참가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보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방콕에서의 GTP를 되돌아보며

서혜린 (정치학과 10학번)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매 학기가 끝난 이후 방학 때마다 이런 저런 대외활동에 참가하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4학년 1학기도 끝이 보이는 시기가 되어 있었다. 4학년이라 이제는 하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할 수는 없다는 부담감과 함께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대학생에게만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리라는 초조함이 더해져 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였다. 비록 대학원 진학에서부터 유학까지 졸업 후에도 공부를 계속할 것이라는 인생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고 이는 충분한 고민을 하고 나서 결심한 것이었지만, 주위에서 취업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나 이미 취직이 결정된 선배 언니, 오빠들을 보고 있자면 내가 과연 이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곤 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괜히 경력개발센터의 게시판을 기웃거리기를 약 6개월, 우연히도 평소에 보지 않고 있던 GTP 관련 게시판에 뜬 공고를 보

게 되었고 국제기구라는 단어를 본 순간 이번 방학은 이거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국제기구에 들어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영국에서든 공부를 계속하면서 국제적인 연구 기관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GTP는 이를 위한 사전 연습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했다. 그 이전에 GTP에 대한 정보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마침 이번 GTP의 주제가 내 관심 분야 및 미래의 계획과 우연히도 부합하였고, 4학년 중반이라는 시기도 마침 적절했기 때문에 한치의 고민 없이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부끄럽게도 나는 방콕에 도착한 이후에도 GTP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지금까지의 모든 GTP에서도 다른 국가의 국제기구를 방문했을 것이라고 당연시하고 있었을 정도였다. 그만큼 GTP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적지 않은 분량의 지원서를 공들여 쓸 만큼 이번 GTP라는 것은 나에게 크나큰 기회로 다가왔던 것이었다.

지원과정

GTP 지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지금까지의 여타 다른 대외활동 지원서를 작성하던 것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가장 좋았던 점은 형식과 분량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외활동 지원서의 경우 각 항목마다 쓸 수 있는 내용의 분량을 제한해 두기 때문에 내용을 정해서 쓰는 것보다도 그 분량을 맞추는 수 있도록 내용을 줄이는 것이 더 큰 과제였었다. 하지만 GTP 지원서의 경우에는 항목당 글자 수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GTP 활동에 적합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쓸 수 있었다. 특히나 작년 한미학술회의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워싱턴에서 월드뱅크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방문했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 느꼈던 점 등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말이 많았던 나로서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원서를 제출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쓰다 보니 문법이나 스펠링 오류 등 실수를 범한 점이 없진 않지만 말이다.

사전교육

글을 쓰는 것이든 발표를 하는 것이든 둘 다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니었고 남보다 크게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전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크게 부족한 점이 없다는 일종의 자만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던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킬,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 등은 나에게 새로 배우고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여러 차례의 사전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은 이번 GTP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기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자신한다. 모든 사전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 몇 차례의 수업에 결석하고 당시 하고 있던 인턴십 근무도 빠지곤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얻은 것이 많았던 실용적인 강의들이었다. 또한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강의를 가능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도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발표 내용과 발표 기관에서 제시한 주제가 일치하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주제를 고치고 PPT를 만들다 보니 발표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 되어 버렸고, 내가 그곳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내 주장을 설명하는 장문의 메일을 쓰고, 교수님과의 개인적인 통화 및 면담으로 주제를 조정해 결국 만족할 만한 발표를 할 수 있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교수님께 내 주제 자체가 수업에서 들은 다른 교수님의 견해를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듣는 바람에 혼자 속앓이를 많이 했다. 또한 GTP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원래 하고 싶었던 주제로 발표를 했다면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ANFREL 사람들의 관심 영역과 더 부합하는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 100%를 모두 보여준 발표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 준비 과정이 더 효율적이고 GTP 멤버 개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분명히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내가 발표를 했던 기관인 ANFREL은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의 약자로, 아직까지 민주적인 선거가 정착되지 못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확립하고 민주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선거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행해지는지를 감시 및 그 절차적 과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비정부, 비영리 단체이다.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는 주로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었으나 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치, 선거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주로 이들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의 활동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선거 과정에서 부정 선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함 호송 차량의 보호와 개표 과정 감시 등의 활동을 펼쳤고, 민주 선거에 대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 역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권력자들의 정권 유지에 대한 욕심으로 인한 부정 선거 및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적인 선거 개입이나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접 그 국가의 풀뿌리에서부터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매우 적극적인 NGO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민주주의적인 선거 제도와 선거 관행이 어느 정도 확립된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형태의 단체로, 굳이 비슷한 활동을 꼽자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이나 이번의 국정원 선거 부정 개입에 대항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발표의 주제이자 내가 작성한 PPT의 제목이었던 ‘Poli-life and Entertainment’은 각각 politics와 life, election과 entertainment를 합친 말로 ‘삶으로서의 정치와 놀이로서의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정치적 투쟁의 역사와 권력자들에 대항하는 수단이었던 선거가 이제는 삶의 일부로 완전히 정착되었고, 특히나 요즘에 들어서는 선거가 마치 국민이 참여하는 일종의 이벤트이자 축제로까지 여겨지는 유희적 정치참여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에 국민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주요 통로이던 정당의 기능과 영향력이 약화되는 한편 인터넷과 SNS의 과급력이 강해지면서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을 통한 직접적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들은 심각한 이슈나 사회적 문제를 희화화시키는 유희적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FREL에서 나의 발표.

가장 단적인 예로는 현재 활발한 정치적 토론과 실제 촛불시위 등의 조직 및 참여를 주도하는 여러 인터넷 동호회들을 들 수 있는데, 다음 아고라나 디씨인사이드 등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인 이러한 동호회들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가 전혀 아니며 취미 생활, 즉 유흥적 활동을 위한 단체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특정 정치적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하버마스가 주장한 정치적 공론장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유흥적 활동과 정치적 활동, 사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이슈가 동화되어 나타나는 유흥적 정치참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인터넷 동호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참여는 심각한 사안을 회화화시킨 정치 패러디 및 풍자물의 범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팬클럽의 등장 등 일반 국민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작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 선거 참여의 매우 독특한 형태인 ‘투표 인증샷’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크게 유행했다. 이는 투표를 하고 나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업로드한 후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행동

이었다. 이러한 투표 인증샷은 선거와 전혀 관계 없는 여러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으로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다. 레스토랑, 게임 업체, 동물원, 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체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릴 경우에 할인이나 경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경쟁하듯 여기저기에 게재했고, 이에 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재미있게 참여하는 이벤트처럼 여겨지기까지 했다. 이처럼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SNS를 통해 자신의 시민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행동이 되자 젊은이들은 즐겁고 유희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실제로 20대 투표율은 바로 직전의 총선과 대선에 비해서 유례 없는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오늘날의 정치 참여가 유희적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경쟁이 전혀 없거나, 정치적인 이슈를 지나치게 가볍게 다룬다는 주장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날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필사적인 투쟁의 형태였던 정치에서 한국은 이제 벗어났고,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현재 한국의 젊은이들은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를 유희적인 분위기로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일상적인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 정치 자체가 대한민국의 생활이자 문화의 일부로 완전히 융화되었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형태의 유희적 정치 참여는 비록 나타나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주로 2, 30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이처럼 유희적 정치를 즐기는 모습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희적 정치라는 한국의 특징은 아직 민주적 정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여러 국가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폭력적인 일부 세력의 정치적 참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정치



발표 후 ANFREL의
직원들과 함께.

를 확립하고자 하는 여러 아시아의 국가들이라면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유희적인 정치 참여의 양상을 주목하고 이를 검토해 보는 것이 충분히 유용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발표 기관 활동

내가 발표를 하는 기관인 ANFREL은 찾아가면서부터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UN 건물과는 달리 우선 찾아가는 길이 너무 멀고 주변의 건물들도 낡아 있었으며, 그 전날 방문했던 다른 NGO에서 우리를 크게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ANFREL도 그런 분위기라면 어쩌하나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ANFREL이 위치한 건물은 매우 작고 시설 역시 좋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 기관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은 다른 어떤 으리으리한 기구들보다도 정성이 들어 있었다.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책자뿐 아니라 발간하고 있는 책들, 에코 백, 심지어는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다양한 간식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다른 기

관에서와는 달리 ANFREL의 직원보다도 내가 먼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었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었으며, 적절한 피드백까지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었다. 이어진 ANFREL의 발표에서는 솔직히 나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ANFREL의 활동 현황 및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덕분에 다른 GTP 팀원들 역시도 ANFREL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배우고 또 느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기관 방문 내용

이번 GTP 프로그램의 주제가 국제기구였던 만큼, 방콕에 있는 다양한 UN 산하 기구들과 월드뱅크 등 다양한 유명 국제기구들을 많이 방문할 수 있어서 새로 보고 배운 점이 많았던 너무나도 유익한 기회였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은 매우 잠깐이었지만 UN의 국제회의를 방청했던 것과, 작년에 방문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월드뱅크를 방콕에서 다시 방문한 것이었다.

UN 회의장의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국회 방청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모든 자리에 세계 각 국가의 대표들이 앉게 된다는 점이 괜히 나를 가슴 뛰게 했고, 위쪽에 위치한 UN의 6개 공용어별로 마련된 동시 통역실이 내가 지금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국제적인 회의에 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들게 했다. 아직 회의가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회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장소에 내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크게 기념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월드뱅크의 경우에는 내가 너무도 발표를 하고 싶은 장소이기도 했고,



UN 회의 방청.

그곳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고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셨던 직원 분이 롤 모델로 삼을 만큼 너무나도 멋진 여성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월드뱅크의 역할,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직업에 대해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딱 부러지게 대답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

현지 교육 및 특강

방콕에서 GTP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는 딱히 교육이나 특강이라고 부를 만한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각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고, UNESCAP에서의 특강 역시 강의라기보다는 박사님께서 UN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UN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 주신 것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UNESCAP에서 이루어졌던 특강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은 비록 내가 예상하고 있던 것과는 매우 달랐지만 박사님의 개인적인 삶의 행적뿐 아니라 UN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알



동문의 밤

수 없을 만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아직까지도 기억에 크게 남아 있다. 공식적인 발표 및 방문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러한 방식으로 높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게는 큰 기회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처럼 그러한 분들 각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해 주신다면 GTP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방콕에 계시던 우리 학교의 동문 선배들을 만났던 저녁 만찬 때에는 너무도 근사한 곳으로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한 마음이었다. 이전에 만나 뵈었던 분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쉽게 만나 뵈 수 없는 분들을 만나서 인턴십이나 취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부, 인생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

다. 선배님들께서 어디서 발표했는지를 물어보셔서 ANFREL이라고 대답했더니 ANFREL을 아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셔서 그 점이 안타까웠고 슬프기까지 했지만, 이것 또한 일종의 교훈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내가 이후 유학을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목표인 런던 정경대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치학과 선배와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기에 나에게는 더 뜻 깊은 시간이었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작년 한미학생회의를 하면서 대사관이나 국제기구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상과 로망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의 방콕 GTP는 국제기구에서의 현실을 깨닫게 되는 기회였다. 방콕에 UN 건물 이 위치해 있다 보니 아무래도 UN 산하 기구를 많이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놀랐던 점은 이들 기구의 높은 자리에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한국 분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국제기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 었다.

외교부에서든 아니면 다른 관련 부서에서든 간에 정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애초부터 국제기구의 높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한 분들이 많았고, 인턴이나 일반 직원 등 아예 밑에서부터 일을 시작해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쌓아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분들은 없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지위와 권

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기준에 가지고 있던 다른 형태의 지위와 권력 및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국제기구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무조건 능력 본위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관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일 것이다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들었던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인턴 선발 과정 및 채용 과정의 공평성에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고, 오랫동안 정부 고관이었던 분이 장을 맡고 있었던 부서는 권위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다. 이러한 현실을 알게 된 것이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일소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양상이 지속된다면 한국이 국제기구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키우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팀워크

GTP를 통해서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GTP에 참가하면서 새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었고, 특히나 같이 고생하고 생활했던 팀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소중한 사람들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각 국제기구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개인적인 과제였기 때문에 GTP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크게 팀원들끼리는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고, 사전교육을 받는 동안 친해진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비록 발표 주제가 다르고 발표하는 기관이 다르더라도 기말고사 기간에 발표를 준비하느라 힘든 것은 모두 같았고, 방콕에 도착하고 나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느낀 점, 그날 하루 일과를 돌이켜 보면서 아쉬웠던 점 등을 말하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특히나 모든 일정이 지난 뒤 호텔의 브리핑 룸에서 발표 예행 연습을 해보고 같은 팀원들로부터 피드백을 얻었던 것이 발표 자체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서로를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기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자신의 발표를 준비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 상대방의 주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던 우리가 여러 차례의 예행 연습을 거치면서 다른 팀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지켜보게 되었다. 이에 그 팀원이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심이 담긴 피드백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게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더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팀원들이 매우 통찰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는 구성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일종의 존경심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형태의 친목 도모 과정은 아니지만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유능한 학생들이 모인 자리이니만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나 역시도 내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브리핑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다만 국제대학원에 다니고 있던 언니, 오빠들과 생각보다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약 일주일 동안 같은 방을 사용했던 룸메이트 친구들이나 버스에서 자주 근처에 앉았던 비슷한 나이대의 팀원들과는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하면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국제대학원의 팀원들과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국제대학원에 다니던 팀원들끼리는 GTP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서로 알고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일종의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 GTP 시작 초기부터 먼저 다가가기 쉽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같이 발표를 준비한다던가 방을 같이 썼다던가 하면 더 친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

라고 생각하니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아쉬움이 생기곤 한다. 경쟁률을 뚫고 GTP에 선발되어 일주일을 같이 보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인연은 아닐 텐데,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상관 없이 더욱 친해졌다면 훨씬 더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았을까 싶다. 앞으로도 GTP를 함께 하며 같이 고생하고 같이 웃었던 팀원들끼리 자주 만나면서 인연을 지속했으면 하는 것이 현재의 바람이다.

향후 계획

우선은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다음 학기를 마지막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정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한다. 평생 공부를 업으로 삼아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매일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이 남았다고 느낀다. 이번에 GTP에 참가하면서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방문했는데,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관련 분야의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멋지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비해서 업무적 능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국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결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스스로의 일에 자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지속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은 석사과정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밟으며 이론적 기반을 다진 후,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인 중동 정치를 공부하기 위해서 런던 정경대로의 유학을 준비할 생각이다. 동문회의 밤에서 런던 정경대에 재학 중인 정치학과 선배를 만나고 나서 더욱 그러한 결심이 굳어졌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한 번

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GTP를 하면서 새로이 하게 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는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아산서원이라는 프로그램에 꼭 지원할 것과 영어, 일본어, 아랍어를 제외한 제4 외국어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 이 두 가지이다. 인문학 강의와 워싱턴에서의 해외 인턴십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아산서원 프로그램은 8개월짜리 장기 프로그램이라 지원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GTP를 하면서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인턴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자 아산서원과 같은 프로그램 없이는 해외 인턴을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무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외국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내 관심 분야인 중동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아랍어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통용되는 6개의 UN 공용어 중 활용도가 높은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 동안은 영어나 일본어를 어느 정도까지 완성해 두었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GTP를 통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능력이 곧 강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고 내 스스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학기 중에는 복수 전공을 끝내는 한편 졸업 논문을 쓰느라 따로 외국어를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에는 더 이상 복수 전공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만큼 하고 싶었던 공부와 외국어 공부에 전념을 다하자는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이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무엇보다도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인맥을 쌓으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한국에 서뿐만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일할 때에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 지식을 쌓고 능력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맥을 넓히고 잘 유지하는 것 또한 현대 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을 반드시 명심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GTP를 하게 될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자 동시에 나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의 말이기도 하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미 성취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 나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등 모든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한 것들은 짧게는 단순히 국제기구에서의 인턴십 기회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수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며, 어느 날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치게 되더라도 결국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찾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10

우리 자신을 믿자!

장창섭 (경영학과 09학번)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처음 GTP를 알게 된 것은 신입생 때였다.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만 꾸던 나는 GTP야말로 막연해 보이는 나의 꿈을 현실로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GTP가 실질적인 인턴십을 통한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원 대상은 학부생 3, 4학년 혹은 그 이상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당시 1학년이었던 나는 지원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인 3, 4학년이 된다면 꼭 지원하겠노라 다짐하고 학교생활을 바쁘게 하며, 군대에 가고, GTP에 대한 생각은 잠시 내 마음 한 켠으로 미루어 놓았다.

군대에 있던 중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많은 친구들이 영미권 대학으로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하고 싶었다. 평소에 동남아시아에 관심이 많던 터라, 국제협력본부에서 태국으로 갈 교환학생을 뽑는 공고를 보고 주저함 없이 신청했고, 감사하게

도 합격해서 2013학년도 가을학기를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보내게 되었다. 교환학생 선발 후 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저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많이 공부하던 중 우연히 GTP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처음, GTP 포스터를 보았을 때의 생각은 '이번에는 방콕이네? 2학기 때 교환학생으로 가는데, 신기하다!'였고 두 번째 든 생각은 신입생 때 지원하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3학년이 되어서 지원 자격이 되어 신청할 수 있다는 기쁨이었다. 게다가, 이번 GTP의 주제는 어려서부터 해보고 싶던 국제기구 편이었다. GTP 지원을 위한 삼박자가 맞으니 주저함 없이 GTP에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과정

우선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는 서류전형을 거치게 된다. 자기소개서와 더불어 1) Why are you applying for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in Bangkok? 2) What qualities, skills, interests make you the best candidate for 2013 Summer GTP? What can you contribute to this program? 3) What are your career goals? How will this program help you to achieve them?의 각각 세 개의 문항에 답변할 것을 요구받았다. 나는 각각의 문항당 약 한 장 정도 분량으로 답변을 했고, GTP가 나의 학업 그리고 미래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된 2배수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GTP의 단장이신 은기수 교수님과 경력개발센터의 박희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영어 인터뷰에서는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과 함께 자기소개서에 기술된 인적 사항에 대해 교수님의 질문을 받는다. 학교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인터뷰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긴장되었다. 인터뷰는 개별 지원자당 20분 정도씩 진행되었고,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다만 인터뷰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터라 이를 숙지하지 않고 간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분위기에 쉽게 당황할 수 있다. 영어 인터뷰 후 오래지 않아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프로그램 진행비 40만 원을 입금하고 여권 스캔본을 제출하는 등 짧은 시간 동안의 준비였지만 점차 방콕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사전교육

GTP가 여타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점은 탁월한 사전교육이다. 첫 사전교육은 방콕 KOTRA에서 일하시던 박사님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박사님께서는 태국의 역사와 문화, 산업 현황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이를 통해서 태국의 문화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두 번째 강의는 우리 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강의하고 계신 봉민아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한 강의였다. 다소 긴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벌써 지나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재미있는 강의였고, 재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나치기 쉬운 프레젠테이션의 스킬들, 예를 들면 발음, 보디랭귀지, 아이 콘택트 등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우리가 방문할 기관에 사전 제출할 Resume와 Cover Letter를 미리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강의와 코멘트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 Resume와 Cover Letter 첨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Danton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선생님의 열정 어린 강의와 수업이 끝나고도 이메일을 통해서 직접 첨삭을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봐주셔서, Resume와 Cover Letter를 사전에 써 보지 않았더라도 차근차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였다.

방콕에 함께 방문하실 은기수 교수님과과의 개별 면담 또한 사전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참석하는 학생당 30분 정도씩 사전에 시간을 정해서 만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주제 “Outline some of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dentify one priority moving forward to ensur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마침 은기수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인구학과 한국학이었고, 이번 학기에 이주와 관련된 강의를 대학원에서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주제를 접했을 때보다 더 심층적으로 침착을 받을 수 있었다.

비록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면서 사전교육 일정이 생각보다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사전교육을 통해서 방콕 현지 기관에서 실제로 발표할 때보다 더 정제되고 나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었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내가 발표를 맡게 된 기관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국제이주기구)이다. IOM은 이주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정부 간 기구로서 각국 정부, 정부 간 기구 및 NGO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단체이다. IOM은 비록 UN 기관은 아니지만 UN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주민 정책을 주관하고 있다. IOM이 UN 등의 기관과는 다르게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이 터졌을 때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



UN 건물 앞에서.

점 또한 가지고 있다.

IOM은 1951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2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17개국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 100여 개국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 회원국 정부와 이주민 모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 제안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IOM은 또한 인도적인 이주관리의 확립을 위해 이주 현안에 관한 국제협력을 장려함과 동시에, 이주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며, 이주노동자들은 물론 난민, 국내난민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IOM의 이주관리 활동 영역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이주와 사회·경제적 개발, 둘째, 이주과정 지원, 셋째, 이주관리 지원, 넷째, 난민 및 강제이주 피해자 지원이다. 또한 위의 각 영역과 관련하여 국제 이주법 촉진, 정책 입론 및 연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이주자 권리보호, 이주민의 건강증진,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 방콕에는 아시아태평양 Regional Office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특히 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향상과 Human Trafficking을 줄이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나의 발표 주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를 보내는 Sending Countries(동남아시아 국가들)와 Receiving Country인 한국에 Mutual Benefit을 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에 관하여 제시하고 어떻게 이러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최종 발표는 위와 같았지만, 처음 내가 준비했던 발표를 실제로 기관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 봉민아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괄적인 우리나라의 이주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이라는 특수한 국가를 대하는 태도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이주민, 즉 탈북자 혹은 새터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들이 남한과 북한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북한과 남한의 상황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슈와 관련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내가 발표하는 기관이 아시아태평양의 지역사무소인 만큼, 비단 한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황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

다음 내용으로는 이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발표를 준비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너무나 협소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이슈와는 거리가 있어서 교수님의 피드



IOM에 감사패 전달.

백 및 방콕에 함께 가는 다른 많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주제를 보다 실질적이고 관련 있는 내용으로 바꾸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많다. 2013년 기준으로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은 흔히 알고 있듯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대학교육을 받은 고급 인력들이 많아지면서 저렴한 숙련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다.

물론 이들의 업무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고용노동부를 위시한 많은 정부기관에서 고용허가제도(Employment Permit System)와 같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인해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이 향상되기도 했지만, 아직 이들의 고용안정성은 내국인의 그것보다 많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비자가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는 5년이라는 주기마다 한국에 있는 사업장 입장에서도 새로운 인력을 계속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사업장 입장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비효율을 낳는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우선 동남아시아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공조를 통해 이들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입수하여 관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에서 배웠던 지식과 기술 등을 바탕으로 고국에서도 동종 업계에서 종사하여 기술을 썩히지 않고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할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생산기지를 건설할 때 고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같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이러한 연속적인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오게 된다면 기술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이력과 보유 기술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어디서든지 접속과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사업장 CEO들은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능을 썩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Sending Countries에는 산업발전의 미래를 위한 기틀을 쌓을 수 있고, Receiving Country에는 고도화된 산업구조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 생산분야를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산업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서버 등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발표 기관 활동

우리는 발표 기관인 IOM에 목요일에 방문할 수 있었다. 이미 많은 기관들을 방문한 뒤에 IOM을 방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하지만 IOM은 우리를 너무나도 환대해 주었다. 처음 기관에 들어설 때부터 Christopher Foulkes라는 인턴 분께서 이런저런 책자들을 구비해 주셨고, IOM의 현지 Asia-Pacific Regional Director인 Mr. Andrew께서는 IOM의 역사와 배경, IOM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 Asia-Pacific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나는 국제이주 중에서도 한국의 이주노동자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Mr. Andrew가 한국의 이주 현안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셨고(EPS,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다), 한국의 이주문제를 우리가 방문하는 것에 맞추어 준비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기관 방문 내용

우선 내가 발표했던 기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었다. 나의 발표에 생각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그 전까지는 내용이 너무나도 자주 바뀌어서 걱정했었는데) 감사했다.

이뿐만 아니라 실로 많은 기관들을 방문했다. 첫날에는 ILO(국제노동기구)를 방문했다. UNESCAP 건물 안에 있는 ILO에서는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한국 분들이 우선 우리를 맞아주셨다. 고용노동부에서 파견 나오신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들 한국인으로서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셔서 큰 자부심이 느껴졌다. 발표를 잘 마치고, 현지 담당자로부터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방문 기관은 FORUM-ASIA였다. FORUM-ASIA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전반적인 인권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통해서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인권운동을 지원하는 단체였다. 기관에서도 발표를 마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기관 방문들을 마치고 한국대사관에 방문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에서 참서관님들의 환영을 받고, 한국과 태국과의 역사적인 관계와 태국에서의 한국의 위상, 경제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대사관 건물이 한국적으로 지어졌고 매우 웅장했는데, 대사관 건물의 모양과 크기가 그 나라의 국력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에서 알아줄 만한 정도가 되었다는 생각에 웬지 모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태국에 생각보다 많은 교민들이 국제기구와 주재원 사업 등을 하며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나라 관광객 수가 태국 전체 관광객 수 중에 1위 혹은 2위를 한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했다.

다음 방문지는 ANFREL이라는 또 다른 NGO였다. ANFREL도 FORUM-ASIA처럼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이곳 또한 특히 동남아시아 혹은 서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위한 다양한 서포트를 제공하는 단체였다. 비록 NGO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건물은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환영해주신 많은 분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멋있어 보였다.

다음 방문지는 UNESCAP에 있는 교통국과 환경국이었다. 교통국과 환경국 모두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교통국은 서울대학교 선배님이신 하동우 박사님이 국장 직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셨다. 하동우 박사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또한 환경국과 교통국에서 진행한 발표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다음으로는 방콕 시내에 위치한 세계은행 태국사무소를 방문했다. 세계



IOM에서 단체사진.

은행, 특히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에 방문해서 발표를 진행했고, 또한 세계은행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세계은행에는 여러 부문이 있는데, 특히 IFC라는 부문은 내가 모르던 부문이어서 더 관심이 갔다. 막연하게 IBRD의 역할을 세계은행이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혹은 정부에 차관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금융기구의 역할을 세계은행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점심을 먹은 뒤에 WHO로 향했다. WHO는 독특하게도 태국 정부청사 보건청 안에 자리잡고 있었다. 태국 정부청사 특유의 동남아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WHO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듯했다. 많은 외국인 직원들과 지금까지 많이 방문했던 국제기구의 깔끔한 이미지, 하지만 동남아시아적인 외관이 오묘하게 조화되어 있는 공간이었다. 그곳의 수장은 인도 출신의 박사님이셨다. 발표에 크리티컬한 피드백을 주셔서 발표가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게 해주셨고, 또한 WHO

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실 때는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또한 UNESCO를 방문했다. 방콕에 있는 UNESCO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UNESCO가 관장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Regional Office였고 담당하시는 선생님 또한 한국분이셔서, 게다가 기관 측에서 한국 국적으로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배석하셔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WFP를 방문했다. 세계식량기구 또한 IOM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특히 아침을 먹지 못했을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다과를 준비해주셨고, 기관 측에서 먼저 기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셨다. 이를 통해서 WFP가 비단 빈국의 긴급구호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난이 닥쳤을 때 군대와 같은 외부기관과 함께 긴급구호를 시행하기도 하고, 북한과 같은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 어느 곳보다 WFP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시간관계상 토론을 더 지속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었다.

마지막 기관은 UNEP이었다. UNEP은 UNESCAP 건물 안에 있었는데, 이곳 역시 한국인 담당자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해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점은,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원하는 곳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말이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원래는 많지 않았는데 UNEP 기관 방문 후 환경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현지 교육 및 특강

현지에서 받은 교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매일 밤 2시간여 혹

은 그 이상 동안 진행된 하루 전 발표 피드백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숙소 세미나실에서 전날 발표에 대한 리허설과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한 참가자당 한 시간가량 리허설과 피드백 시간이 주어졌는데 주어진 시간이 몹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고역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발표를 위한 것이었기에, 또한 이를 통해서 나조차도 훨씬 더 나은 발표를 실전에서 할 수 있었기에 매우 의미 있는 실전 교육이었다.

UNESCAP의 김태형 박사님께서 본인의 솔직한 이야기와 경험을 바탕으로 “How to get a job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신 것도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 국제공무원이라는 멋있는 모습 뒤에 가려진 국제기구의 실상들, 예를 들면 관료적인 모습 혹은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무력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점과 함께 국제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에서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사례들,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복지제도 등에 대해 배운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JPO만을 통해서 국제기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경력직으로 국제기구에 들어오는 것이 미래의 커리어나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용이하다고 설명해주셨다. 이를 바탕으로 내가 국제기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커리어 플랜을 어떻게 짜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킹 행사 등 기타 활동

현지 대학 탐방, 즉 Chulalongkorn University 방문은 이번 GTP에 참가한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학기 때 Chulalongkorn University로 교환학생을 오기 때문이다. Chulalongkorn University는 태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교 중 하나이다. 태국의 많은 엘리트 학생들이 현지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수학한 후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있으며, 태국 국왕이 직접 대학교 졸업식에 방문해서 일일이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나누어 준다는 점, 그리고 많은 태국 학생들이 이를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는 점 등이 Chulalongkorn University가 그들에게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Chulalongkorn University의 특이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학교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정에 지나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충격을 받는다. 태국에서는 대학생들도 교복을 착용한다. 대개 남학생은 흰색 와이셔츠와 검정색 바지, 여학생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치마를 입는다. Chulalongkorn University로 교환학생을 오는 것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학교 학사행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미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학교 담당자 분께서 태국에 도착하면 교복을 구입하고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캠퍼스 안을 활보하는 것을 보니 익숙하기보다는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서울 도심에서 다소 후미진 곳에 위치한 것과는 다르게 Chulalongkorn University는 방콕에서 가장 중심부라 불리는 수쿰빗 근처에 위치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학교 근처 백화점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웬지 모르게 우리 학교와는 다른 형태의 활력을 느낄 수 있었다.

Chulalongkorn University 방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8월부터 다니게 될 교환학교에 대한 사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왕정국가와 왕립학교임에서 오는 Chulalongkorn University 특유의 학풍 또한 태국을 느끼게 하는 신선한 경험이었다.

동문의 밤, SNU Alumni Night은 목요일 저녁 방콕에 있는 한 특급호

텔에서 진행되었다. 생각보다 태국의 향신료가 입맛에 맞지 않아 고생하고 있던 차에 특급호텔에서의 서양식 음식을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엄청난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즐겁고 의미 있었던 점은 방콕에 계신 많은 서울대학교 선배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점이다. 해외 유수의 많은 대학의 선배들이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고 국제기구 여기저기에 있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시샘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왜 서울대학교 선배님들은 별로 안 계신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실제로 우리 서울대학교 선배들은 세계 곳곳, 특히 방콕에 있는 다양한 국제기구 요직에서 세계 평화와 관련 분야 협력 증진과 관련 해 국익을 증진시키는 데 일조하시는 분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나와 10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인턴을 하고 계신 선배님도 만나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국제기구에 종사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선배님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현지에서 커 피사업을 하시는 분도, 무역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선배님들과 미래와 전공에 대해서 그리고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무엇보다도 GTP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은 자신감일 것이다.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것이 워낙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었던 것

이 사실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었고, 매우 불투명한 공허한 꿈,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쉬운 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제로 국제기구를 방문여 발표를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국제기구를 경험하게 되어 다시금 나의 꿈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난관에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해내는 나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었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많은 한국인 특히 국제기구에 계신 서울대학교 선배님들을 롤모델 삼아 열심히 준비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이럴 때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국제기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꿈을 이루고 싶다.

팀워크

이번 방콕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주는 만족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일주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보냈던 동료, 형, 누나, 동생들과 조교님, 박희영 선생님, 은기수 교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고 재미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매일마다 두 개씩 진행되는 발표와, 이를 위해 전날 10시 혹은 넘어서까지 진행되는 리허설과 피드백 일정, 게다가 우리나라와 다른 시차와 기 후 탓에 쉽게 지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위에 계셨던 많은 분들 덕분이다.

너무나도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동료들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했던 GTP 방콕 편이라고 자부한다!

향후 계획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돌아오는 가을학기를 보낼 예정이다. 가을학기를 보내면서 동남아시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여행이 아닌 현지에서 사는 것이 어떤지, 그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 이를 바탕으로 내가 나중에 이루고자 하는 동남아시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이를 발판 삼아 남북통일을 위한 미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싶다. 특히 경제발전이나 산업발전 기술 등과 관련된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은 그 ‘큰 의미’에 비하면 생각보다 간단해 보인다. 내 생각에 그 전략은 바로 끊임없이 열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인 것 같다. 물론 세부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번 GTP에서 만난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어민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하는 것, 그리고 제2외국어를 자유롭게 듣고 읽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구사의 자유로움뿐만 아니라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전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길러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이번 GTP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GTP와 함께 내 미래의 커리어를 설계하다

정혜원 (사회복지학과 09학번)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GTP 방콕 편을 알게 된 계기는 학교 내 게시판에 붙어 있는 GTP 포스터를 통해서였다. 이번 방콕 편 목적은 국제기구 방문과 인턴 기회 모색이었는데, 나는 이것을 포스터에서 본 순간 딱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고 꼭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대학을 들어와서도 국제기구와 개발 학문과 관련된 여러 수업을 들었고 직접 이러한 기구들(굿네이버스, 세계전자정부협의체)에서 실습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알아갔다. 졸업 학년이 된 나는 취업에 대해 생각이 많아져 갔는데 국제기구에서 직접 인턴을 하면 그곳이 정말 나한테 맞는 곳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학기에 여러 곳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찰나에 포스터를 보게 된 것이고 GTP 프로그램이 나의 마음을 읽은 듯한 느낌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합격하면 나는 여러 국제기

구들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었고 인턴 자리도 얻게 되면 진로에 대한 생각들도 한층 정리될 것을 상상해보았다.

지원과정

지원과정은 서류전형과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가 과제 제출 기간이어서 시간이 여러모로 촉박했었다. 하지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면서 정성을 들여 쓰기로 했다. 서류전형에 제출해야 했던 지원서에는 나의 관심사(국제기구와 인턴)에 대해 썼고 이 프로그램이 나의 미래의 커리어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꼭 가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글에 나타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심사위원들이 지원서에 적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서류전형을 합격하게 되었고 인터뷰 날짜가 알려졌다. 인터뷰하기 하루 전 예상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나의 답변들도 생각해보았는데 이 과정이 인터뷰 날 그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순서가 되어 인터뷰하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프로그램의 담당 교수님이셨던 은기수 교수님께서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었다. 이 부분까지는 예상하지 못해서 처음에 조금 당황했었지만 전날 예상 질문들을 정리한 것이 말이 더 술술 나올 수 있게 도와준 것 같다.

나는 나의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인터뷰를 보았다. “왜 OO과목에 C학점이 나왔냐?” 같은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솔직하게 그때 그 학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렸다. 지원자들 중에 영어 인터뷰가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조언을 드리고 싶다. 실제로 나의 영어 발음이나 문장 구성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자신감을 갖고 (때로는 실제로 떨고 있어도 떨지 않는 척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인터뷰에 응하면 영어 인터뷰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다.

드디어 대망의 합격자 발표날이 다가왔다. 합격자 명단에 나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너무 기뻐고 거기서 할 일들을 상상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다.

사전교육

GTP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프로그램에 같이 가게 될 사람들을 만났다. 첫 만남이라 그런지 모두 조용하고 정중(?)하게 앉아 있었다. ‘방콕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과 많이 친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색함을 달랬다. O.T.에서 앞으로 있을 스케줄에 대해 설명해주었는데 들으면서 나의 걱정은 더해져 갔다. GTP 준비과정이 과제와 기말고사 준비기간과 겹쳤기 때문이다. 준비과정은 힘들겠지만 어렵게 얻은 기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드리고 싶었다.

방콕의 국제기구들을 방문하기 전, 세 번의 교육이 있었는데 첫째는 태국의 경제, 문화, 역사를 소개하는 강의였고, 둘째는 영어 발표 스킬에 대한 교육이었고, 마지막으로 이력서와 커버레터 작성 요령 수업이었다. 셋 다 도움이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마지막 강의가 훗날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내용을 다루서 인상 깊게 들었다. 미국에서 상용되는 이력서는 한국과는 다른 포맷을 갖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커버레터 작성법에 대해서도 배웠다. 훗날 국제기구나 외국에서 일하고 싶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었다.

주제 선정 과정

사전교육에 참석하면서 방콕에서 발표할 기관들을 선정해야 했다. 방문할 기관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나름 나의 전공과 연관 있는 기관을 찾아보니 국제노동기구(ILO)를 1순위를 선정하게 되었다. 전부터 관심 있게 본 곳이라기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가는 마음가짐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마침 ILO가 발표할 기관으로 확정되었고 발표 주제도 선정해야 했다. 주제를 정해준 기관들과는 달리 ILO는 자유주제여서 발표자인 내가 정해야 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고 자신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한 적절한 주제를 찾기가 쉽진 않았다. 전문적인 주제는 가급적 피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알 테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새로우면서 유익한 주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표를 끝내고 ILO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듣고 알게 되었지만, 내가 원했던 그 ‘유익하면서도 새로운’ 주제를 선택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주제를 선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 두 차례의 리허설을 거쳐 거듭 수정했고 발표날 이틀 전 아예 주제를 바꾸기도 했다. 방콕에서 서울대학교 망신 주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에 나는 나의 인맥들을 동원해 주제 선정과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했다. 먼저 ILO에 게시는 한국인 직원 분을 접촉해야겠다고 생각되어 인터넷으로 몇 사람 거쳐 연락처를 알아내어 주제의 적절성에 대해 여쭙보았다. 그 후에 노조에 계신 분을 만나 도움을 얻었고, 결정적으로 내 주제의 큰 그림을 구성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나의 과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주제 정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한 그와 우리 학교 학생회관 옆에서 이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우연히 청년유니온(한국의 첫 청년 노조)이 최저임금 시급 캠페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한국사회는 청년 실업 때문에 큰 역경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ILO가 청년 실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표한 청년 실업 보고서를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청년유니온과 ILO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국 청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보는 방향으로 주제를 결정했다. 주제 선정 과정에서 감사하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덕분에 좋은 주제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2. 현지 활동

ILO에서 발표하다

발표 하루 전날 방콕에 도착했다. 그날 밤 새로 구성한 PPT를 교수님께 첨삭 받고 OK까지 받았지만 하루 전 발표 구성을 바꿔서 그런지 100% 자신이 있진 않았다.

드디어 발표날이 다가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24일 월요일부터 6월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되었는데 내가 월요일 오전에 첫 발표를 맡았다. 팀원들 중에서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어 긴장했지만 “매를 맞아도 먼저 맞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우리가 방문한 방콕에 위치한 ILO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활동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두고 있다. ILO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기관은 1946년 국제연합의 특별기구로 처음 설립되었고 현재 이 기관의 목표는 노동자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노동통계자료 구성, 회원국가들의 정부·노동자·사용자 대표들과 ILO 특파원들 간의 의견 교환과, 실업과 고용, 노사관계, 경제발전을 비롯한 문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ILO는 노동 관련 협약을 만듬으로써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수립하고 있고, 1991년에 가입한 한국은 총 189개의 협약 중 28개를 채택했다. 이는 전체 회원국 평균 채택률보다 낮다.

발표는 ILO를 포함한 UN 산하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UN 빌딩에서 진행되었다. 발표 주제는 “국제노동기구와 청년유니온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한국 청년 노동자들의 역량 강화(Empowering young workers in Korea, by creating a mutually beneficial network between ILO and Korea's Youth Com-



IOM에서 발표하고 있는 나의 모습.



발표 후 ILO 인사과 담당자와 은기수 교수님과 함께.

munity Union)”였다. 한국의 노동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비정규직 문제와 ILO가 특별히 권고하는 국제노동협약들의 낮은 채택률로 인한 노동권의 위협이다. 이 두 문제는 한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 두 문제에서 크게 피해를 보는 집단은 청년들이다. 중년층과 비교했을 때 청년들은 권력과 경험이 없어 다른 어느 집단보다 노동권을 박탈당할 만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약한 노동자 집단이다. 이들의 노동권을 옹호하기 위해 청년유니온이 생겼지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ILO와 청년유

니온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ILO가 청년유니온에게 정보와 정서 지원, 청년유니온은 ILO에게 한국의 청년 노동자와 관련한 데이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서로 윈윈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발표를 했다.

발표 기관 활동 - ILO 인턴십 설명회

ILO 인사과 담당자 알렉스 아지즈(Alex Aziz) 씨께서 우리를 위해 간단하게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ILO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려면 석사생이어야 하며 영어 구사 능력이 좋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국적의 동료들과 일하기 때문에 열린 마음과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대부분에 UN 기관들 인턴십은 무급이지만 노동기구라서 그렇지 ILO에서는 소액의 지원비(stipend)가 있으며 약 300불 정도 된다.

다른 기관 방문에서 느낀 점

우리가 방문한 기관들 중 기억에 남는 기관은 세계식량기구(WFP)와 국제이주기구(IOM)이다. WFP에서는 우리 팀 동료의 발표를 들은 후 Q&A 세션을 가졌고 그 이후에는 WFP 직원분을 통해 이 기관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내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다시 되새기게 했던 것은 국제식량구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였다. 나는 국제식량구호가 WFP와 다른 기관들(정부, NGO)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그쪽 담당자는 재난과 내전으로 식량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한 구호작전 경험이 많은 분이셨고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잘 아시는 분이였다. 그는 UN이 개입하는 모든 구호작전에서 WFP가 맡은 업무는 식량보급과 물류지원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량과 물류지원계획은 WFP가 총괄하는 것이다.

IOM에서도 나의 열정이 끌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재난이나

내전이 발생했을 때 이주민들을 위한 캠프를 만드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한 열정이 타올랐다.

이렇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그 기구들의 주요 활동에 대해 알아가면서 나의 관심사와 맞는 기구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국제기구들을 탐방하면서 영어 구사 능력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업무를 영어로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기본, 쓰기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직접 깨달았기에 한국에 돌아가서 영어를 공부할 동기가 확실해져 공부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다.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또 다른 점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정 없이는 희생적인 이 일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모두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를 보며 나도 흔히 말하는 멋있고 편한 직장보다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직장을 선택해야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지 특강

방콕에서 있었던 특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UN에서 일하시는 김태형 박사님의 특강이었다. 박사님께서서는 UN의 간단한 소개와 UN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불편한 진실까지도) 후배들에게 알려주셨다. 일단 UN에서 일하려면 근무기간 동안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고 하셨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UN에서 근무하시면 자녀들은 UN에서 일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이 특강을 들으면서 알았다. 우리 팀원 중에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의 걱정은 (외교관이 되고 싶은 여자들과도 같을 텐데) 배우자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UN에서 일하는 여성이 생각보다 많고 또한 그녀들을 위한 복리후생이 잘 갖춰져 있어 여자들이 일하기 편한



발표를 준비하는 GTP 참가자들의 모습.

직장이라고 박사님께서 알려주셨다. 이 특강을 통해 다른 곳에서 듣기 어려운 UN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 현실적이며 궁금한 이야기들(예를 들면, 연봉)도 알 수 있는 기회여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태국 투어

기관 방문과 특강 이외에 기억에 남는 활동은 마지막 날에 있었던 투어다. 5일 동안 태국에 있었지만 현지인들을 만나기보다는 태국에서 일하시는 외국분들과 영어를 하며 지냈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볼 기회가 없었다. 볼 것이 많은 태국을 하루 만에 볼 수는 없었지만 태국인들이 존경하는 왕의 궁전, 방콕을 가로지르는 차오프라야 강, 역사가 생생하게 묻어나는 아유타야의 신전들을 보며 태국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다. 한국에는 왕이 없어서 그런지 태국 시내 곳곳에 태국 왕의 동상과 큰 사진들이 걸려 있는 것을 봤을 때 새로우면서 미묘한 느낌을 받았다. 또한 아유타야 신전들 방문 중에 전쟁에서 패해 버마

(지금의 미얀마)로부터 잘린 아유타야 신의 동상들을 봤을 때는 역사가 생생하게 다가왔다.

투어를 한 날은 우리 팀원 모두가 발표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즐겼던 것 같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이번 GTP를 통해 여러 UN 산하기관들과 NGO들을 방문하면서 국제기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제기구의 종류는 훨씬 다양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곳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 다양성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더 자세히 말하자면 환경, 인권, 문화, 보건, 식량, 노동 등을 아우르는 전문기관들을 방문했다. 이런 기회는 개인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기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고, 느끼고, 질문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풀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다.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것 이외에도 GTP는 내 미래의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국제기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국제기구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국제기구에 대한 나의 막연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직접 눈으로 와서 보니 내가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 아직 부족하지만 개선해야 할 자질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예를 들면, 전에 언급했었지만, 영어를 마스터해야 이곳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이다. 또한 GTP는 그 곳에서만 알 수 있는 팁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마지막 날 왕궁에서.

UN 직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것은 꼭 지금부터 UN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나중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나중에 UN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옵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지금부터 들어가려고 하면 경쟁이 치열해 힘들 수도 있다는 조언도 들었다.

팀워크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운 점이 있다면 바로 팀워크다. 나도 경험했지만 아마 모든 팀원들이 경험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처음 리허설 때 대부분 우리 발표는 솔직히 2%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 리허설 때 우리는 각자 발표를 연습했지만 다른 팀원들 발표를 봐주면서 아낌 없는 피드백을 주었다. 많은 경우에는 (나도 포함해서) 발표 전날 아예 구성을 바꾼 사례들도 있었지만 정말 바꾸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

제로 그 피드백들이 살과 피(?)가 되어서 모두의 발표 완성도를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좋은 피드백을 주었지만 발표자도 이를 잘 받아들여 이 피드백들을 반영한 (전날 2% 부족했던) PPT들이 발표날 믿기지 않을 수준의 것으로 변했다. 서로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계획

다음 학기에 인턴을 할 곳을 찾으면서 외교부에서 주최하는 ‘중남미 인턴 파견’ 프로그램을 발견했는데, 감사하게도 선발되어서 9월부터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주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의 국제기구) 인사과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다.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이곳에 기대하는 바가 많고 열심히 임하고 싶다. 그 동안 희망했던 국제기구에 갈 수 있는 기회이고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다. 유재석과 이적의 노래 ‘말하는 대로’처럼, 막연하게 국제기구에 대해서 좋아하고 조금씩 관심을 가져본 것이 정말 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커리어에 필요한 스킬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는 것부터 사람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하는 것, PPT 구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까지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스킬들을 짧은 기간 동안 배울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할, 그 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팁들도 얻을 수 있었고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정말 많은 것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고 싶다.

GTP 지원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회가 되면 이 프로그램을 주저하지 말고 꼭 지원해보라는 것이다. 이번에 떨어져도 좋다. 다음에 다시 또 지원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인턴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해주는 영어 실력과 다양성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12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상 그 이상의 경험

조효림 (경제학부 10학번)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4월 말, 겨우 중간고사로부터 해방되고 과제들로 정신이 없던 나는 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는 ‘GTP 방콕 편’을 보고 찰나의 호기심과 관심은 생겼었지만 무심코 지나쳤었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있던 내가 정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전 GTP 프로그램을 갔다 온 선배의 적극적인 추천 덕분이었다. GTP 프로그램을 활용해보라고 추천하던 선배는 인턴십을 얻으러 떠나는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방문하는 기관에서 만나는 분들,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경험이 지금까지도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사실 나중에 경력을 쌓아서 경제개발에 관련된 유엔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갖고는 있었기에 ‘국제기구’들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몰랐기에 아마도 처음에는 지원을 주저했었던 것 같다.

사실 내가 유엔기구라는 말에 솔깃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고등학교 때

모의유엔회의에 참여했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당시에 유엔기구의 활동, 조직의 체계 등을 알게 되면서 세계 무대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가져왔던 꿈들은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바쁘게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점점 멀게만 느껴졌고, 유엔 기구는 사실상 정직원뿐만 아니라 인턴조차도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왔기 때문에 학부생으로서는 당장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기관을 직접 연결시켜주고 또 학부생으로서는 얻기 힘든 기회가 주어지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지원과정

내가 GTP 지원을 고민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원 한 달 전에 만료된 토플 성적이었다. 이제와서 공인영어인증 시험을 본다 해도 분명 성적표는 이미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야 도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인 영어인증서가 필수가 아니기에 최대한 나의 영어 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지원서를 몇일 동안 구상하여 매우 공들여 썼다. 지원서를 쓸 때는 잘쓰는 특별한 요령이 있다기보다는 읽는 사람이 누구이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나열하기보다는 중요도 순서에서 이번 GTP와 관련있는 활동이나 나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썼다. 결국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원서를 보면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2일 후 면접을 봐야 했기 때문에 사실 영어 면접 준비는 오랜기간 할 수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대본을 만들어서 외우기보다는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열정과 생각을 보여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원서를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서 지원 동기, 졸업 후

미래 계획 등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놓고 대답하는 연습을 했다. 모든 면접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질문자가 면접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면서 예상문제와 답변을 준비해보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인다면 GTP는 단순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어우러져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자신의 성격과 친화력을 어필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전교육

사전교육뿐만 아니라 이력서 제출 그리고 가장 중요한 PPT 제출까지 기말고사와 기말과제 기간이 겹쳐 있어 힘들었다. 사전교육 내용은 방문하는 국가의 문화교육 및 영어 발표 그리고 외교 아카데미에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을 통해 이력서를 쓰는 방법과 이력서를 받는 입장에서 가장 추천하는 이력서 양식을 배울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GTP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디든 이력서를 제출해야 할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써서 어느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유용했다.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 학교 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교육은 정말 도움이 되었다.

이번 GTP에서 기말고사, 과제 기간과 겹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발표 자료 및 PPT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합격자 발표가 난 후 준비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업과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유엔기구에 내 이름을 걸고 발표하는 것이었기에 정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하지만 주제는 기관에서 요청한 주제를 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내용이었다. 국가 간 철도 연결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부분이었는데 학부생 수준에서는 다루기 힘든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찾기도 매우 힘들었다. 주제도

어렵고 학교 과제와 시험준비에 시간은 없는 상황 속에서 사전교육이라는 채찍질이 없었다면 아마 발표 준비가 제대로 되기 어려웠을 것 같다. 비록 PPT 발표에 대한 내용의 맥락상의 수정은 현지에서 발표 몇 시간 전까지도 계속되었지만 기본 틀은 한국에서 사전교육 때부터 충분히 준비해 갔기에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내가 발표를 맡게 된 기관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였다. UNESCAP은 UN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개발 담당 조직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가 간 그리고 지역 내외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요청하는 지역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경제와 사회라는 큰 분야를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ESCAP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별 세부 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교통국(Transport)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다.

UNESCAP을 방문해서 느꼈던 점은 아시아 지역을 다루는 유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특히 서양인들도 많이 일한다는 점이였다. 또한 사람들의 일하는 분위기가 자유롭고 한국보다는 더욱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처리가 이루어지는 곳 같았다. 예를 들면, 자신의 직급에 상관없이 일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주의가 강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씀에 따르면 자율성이

높아서 자신이 원하면 연구도 가능하며 주로 협력해서 함께 성과물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이 필요한 것 같았다. 또한 매우 놀랐던 것은 국제기구에 한국인 비율이 낮다고 하는데 많은 팀의 국장님들 중 한국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이었다.

발표 기관에서의 활동

UNESCAP은 규모도 상당하고, 방콕에 위치한 유엔빌딩 안에는 다양한 UN 산하기구들이 있지만 사실상 건물은 UNESCAP의 소유라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같은 건물 내의 다른 기관들과는 다르게 UNESCAP의 현지 직원들 그리고 프랑스에서 인턴을 하러 온 친구는 우리에게 건물 내 다양한 곳의 투어를 시켜주었다. 비록 뉴욕 유엔의 본부만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나름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만큼 큰 규모의 총회의장도 보고, 다양한 세계 음식이 제공되는 구내식당에서 밥도 먹고, 자랑스러운 반기문 총장님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는 역대 유엔총장을 전시한 곳도 보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정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일과 일하는 곳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것 같았다.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는 프랑스인 친구는 정말 실시간으로 UNESCAP 페이스북에 우리의 방문을 알리는 글과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바쁜 와중에 우리의 방문이 번거로울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적극적으로 건물 곳곳을 데리고 다녔다. 나중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워하였다.

기관의 활동에 대한 설명과 건물 투어 이외에도 UNESCAP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재난관리처에서 일하시는 김태형 박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기관을 설명해주시고 UN 기구에서 일하



UN 회의장 모습.

는 것은 기업에 취업하거나 한국에서 일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한 이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정말 솔직담백하게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UNESCAP에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고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중요한 팁도 귀뜸해 주셨다. UN 기구에서 일하시는 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민감할 수도 있는 직업에 관련된 사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에 정말 진지하게 미래 설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발표 주제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정해준 것이었다. 주제는 국가 간 철도 연결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논의하고 과연 어떠한 경우에 철도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교통수단인지 논하라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였다. 실제로도 이 주제는 현재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실증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주제였



교통국에서 발표하는 나의 모습.

다. 그랬기 때문에 가정적 사실에 기반한 경제적 가치를 논하는 것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선행된 연구 자료들에 기반한 내용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의 주장을 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막막했었다.

하지만 우선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을 읽고 주제를 한국의 사례에 기반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로 좀 더 좁혀서 철도의 이점들을 설명하며 국가간 철도건설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발표를 준비할 수 있었다. 분명 내가 발표하게 될 기관의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미 관련 내용의 전문가들이셨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하거나 발표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나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준비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전에는 관심이 많지 않았던 교통수단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었다. 이전에 막연히 환경경제학이라는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양한 교통수단들의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과 자료들

을 읽으면서 연구의 방법론 등을 내가 소화하고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다.

다른 기관 방문 및 특강

처음에는 내가 발표하는 기관만 생각하느라 다른 기관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방문한 UNESCAP 이외에도 UNESCO, ILO, The World Bank, WFP, WHO 등에서 관계자 분들이 각 기구의 역사, 비전과 미션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 등을 자세히 듣는 기회가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고 만약 이런 탐방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생각해보지 못했을 진출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예를 들면, 나는 World Bank가 정말 다른 은행 혹은 IMF와는 어떻게 다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었다. 하지만 방문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자금이 부족한 곳에 투자를 해서 경제발전도 도와주면서 얻는 이익을 통해 다른 지역의 사업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다수 국제기구들의 인턴들 혹은 단기간 직원들의 채용은 대부분 공식적으로 모집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력서를 보내서 연락을 취하거나 안면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점이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아직은 학부생이기에 지원할 수 없는 곳에 나중에 이력서를 제출한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래 진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당연히 10개가 넘는 기관들을 방문하며 사소하지만 중요한 명함을 주고 받는 매너부터 나를 어필하는 방법까지 함께한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반복되는 경험적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었다. 더불어서 내가 현지에서 발표하면서 배운 많은 것들 이외에도 현지 기관들을 방



마지막 날, 차우프라야 강 투어 배에서.

문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주옥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배운 것도 많았다. 김태영 박사님의 한 시간 넘는 이야기는 물론이고 주태국 한국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영사님의 대사관 활동 영역과 다양한 진로에 대한 특강과 더불어서, 우리의 지도교수님이셨던 국제대학원의 은기수 교수님의 인생 경험담은 이번 GTP 탐방을 더욱 알차게 해주었다. 글로는 배울 수 없는 이런 소중한 경험들이야말로 GTP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경험도 해보고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타 활동

이번 탐방에서는 국제기구들뿐만 아니라 현지 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비록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지 못해 아쉽기도 했지만 UNESCAP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과 아시아 농업기구에서 일하시는 선배님, 탐앤탐스의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 선배님,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영사님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태국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성시경 씨한테 받은 싸인.

열심히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과 미래
진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 조언도
듣고 학교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
을 보냈다. 정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뵈
수 없었던 선배님들을 뵈고 나중에 도
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라며
명함을 주셨는데, 단순히 기관 방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것만 생각했던 나
로서는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만들고 네
트워킹을 할 수 있었기에 너무나도 소

중했던 시간이었다.

GTP의 다양한 매력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해외 탐방’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아침부터 자정까지 빡빡한 스케줄에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어도 해외에 나갔으면 최소한의 관광은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있듯이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만 했던 우
리에게 12시간 정도 태국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주어졌다. ‘과연 12시간
동안 얼마나 태국을 즐기고 놀 수 있지?’라고 생각한 나의 예상을 뛰어넘
어, 경력개발센터의 배려로 마지막 출국날 강에서 배도 타고, 왕궁도 둘러
보고, 시내관광뿐만 아니라 방콕을 벗어나 아유타야라는 태국과 캄보디아
의 과거 분쟁지역 역사관광도 하고, 태국의 유명한 마사지도 받으며 누릴
만큼 누리고 올 수 있었다. 거기에 마지막 날, 모든 발표가 끝나고 푸짐하
게, 가난한 학생 신분으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싱싱한 게요리와 새
우를 마음껏 먹고 태국식당에서 한국에서도 볼까 말까 하는 가수 성시경
을 만나서 싸인까지 받은 건 정말 자랑거리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GTP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알차고 또 재밌었다. 생각해보면 방콕에 도착해서 거의 매일 자정을 훨씬 넘겨서야 잘 수 있었다. 내 발표가 있기 전에는 계속 수정한다고 잠을 못 잤고, 내 발표가 끝난 뒤에는 다른 팀원들의 발표 내용을 같이 봐주고 도와주느라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침대에 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의 발표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더욱 친해진 것은 물론이고 내 주제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발표 주제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었다. 특히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발표를 듣다 보니) 내가 전혀 모르던 보건 분야나 백신 분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12명의 팀원들이 10개의 기관에서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과정을 준비기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면서 식량부터 통상 분야까지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또한 일주일 동안 함께 짝짝한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피어난 동지애로, 힘들지만 유쾌했던 7일을 보낼 수 있었다.

향후 계획

이 짧다면 짧은 일주일의 경험이 나의 진로계획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면 아마도 그건 과장된 이야기일 것이다. 분명 일주일 동안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또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나의 진로계획과 미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향후 계획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수확이 있다면 GTP에 참여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외교관이 되거나 JPO라는 국제공무원 시험을 봐야만 하는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며 그 분야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거쳐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던 국제기구라는 하나의 꿈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가 가능하며, 오히려 현 재로서는 어떻게 나만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겠다는 향후 계획의 방향성을 잡게 되었다.

미래의 GTP 지원자들에게

나는 GTP가 좀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 좋은 혜택을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누렸으면 한다. 사실 진로라는 게 굳이 한 가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분야가 사실은 내가 정말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명 GTP의 본 취지는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학생들에게 경험의 폭을 넓히고 탐방 후에는 단순히 탐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턴십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탐방을 통해서 한 친구는 이전까지는 어떤 기관인지 잘 알지 못하다가 발표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관을 접촉하여 조사를 하던 중에, 탐방 후 인턴십 기회를 얻기도 했다.

만약 다음 GTP의 주제가 어느 정도 관심은 있지만 그 분야의 진로로 나아간다는 확신이 없더라도 나는 지원을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다. 실제로 인턴을 획득하거나 졸업 전 학교 밖에서 실무현장을 방문하고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쌓는 일은 학생 신분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목수에서부터 탱고 강습사까지 무려 30개가 넘는 다양한 직업들을 직접 배워가면서 경험한 한 프랑스 청년이 “누구든지 열정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라고 한



아유타야 유적지.

말이 떠오른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GTP를 통해서 얻어 갈 수 있는 가치는 이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분명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GTP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인턴십의 기회를 얻거나 여기서 만든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인턴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천사의 도시에서 발견한 비전

황현정 (서양사학과 11학번)

1. GTP 방콕 편을 준비하며

지원 동기

크게 두 가지 관심 때문에 GTP 방콕 편에 지원하게 되었다.

첫째로는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때 모의유엔(MUN) 등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로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막연한 꿈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제대로 진로설계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 주변에 국제기구에서 일하거나 국제기구에서의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경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후에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제기구로의 진출은 내게 너무나 먼 일로 느껴졌고, 사실 관심을 조금 접고 있었다.

그러던 찰나에 직접 국제기구들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들었고,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다. 친구는 과 답사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는데, 친구도 많이 아쉬워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준 친구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두번째로는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봉사를 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 GTP를 알기 전까지, 동남아를 휴양지로만 알고 있었지, 국제기구가 밀접한 곳이라고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더욱 태국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여행으로 갔을 때와는 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다.

지원과정

지원과정은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서류 심사였다. 여러 영어 문항으로 이루어진 신청서를 처음 받아 보았을 때는 앞이 깜깜했다.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 적합도를 평가하는 질문들이었다. 나는 역사 전공이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유네스코를 발표 기관으로 택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었다. 학점, 외국어 점수도 기입했다.

두번째는 면접이었다. 프로그램을 총괄하시는 은기수 교수님과 기획자이신 박희영 선생님께서 면접을 진행했다. 나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을 주로 던지셨는데, 모든 면접자가 같은 질문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나중에 방콕의 버스에서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 다른 질문을 받은 분들도 있었다.

사전교육

사실 합격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다른 곳에 메일을 보내려고 메일을 확인했는데 합격 소식을 듣게 되어서 기뻐고, 바로 집에 전화를 해서 알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기뻐하는 것도 잠시, 곧 강도 높은 사전교육이 진행되었다.

GTP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발표에 있는 만큼, 발표에 대비한 훈련이 있었다. 강사님과 직접 잘 된 TED 강의를 보면서 토의를 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학교 수업에서 발표를 할 때에도 교수님,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해봐야겠다.

또, 국제기구에 제출할 레쥬메와 커버레터 쓰는 법 특강이 있었다. 외국인 강사님의 유머러스한 강의였다. 여기서 얻은 팁을 돌아오자마자 8월 단기 인턴을 위해 쓰게 되어 정말 유용했다.

태국에 대한 강의도 인상적이었다. 태국에서 3년간 근무하신 KOTRA 직원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다. 태국의 역사와 정치 상황 등 생소했던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았다. 관광 코스도 얘기해주셔서 더욱 귀담아 들었다. 이때 하필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태국에서의 일주일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다.

2. 현지 활동

발표 기관 소개

유네스코는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로 이름이 있는 국제기구인데, 실제로는 문화와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크게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 분야를 모두 다루는 기구다.

전 세계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 특히 내전이나 분쟁으로 위협에 처한 지역의 유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며, 교육 수준이 열악한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한국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대왕 문해상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유네스코에는 한국인 직원들도 많았다. 우리가 갔을 때도 다섯



유네스코 건물 앞.

명의 한국인 인턴들이 우리를 반겨 주셔서 놀랐다. 주로 국제학을 전공하신 여사분들이었는데, 유엔 인턴의 경우 (ILO을 제외하고는) 봉급이 주어지지 않아 빠듯하게 살고 계신다고 하셔서 웬지 동질감이 느껴졌다.

발표 주제 및 내용

나는 국제대학원 양혜진 언니와 한 팀이 되었는데, 우리 팀의 발표 주제는 “What can Korean students contribute to the world?”였다. 처음 발표 주제를 접했을 때는 다른 팀들의 주제보다 자유로울 것 같아 보여 좋았지만, 막상 프레젠테이션을 구상하려니 그 자유로움은 막막함이 되었다.

구상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태지역교육원 등의 담당자들에게 여쭙고 또 교수님과 조교님께 조언을 구했다. 그리고 교육, 과학, 문화 중에 문화 파트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국 학생이 세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다.

우리 머리에 떠오른 것은 세계적인 K-POP 열풍이었다. 물론 이것은



나의 파트너인
양혜진 선배의 발표.



유네스코에서
나의 발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큰 성과이지만, 이것이 사회문화적인 영향력 역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것은 유네스코 사업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운 발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K-POP, 그리고 요즘 한국의 대중문화는 특이하게도 한국적인 콘텐츠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가수 2PM의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닉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넓은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걸그룹, 보이그룹의 멤버에 교포, 또는 아예 현지인인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K-POP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샘 해밍턴, 사유리와 같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트렌드는 시장의 수요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만 이것이 역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은 최근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 사회적인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 지금 현재도 특정 지역 출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또 실제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역시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통합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우리보다 훨씬 예전에 다문화 사회로 탈바꿈한 유럽 역시 지금까지도 유혈 갈등을 겪으며 각국의 지도자들이 다문화 실패를 선언했고, 미국 역시 인종갈등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다.

이때 K-POP과 같은 대중문화가 사회 통합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문화는 한국인들도, 외국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문화이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팀은 이처럼 K-POP을 예로, 대중문화가 어떻게 다문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발표 기관 활동

유네스코를 방문해서는 현지 디렉터의 Information Session이 있었고, 한국인 인턴 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간단히 센터를 둘러보고 우리의 발표가 있었다.

김관조 소장님과 끝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해서 진솔한 말씀을 해주셔서 좋았다. 사실 공식적인 정보는 홈페이지, 책자 등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김 소장님의 이야기는 어디

서도 듣지 못할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발표를 끝내고 나니 뿌듯하고 보람있었다.

기관 방문 내용

10개의 국제기구 및 NGO를 방문했는데, 이 중에서 내게 인상적이었던 곳 몇 곳만 골라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먼저, 하는 일이 가장 흥미로웠던 단체는 ANFREL이었다. 오늘날 한국에서 살면서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얻기 힘든 것인가를 느낄 수 있었다. ANFREL은 free election을 위해 사회운동을 펼치는 NGO로써, 동남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정치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 애쓰는 단체다.

ANFREL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Asian democracy의 개념이었다. 개별적인 지역마다 개별적인 정치적인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모든 democracy가 획일화된 형태를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은 서구식 정치 교육을 받고 영미 정치 시스템을 고등학교 때 달달 외우기도 했던 나에게 한 충격이었다.



UNESCAP에서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단체사진.

또 ANFREL에서 좋았던 점은 우리를 반겨주시고 또 열렬한 토론을 펼쳐주셨다는 점이었다. 나중에도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정도로 호의를 베풀어주셔서 감동이 남았다.

그리고 하는 일이 흥미로웠던 기구는 WFP다. The World Bank, UN-ESCAP 등에서는 서류업무, research 업무가 많다고 느낀 반면 WFP는 field work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구호 경험을 듣고 영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또한 한국은 구호를 받는 국가에서 구호를 하는 국가로 바뀐 성공사례인 만큼, 담당자가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한국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또 이를 외국에 적용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우리가 학생이지만 담당자께서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욱 즐거웠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기관은 ESCAP이다. 한국인 선배님들을 많이 뵈 수 있어서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환대도 받았던 것 같다.

현지 교육 및 특강

현지에서는 많은 분들의 발표를 들으며 실제로 발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또 유의미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청중과 engage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학 탐방, 동문의 밤, 네트워크 행사 등 기타 활동

대학 탐방

GTP 방콕 편이 없었다면 아마 Chulalongkorn University를 평생 와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흥미로웠던 대학 탐방이었다.

교복을 입는다는 점이나 졸업식 때 왕으로부터 모두 졸업장을 받는 행



왕궁에서 양혜진 선배와 함께.

사가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았다. 특히 우리 참가자 중에 창섭 오빠가 다음 학기를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보내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게 방문했다. 교수님이 계절 학기에 Chulalongkorn University에서 강의를 하시는 만큼 여기저기 둘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좋았다.

동문의 밤

동문의 밤은 GTP 전체를 통틀어나에게 가장 의미있는 행사였다. 태국에 계시는 서울대학교 선배님들과 방콕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뷔페에서 저녁 시간을 가졌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과 외국에서 사는 삶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선배들께서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고, 앞으로도 여기서 만난 몇 선배님들과 계속 연락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학교에 감사할 따름이다.

해외에서 사는 것은 결혼 생활이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한 선배님도 아들을 한국 대학에 진학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한참이나 저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고등학교 때 비슷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이고, 그 어려움을 돌파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다.

또 한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인생은 길고, 인

생에는 수많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씀이었다. 자신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 보면, 그때의 성적순대로 인생이 잘 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언제든 지 새로운 기회가 패자부활전,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충실히 살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라고 하셨다. 나는 이 말씀에 큰 자신감을 얻었다. 방콕에서 내가 얻은 나름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장 재미있던 기타 활동은 문화체험이었다. 태국이 불교국가인만큼 왕궁과 사원을 둘러보았다. 어마어마한 왕궁의 크기와 그 화려함에 놀랐고, 또 그 가운데 섞여 있는 유머러스한 불상이나 조각의 모습에서 태국인들의 유쾌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가까운 인근도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도 여러 사원을 구경했는데, 한국이나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절의 양식이었다. 여러 가지 모양의 탑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같은 종교여도 지역에 따라 그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느낄 수 있었고, 앙코르 와트에 가진 못했지만 대충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타이 마사지가 마지막 일정이었던 것도 정말 좋았고 감사했다.

3. GTP 방콕 편을 다녀와서

GTP를 통해 느낀 점

국제기구에 대해서

국제기구에 대해서 느낀 점은 정말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조직도 복잡하다는 점이었다. 비슷한 일을 하는 기구도 많았다. 또한 기구 안에서도 행정, 홍보, 인사관리 등 일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요구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말 수십 가지의 길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또 깨달은 것은 국제기구에 대해서 너무 큰 환상을 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국제기구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특히 공적인 분야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일의 분야가 한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김태형 박사님께서도 이를 잘 설명해주셨다. 환경기구인데 수억 원을 국제회의에서 쓰일 책자나 명함을 만드는 데 쓴다든지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가 꼭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정부나 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 또는 각 나라와 각 기업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할 수 없는 일을 국제기구는 담당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제기구에 서 일하는 것은 사명감을 가질 만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한 덕목을 이번 GTP 방콕 편에서 배울 수 있었다.

첫번째는 바로 유연함이다.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만큼 여러 그룹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다. 여러 액센트의 영어를 알아듣는 것만도 일단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두 번째는 사명감일 것 같다. 국제기구에서의 일이 쉽지는 않은 일임이 분명해 보였다. 외국 생활을 해야 하고, 방대한 양의 공부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김태형 선배님도 여전히 매일 아침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하셨다. 이러한 노력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사명감이 필요할 것 같다.

태국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잘 몰랐던 나라, 닉쿤으로만 알고 있던 나라 태국

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좋았다. 나에게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받은 커다란 인상은 ‘온화함’이다. 불교 국가인 탓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모두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고 주문을 받을 때에도 차분해서, 한국인이 보면 답답할 정도로 느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온화함은 관광 국가인 태국에게는 큰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했다.

또 태국에서 발견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태국에서 한국은 한류로 이미 그 위엄이 크다. 첫날 호텔에서 티비를 틀자마자 한국방송, 그것도 나는 한국에서 보지도 않던 케이블 방송 ‘렛미인’이 더빙이 되어 나오고, 언니들과 편의점에 가자마자 슈퍼주니어 규현의 사진과 ‘맛있다’는 문구가 적힌 김과자가 떡하니 있었다. 태국인들은 앞에서 말한 그 느낌, 온화함의 특성상, 어떠한 유행이 쉽게 찾아오지도 않지만 오면 오래 간다고 한다. 아시아 지역 중 한류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 바로 태국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이 태국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대사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한-태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문화적 연결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연결이다.

지금 많은 태국 청년들이 한류에 영감을 받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에서도 태국인들의 경제적 기회가 생겨나야 할 것이다.

방콕에 대해서

방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이다. 마천루들이 아주 많았고, 유흥가 역시 굉장했다. 때문에 어쩌면 서울보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식사를 한 멋진 호텔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수상가옥과 야시장에서 헐벗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또 나의 눈길을 잡은 것은 방콕의 유흥문화였다. 섹스 관광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서울의 어디서도 보지 못한 모습의 유흥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방콕의 성문화가 다른 곳보다는 개방적인 탓도 있을 것이다. 성전환 수술이 흔하고, 또 한국의 피부과, 성형외과처럼 성전환 수술이 거리에서 광고되고 있었다. 성소수자들에게는 방콕이나 동남아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나 이슬람 국가보다는 훨씬 살기에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 성 산업이 발달하고, 또 이것이 개방적인 것을 넘어 퇴폐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는 안타까웠다. (유럽의 중·노년 남자들이 방콕의 유흥가 골목에서 젊은 태국 남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았을 때 솔직한 눈살이 찌뿌러졌다. 한국어 간판을 발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방콕과 태국에 보다 지속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해 보였다.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 상황이 안 좋을 때 떠나게 되어 제대로 준비도 못했고 팀원들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했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예전에 안철수 씨의 강연에서 진로를 설계할 때는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잘하는 일인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인지 세 가지를 고려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세 가지를 국제기구에서의 일에 비추어 보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외국 생활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은 내가 좋아하는 일인 것은 확실하고, 또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인 것도 맞지만, 잘하는 일인지는 아직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단 한국 사회에서 나의 특기를 찾고 경력을 쌓아서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팀워크

먼저, 팀원인 혜진 언니에게는 정말 감사하다. 언니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에 있어서 민폐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언니는 쿨한 성격으로 살갑게 대해주셔서 고마웠다. 또 둘이 머리를 합쳐서 작업한 결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언니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발표 구상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다른 친구들의 몇 코멘트들 때문에 몇 주간 만든 발표가 얹어졌을 때, 언니와 쪽잠을 번갈아 자가며 작업한 기억은 아마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다.

또 GTP에서 앞으로도 계속 만날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비슷한 관심사로 뭉친 만큼 성격도 통하는 것이 많았고, 이야기할 거리도 많았다. 프로그램 특성상 이동시간이 많았는데, 이때 버스에서 이



방콕 시내 전경.

아기를 하도 많이 나눠서 일주일 만났지만 일년 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친해질 수 있었다. 앞으로 비슷한 커리어를 설계할 테니 자주 만나서 교류하고자 한다. 아름 언니랑 ‘코코넛 주스’ 발음 하나로 한참을 웃었던 추억이나 동물 관련 전공인 현우가 해준 돼지 얘기, 태국에서 반 년을 살 것이지만 몇몇 해산물은 입에 대지도 않는 창섭 오빠의 입맛, 한결이와 ESCAP 정원에서 파타야인 것처럼 찍었던 사진 등 많은 추억들은 앞으로도 나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다.

또한 따뜻하고 자상하신 교수님 덕분에 프로그램이 유쾌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다. 물론 은기수 교수님 덕분에 모든 발표 역시 잘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박희영 선생님 덕분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순탄하게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수님과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향후 계획

일단은 내 커리어를 쌓고 관련된 국제기구에 훗날 도전해보려고 한다. 지금은 취업과 로스쿨 중에 고민 중인데, 로스쿨에 간다면 국제법, 특히 국제거래법을 공부해 국제기구에서 법률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

물론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네트워킹일 것이다. 국제기구를 미래 진로의 한 방법으로 열어놓고 있는 만큼, 계속 국제기구 분들과 접촉하면서 진로를 설계해보고자 한다.

글로벌 인턴십 성공 전략

국제기구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장 낮은 직급이나 인턴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네트워킹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보직을 중간에 배치받는 것도 좋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GTP에 대해서는, 너무 알찬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 짝센 프로그램이다. 이 점을 각오하고 많은 친구들이 신청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주신 학교와 교수님,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Presentation Material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FORUM-ASIA
 - ANFREL Foundation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The World Bank
- World Health Organizatio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UNESCO
 - World Food Programme
 - UN Environment Programme



Contents

Presentation Materials

- 0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mpowering Young Workers in Korea” • 244
Chung, Hyewon
- 02** FORUM-ASIA :
“Engaging Asia Youth in Human Rights” • 253
Choi, Woongshik
- 03** ANFREL Foundation:
“Poli-life and Elec-tainment” • 261
Se, Hyerin
- 04**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Railway System for Economic and Green
Growth” • 274
Cho, Hyorim
- 05**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Trade and Environment: Implications for South East Asia”
• 287
Oh, Jooyeon

2013 Summer Global Talent Program *in Bangkok*

06 The World Bank:

“Expanding FTAs & Enhancing High-Tech in Export” • 301

Park, Jeongjoon James and Kang, Areum

07 World Health Organization: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 313

Park, Hyun-woo

08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ntegrative Datab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326

Chang, Changsub

09 UNESCO: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 333

Yang, Hyejin and Hwang, Hyunjung

10 World Food Programme: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 • 352

Bae, Hankyul

11 UN Environment Programme:

“A Current Issue on Aero-Biology & Allergy” • 366

Lee, Seungeun

Empowering Young Workers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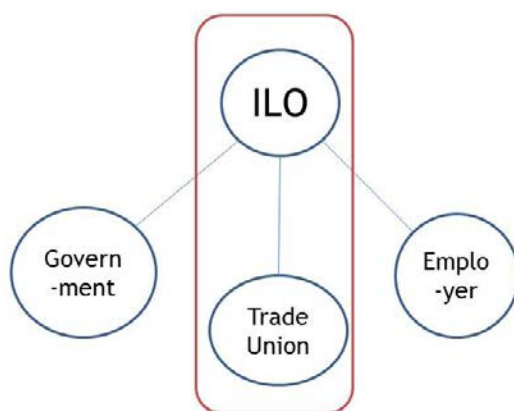
By establishing a *mutually beneficial NETWORK* between ILO and Korea's Youth Community Union

Hyewon V. Chung

Social Welfare Dep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NETWORK

► Youth Community Union (YCU)

- First labour union composed of young workers only
- Union for a specific generation

Contents

MAIN OBJECTIVE |

Empowering Young Workers in Korea



WHY? |

1

MAJOR LABOUR CHALLENGES IN KOREA

- 1.1 Non-reg. SMALL INFLUENCE IN KOREA
- 1.2 Basic labour rights & Youth

HOW? |

2

CREATING NETWORK BETWEEN ILO & Youth Community Union

- 2.1 By establishing a mutually beneficial **network**
- 2.2 Between ILO and Korea's **Youth Community Union (YCU)**
- 2.3 Suggested joint activities

3

CONCLUSION

1 MAJOR LABOUR CHALLENGES IN KOREA

Korea's Economic Success

1960s

1970s

1980s

1990s

2000s

2010s



Aftermath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mpowering Young Workers in Korea"

1 MAJOR LABOUR CHALLENGES IN KOREA

MAIN OBJECTIVE Empowering Young Workers and its influence in Korea
[RECALL]

WHY? | 1 MAJOR LABOUR CHALLENGES IN KOREA

1.1 Non-regular employment & Youth

1.2 Basic labour rights & Youth

HOW? | 2 CREATING NETWORK BETWEEN ILO & Youth Community Union

2.1 Youth Community Union: who are they?

2.2 Mutual Benefits

2.3 Suggested joint activities

3 CONCLUSION

1 MAJOR LABOUR CHALLENGES IN KOREA

1) NON-REGULAR EMPLOYMENT & YOUTH

Boost of number of non-regular works
• Economic crisis of 1997 • Ex.: Legislation of temporary work agencies (1998) • In 2012, 33% non-regular workers • Steady trend of non-regular employment rate: average 37.45% (2002-2012)

Main Issues
• Voluntary vs. Involuntary non-regular workers • Problem of non-regular employment: Discrimination - Salary - Working time - Insurance benefits

International Comparisons
• Temporary employment %* is above OECD average: (2011) 23.8%

1 MAJOR LABOUR CHALLENGES IN KOREA

(2000-2012)

1) NON-REGULAR EMPLOYMENT & YOUTH



Non-regular + Young workers =
VULNERABLE

1 MAJOR LABOUR CHALLENGES IN KOREA

2) BASIC LABOUR RIGHTS & YOUTH

Freedom of Association & Collective Bargaining

- Government Employees Union:
- Migrant Trade Union

Ratification of Conventions: C87 & C98

- Not yet;
- C87: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 C98: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mpowering Young Workers in Korea”

1 MAJOR LABOUR CHALLENGES IN KOREA



- **Young workers, disadvantaged 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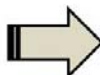


- **YCU: small influence**



Needs empowerment

How to achieve it?



By creating network between ILO and YCU

2 CREATING NETWORK BETWEEN ILO & YOUTH COMMUNITY UNION

MAIN OBJECTIVE Empowering Young Workers and its influence in Korea
[RECALL]

WHY? |

1 MAJOR LABOUR CHALLENGES IN KOREA

- 1.1 Non-regular employment & Youth
- 1.2 Basic labour rights & Youth

HOW? |

2 CREATING NETWORK BETWEEN ILO & Youth Community Union

- 2.1 Youth Community Union: PROFILE
- 2.2 Mutual Benefits
- 2.3 Suggested joint activities

3 CONCLUSION

2 CREATING NETWORK BETWEEN ILO & YOUTH COMMUNITY UNION

YCU: 1. WHAT ACTIVITIES DO THEY DO?

1. Strive for the realization of 'Minimum hourly wage'
 - ✓ Street campaigns
 - ✓ Festivals
- Investigated 600 convenience store and report 66% not paying 'MHW'
- Reported "Franchise Coffee Shops do not pay minimum hourly wage"
- Made 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 to take actions by sending inspectors to convenience stores

2. Established "Seoul Metropolitan City & YCU: Creating Jobs for Young Workers Policy Agreement"

3. Strive for fair universities' tuition fee

4. Investigate actual conditions of Youth Residences

5. Investigate actual conditions of Private Lessons Networking agencies

6. Publish research results of young workers conditions:
Ex.: "Young workers part-time job conditions and problems"



Street campaigns



Festival

2 CREATING NETWORK BETWEEN ILO & YOUTH COMMUNITY UNION

YCU: 2. WHY THEM?

- Worthy to 'invest': future labour rights' advocates of Korea
- Information: youth trends in Korea
- Influence young Koreans
- Networks with other Korean young workers associations
: Seoul Youth Network, Part-time Workers Association, Korea Youth Solidarity, Youth's Green Party Korea
- Voice of young workers in Kore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mpowering Young Workers in Korea"

2 CREATING NETWORK BETWEEN ILO & YOUTH COMMUNITY UNION

YCU: 2. WHY THEM?



S
Strength

W
Weak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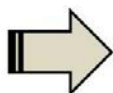
- | | |
|--|--|
| - Name value
- Labour Standards information | -Systematization
-SNS (Instant WOM effects) |
| -Low influence in Korea | -No reputation |

2 CREATING NETWORK BETWEEN ILO & YOUTH COMMUNITY UNION

Mutual Benefits



- Obtains a channel to promote ILO's Labour Standards in Korea
 - Obtains network in Korea
 - Can obtain information about Korea's young workers current situation
-
- Attains empowerment from ILO
 - Obtains more credibility in Korea (with support of ILO)
 - Gets ILO's sources of information / education (?)



Support of ILO to YCU is significant: → Relatively new and small union
Ex.: posting ILO logo in their campaigns

2 CREATING NETWORK BETWEEN ILO & YOUTH COMMUNITY UNION

4. SUGGESTED JOINT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basic labour rights

1. Street Campaigns



2. SNS Publications



3. Research paper Con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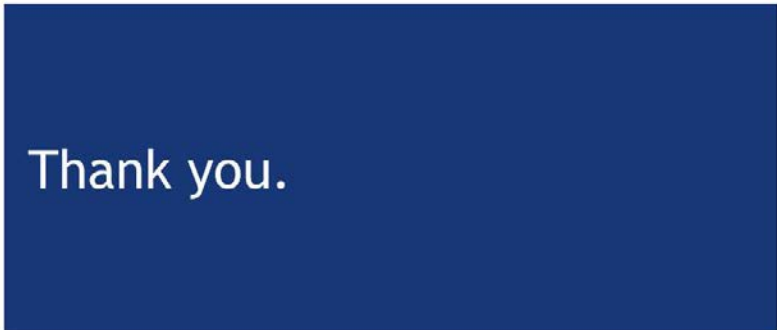
Korea: 76% 12-to-46-year-old internet users: uses social media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3 CONCLUSION

❖ MY WISH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Empowering Young Workers in Korea”



Thank you.

○ **FORUM-ASIA: “Engaging Asian Youth in Human Rights”**

Choi, Woongshik

24 June 2013

FORUM-ASIA, Regional Office,
Bangkok, Thailand

Engaging Asian Youth in Human Rights - A Student's Perspective

Woong Shik CHOI



Master's Candidate in International Law,
Dept. of Law,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1

Contents

- I. Realities of Human Rights in Asia
- II. Two ways to Engage Youth in Human Rights
 - 1. HRBA to Volunteering
 - 2. Establishing a 'Youth Forum'
- III. Conclusion

2

I. Realities of Human Rights in Asia

3

Lack of Interest despite prevalent Human Rights Violations

- Ignorance and lack of interest in human rights situations in Asia among the youth
-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prevalent in everyday life across Asia:
 - Human trafficking, sex tourism in SE Asia
(Cf. legalized prostitution, demand side of prostitution)
- “East Asian Community” ?
 - But huge disparities between the North (NE Asia) and the South (SE Asia)

4

Low Perceptions of Human Rights among South Koreans

- 2011 Survey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 Q. "To what extent do you think is the NHRCK currently contributing to the Asia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 A.
 - "Contributing to some extent": 16.4%
 - "Almost none": 39.1%
 - "Contribution is insufficient": 78.7%

5

Possible Reasons for Lack of Interest and Engagement

- Depictions of Asian human rights reflected in the Korean media:
 - Human rights in the DPRK (DPRK refugees): most dominant discourse on human rights
 - But still yielded to more 'imminent' matters/agendas of 'serious' nature: regional security, nationalistic rivalry, territorial disputes
 - Media/press coverage, TV documentaries on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e.g., MBC "W"): contributing in introducing various culture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but often superficial and oversimplified
- Politicization, skepticism, negative views
- In general, ignorant of existen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s (of human rights in general)
- Thus,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raising awareness

6

II. Two ways to Engage Youth in Human Rights

1. HRBA to Volunteering:
2. Establishing a ‘Youth Forum’

7

Expansion of Overseas Volunteer Projects in South Korea

- Aid Receiving Country → Donor Country
- Growing interests among the youth in overseas volunteering activities (development projects, humanitarian relief, etc.)
e.g., World Friends Korea (2009~2013: twenty thousand)
- Volunteering being one of the most direct ways of engaging in human rights on the field: youth being the key actor

8

Problems with Volunteer Programs

- Various reasons for volunteering
-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helping vs. harming (long-term effects)
- Lack of (genuine) motivation, lack of sensibility
- Insufficient preparation/education before departure
- Various actors/interests involved: volunteers (students, activists), organizers (NGOs, government, schools), funding/sponsorship by business sectors, partnerships, country of destination
- Advertising Korea (disseminating Korean culture) ?
- Concerned with “National Brand”, “National Image”

9

HRBA (Human Right Based Approach) to Volunteering

- Beyond altruism, philanthropy, charity, donation
- Needs-based Approach vs. Rights-based Approach
- Deeper analysis/understanding in poverty, inequalities, structural factors lead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 Mutual understanding on an equal footing with local people
- Helping, giving, donating vs. empowering
- One-way vs. two-ways
- one time event vs. durable & on-going efforts (follow-up)

Source: Materials from the Human Rights Forum 'Overseas Volunteering Activities' and 'Human Rights', hosted by the SNU Human Rights Center (May 2013)

10

Suggestion 1: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Materials on ‘HRBA to Volunteering’ for Asian Youth

- Specifically targeted at Asian youth volunteering abroad (from Asia to Asia)
- In collaboration with FORUM-ASIA's NGO Members from sending/receiving countries
- Regional/local-specific guidelines and educational materials from on-site resources, preparatory programs/review sessions
- Cf. KHIS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medy Procedure (Intensive Training Program) (2012)

11

2. Forming a ‘Youth Forum’

12

Suggestion 2: Forming a 'Youth Forum'

- **If politicians and governments don't act, then (at least) the youth should take the initiative !**
- Building a network/community among interns, volunteers, students and others from FORUM-ASIA's NGO Members
- Providing a platform for exchanging experiences, ideas, views among youth
- Organizing joint projects for youth such as field trips/research studies in/on Asian regions
- Forming a 'Youth East Asia Summit' within the EAS (East Asia Summit)
 - mainstreaming human rights agendas
 - formulating (own) recommendations and conveying them to the respective head of governments

13

Great Potential in Asian Youth

- Expected outcomes:
 - Facilitating exchange at the sub-regional levels (NE Asia & SE Asia)
 - Engaging youth from S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Southern region
 - Publicity *via* social media (SNS)
 - Youth being (relatively) more open-minded, expose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more receptive of diverse cultures (less nationalistic?)
- Addressing regional issues pertinent to Asia: migration, multicultural societies (tackling xenophobia), human trafficking, 'fair/good travel' in the Asian region
- Combining various initiatives related to human rights: e.g. good/fair (alternative) travel with human rights campaigning/education
- Cf. Hosting regional human rights events/competitions for Asian students: e.g. Asian Human Rights Moot Court
 - Provides youth with strong motivation

14

III. Conclusion

- Building a ‘Youth East Asian Community’ among volunteers, interns, students and others who are committed to human rights
- Raising awareness and promoting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situations in Asia (mobilizing urgent appeal procedures to the UN, policy recommendations from the youth community)
- Ultimately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15

QnA / Comment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16

○ ANFREL Foundation: “Poli-life and Elec-tainment”

Seo, Hyerin

25th Jun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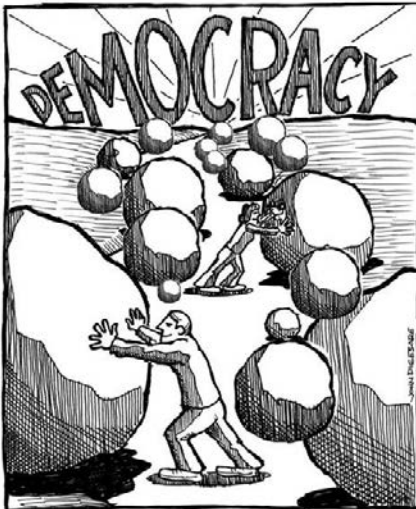
ANFREL

Poli-life and Elec-tainment

Way to Activate Civil Society and Youth Participation

Hye-Rin S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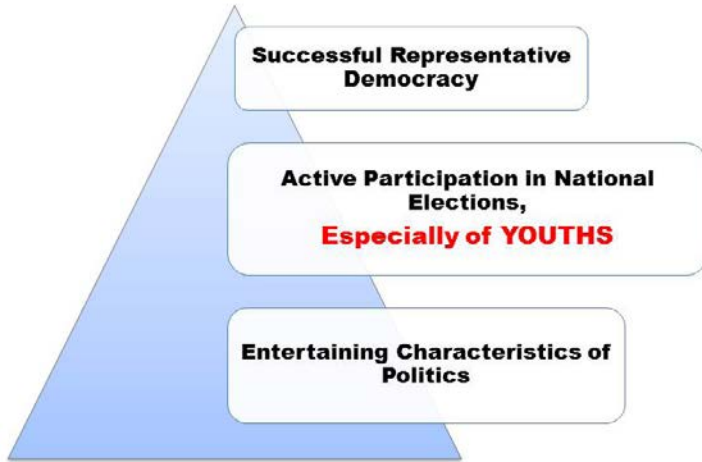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 ANFREL Foundation: "Poli-life and Elec-tainment"



Main Point



Contents

- **Online Communities and Civil Society**
 - Expansion of size
 - Actions of Entertainment
 - Lead to Elections
 - New Form of Public Sphere
- **Role of Social Network Services**
 - Expansion of Influence
 - Certification of Votes
 - Powerful Twitterians
- **Implications to World**
 - Keep Pace With Global Politics
 - Political Window for Modern Citizens

Civil Communities On-line

1. Expansion of Size

Name	Members	Characteristics
DC inside	Uncountable (200,000 visitors a day)	• Conservative • First starter of political parodies • 70,150 postings during election
Daum Agora	About 10 million	• Progressive • First starter of candlelight vigils in 2008
ILOVESOCCER	About 1.2 million	• Moderate • Active debate about parties' faults

More than **15 million** online communities with **19 million** members (2009)

2. Actions of Entertainment



Stroller Troops



Monday Politics Salon



3. Lead to Elections



유시민
SSH



Siminism for You Si-Min



Nickname of 'OPPA'

Captain Owl for Lee Hae-Chan



Runway Project

4. Emergence of New Public Sphere

- Jürgen Habermas' Public Sphere

"a discursive space in which individuals and groups congregate to discuss matters of mutual interest and, where possible, to reach a common judgment."

✓ Issue-Orien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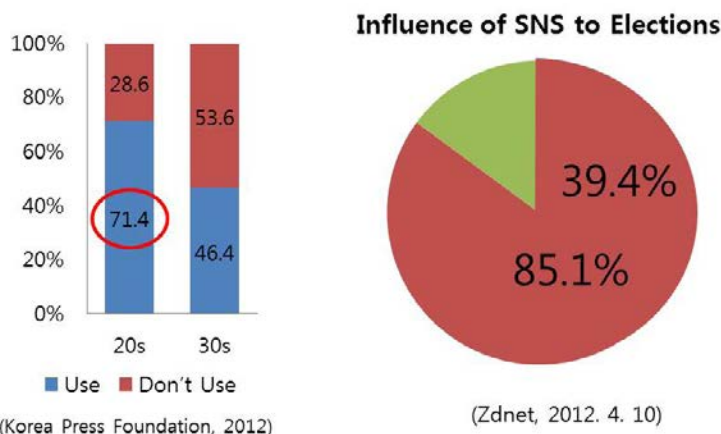
Communities for
Entertainment



Public Sphere for
Political Deliberation

Power of Social Network Services

1. Expansion of SNS



2. Certification of Vote



테마동물ZooZoo

12월19일

Vote and Get Discount

투표하면 할인받고 기부까지

12월 19일 투표 인증사진을 찍고 ZooZoo-동물원을 방문하신 분에게 3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할인금액 30%는 2명당 1인당 15%로 적용되며, 1인당 15%로만 제공됩니다.



For the Person Who Chose the Future of Korea



3. Power Twitterians of Political Issues

Rank	Name	Number of Followers
1	You Shi-Min	405,077
2	Park Won-Soon	361,363
3	Jeong Bong-Joo	315,657
4	Lee Jeong-Hee	203,258
5	Ban Ki-Moon	180,600

Lee Hyo-Lee



Lee Oi-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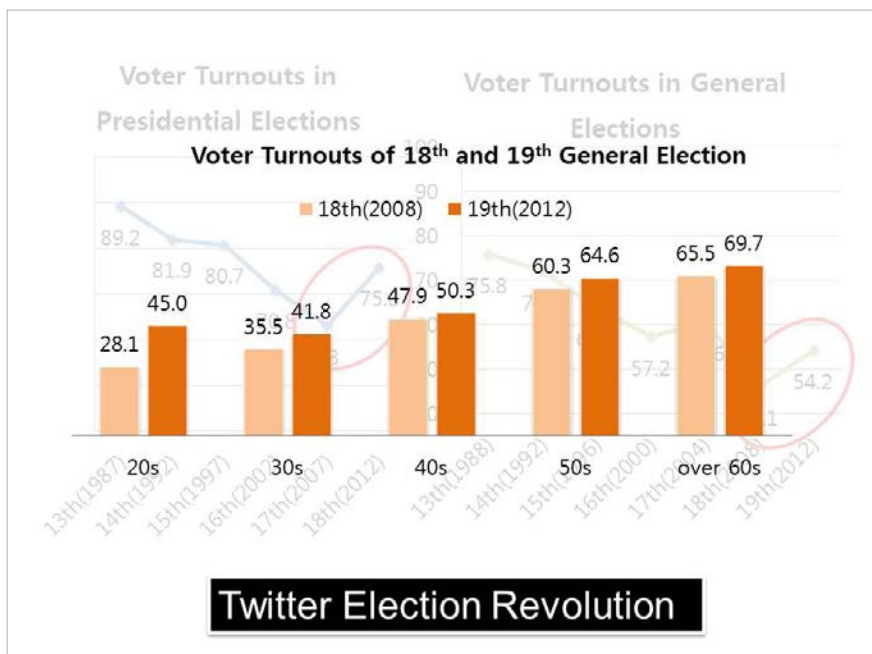


Kong Ji-Young



Kim Je-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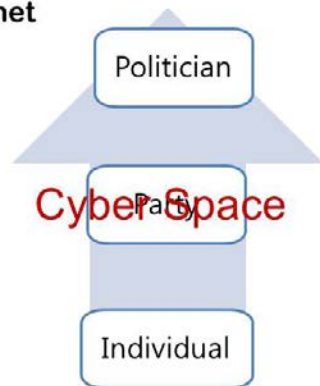
● ANFREL Foundation: "Poli-life and Elec-tainment"



Implications

1. Global Change

- Weakening of Political Parties
- Expansion of Individualism
- Development and Spread of Internet



Amalgamation of private and public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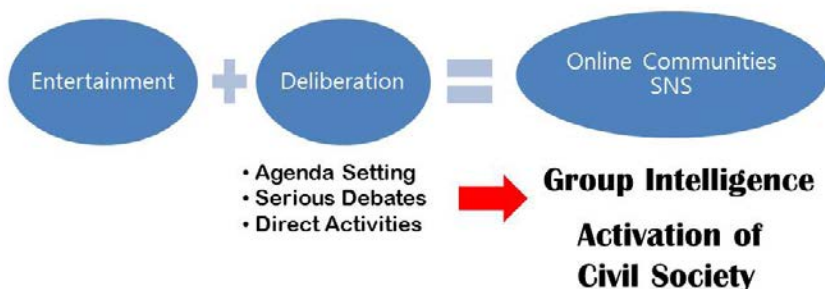


Without Professional Knowledge
but with Personal Interest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of Mass

2. Participation of Entertainment



Opening the New Window of Meaningful Political Participation for the Youths in 21^c Democracies

Johan Huizinga

**“The idea of seriousness excludes play, whereas the
idea of play can very well be taken seriously”**

Thank You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Railway System for Economic and Green Growth”
Cho, Hyorim

UNESCAP

Regional Railway System for Economic and Green Growth

Hyorim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Status and Outlook

Advantages of Railway

1. Cost and Time Advantage

2. Social Cost Advantage

- Environmental Cost

3. Domestic Economic Growth

-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 Case Study

Innovation and Cooperation

- Conclusion

Status & Trend

Increasing inter-country railway projects

Turkey – Marmaray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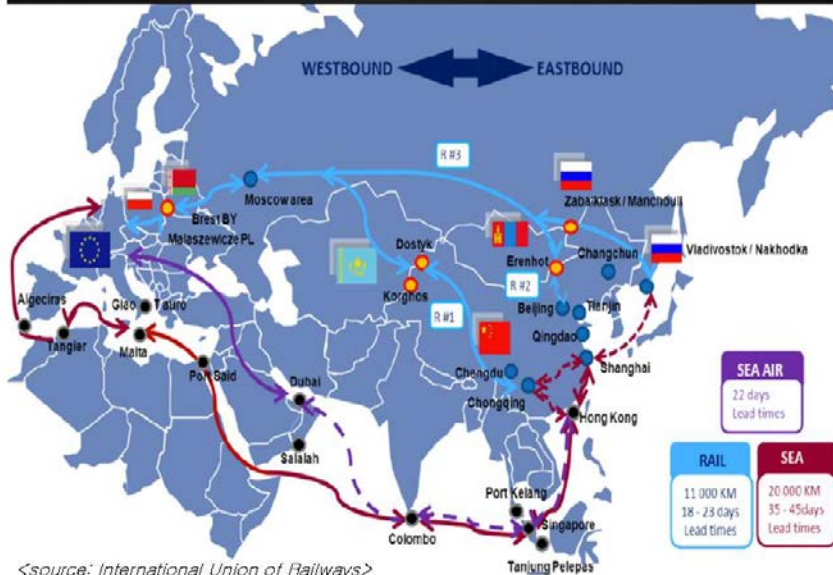
Austria-Switzerland

Finland-Sweden (Barents Area) - Norway

Railway for Sustainable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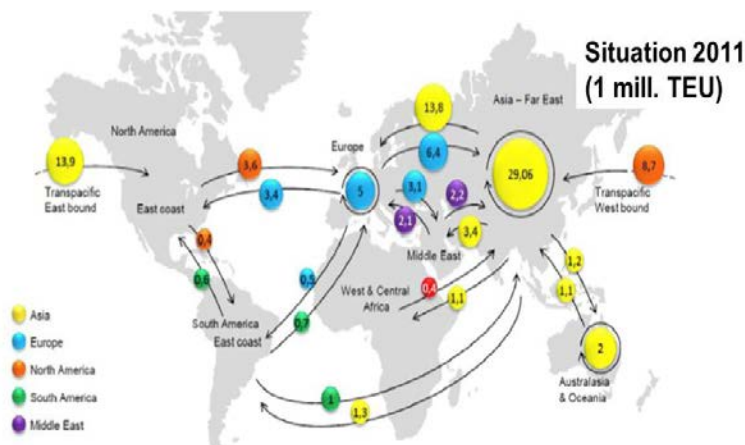
Greater Copenhagen Area (Green Transport)

Current Regional & Continental Transportation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Railway System for Economic and Green Growth”

Interest for transcontinental rail development



<source: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Outlook of Railway

Glob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needs (OECD)
(USD bill.)

Maritime		Aggregate investment		
Worldwide	2009-2015	2015-2030		
Total	200	630		
Air		Aggregate investment		
Worldwide	2009-2015	2015-2030		
Total	400	1,800		
Rail		Aggregate investment		
Worldwide	2009-2015	2015-2030		
Total	920	4,060		

<Source: OECD and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Reduces Transaction Cost



Transfer Cost between transportations
(Door-to-Door transfer)

Road + Rail = \$0.25/ton*time

Road + Maritime = \$1.25/ton*time

Cost:

$\frac{1}{6} \sim \frac{1}{8}$ of Road Transaction

$\frac{1}{3}$ of Maritime Transaction

Time:

2 times faster than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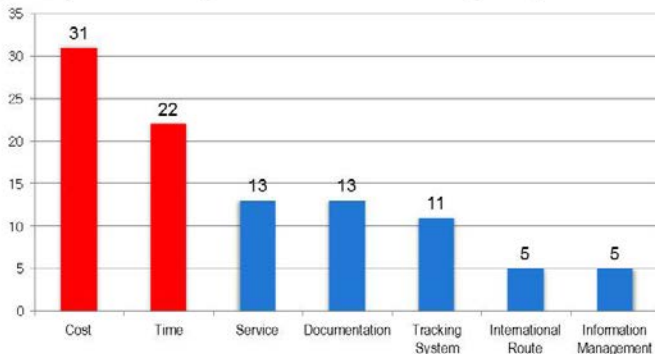
10 days faster than Maritime (14~16 note (28km/h))

<Source: 2003-8 Increasing Regional Railway Strategy,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Reduces Transaction Cost



Survey: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choosing transportation me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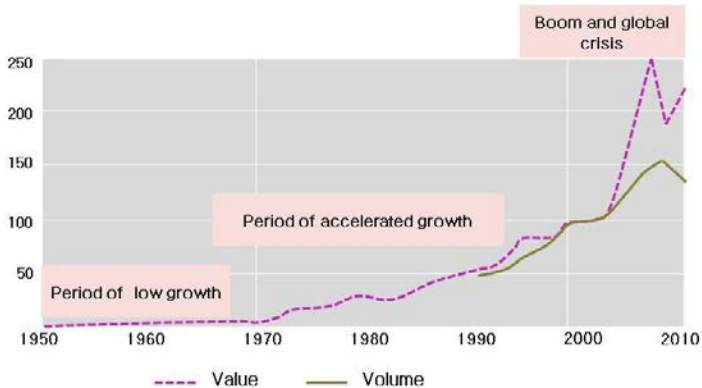
<UNESCAP, Development of Asia-Europe Rail Container Transport Through Block-Trains, 1999.>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Railway System for Economic and Green Growth”

Trend of Global Trade

Long-term trends in value and volume of merchandise exports,
195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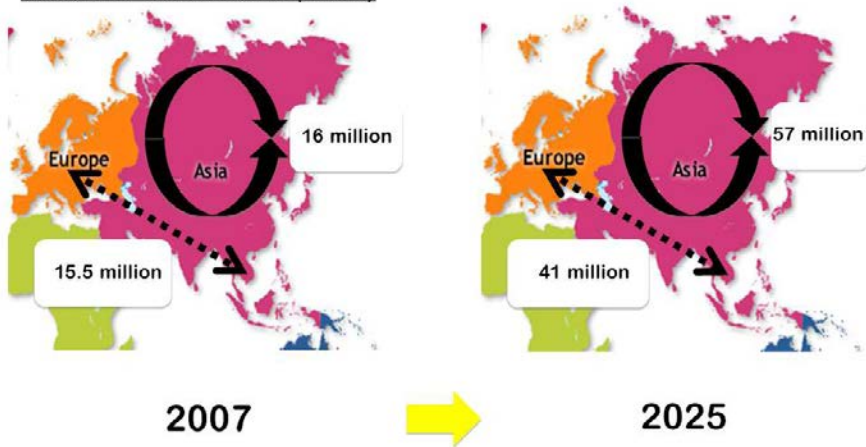
(Index numbers, 2000=100)



Source : UNCTAD secretariat calculations, base on UNCTAD stat and CPB Netherlands Bureau of Economic Policy Analysis, World trad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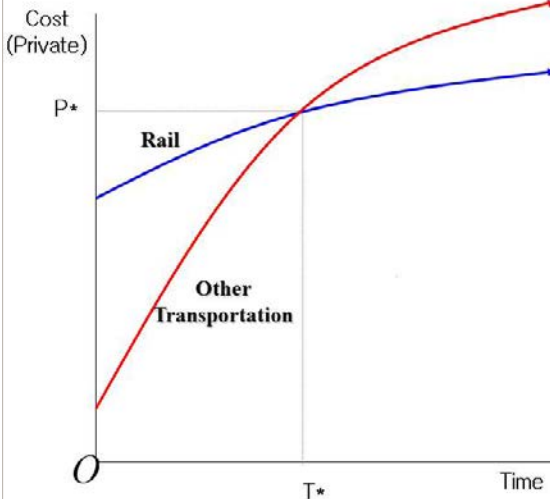
Inter-country Container Traffic

Container Traffic flows (TEUs)



<source: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Time-Cost Benefit of Rail



High Fixed Cost
Low Variable Cost
Economies of Scale

Long Distance
Low cost/ Quantity
High amount/ transaction

Long-term perspective
Economically
Best Option

Reduces Social Cost

Hanemann Utility Difference Model

Korea (2005)

$$WTP^T = \frac{1}{b} \ln[1 + \exp(a)]$$

Estimated Social Cost	Monthly Avg. (Won)	Annual Avg. (Won)	Total (1 mil. Won)
	2,253	27,035	432,240
	1,409	16,906	270,291
	967	11,605	185,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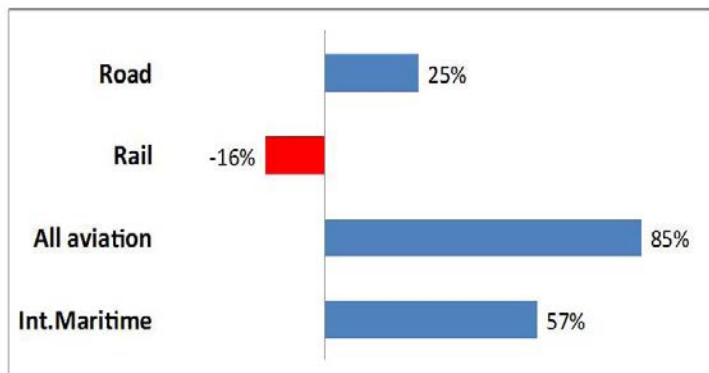
<A Study on the Estimation and Comparison of Social Logistics Costs between the Main Transportation>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Railway System for Economic and Green Growth"

Reduces Social Cost: Environment

Total CO2 Emissions (Mt) by Regional and % Growth by Sector (1990-2007) OECD/ITF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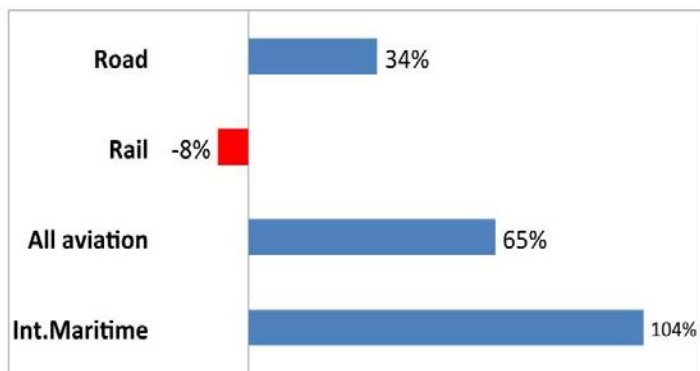


Source: data from (IEA, 2009)

Reduces Social Cost: Environment

Total CO2 Emissions (Mt) by Regional and % Growth by Sector (1990-2007) OECD/ITF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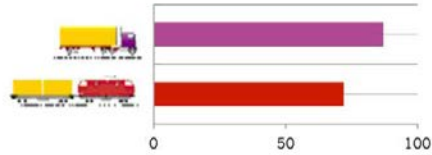
Source: data from (IEA, 2009)

Case Study: Polzug GmbH (Po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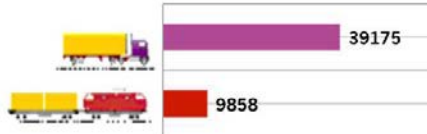
Source: European International Association



Total costs(%) one way



Total emissions (tons of CO₂ eq / year)



Railway: **Cost Advantage**
Reduction of **CO₂ Emission**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of affordable transport is part and parcel of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martya Sen,
Professor, Economics and Philosophy,
Harvard University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2013 annual meeting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Railway System for Economic and Green Growth”

Stimulation for Domestic Economy



To Build
Inter-country Rail



Need for
Domestic Rail

Economic
Growth

Consumption

Employment

Investment

Social Overhead Capital (SOC) Investment

SOC investment
\$1bill.

17,000
Employment

Investment
0.52% ↑

Consumption
0.08p% ↑

Annual Economic Growth 0.1% ↑

<Source: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8>

Social Overhead Capital (SOC) Investment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Rail Construction: 2.327

Road Construction: 2.072

Airport Construction: 2.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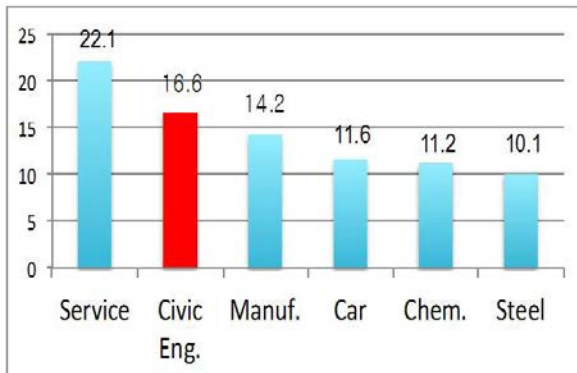
Harbor Construction: 1.949

<Source: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8>

Social Overhead Capital (SOC) Investment

Labor Inducement coefficients:

16.6ppl/\$100mill



<Source: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08>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Railway System for Economic and Green Growth”

Case Study: UK Crossrail & Turkey Marmaray Project

UK crossrail : South-East – London

80,000 additional j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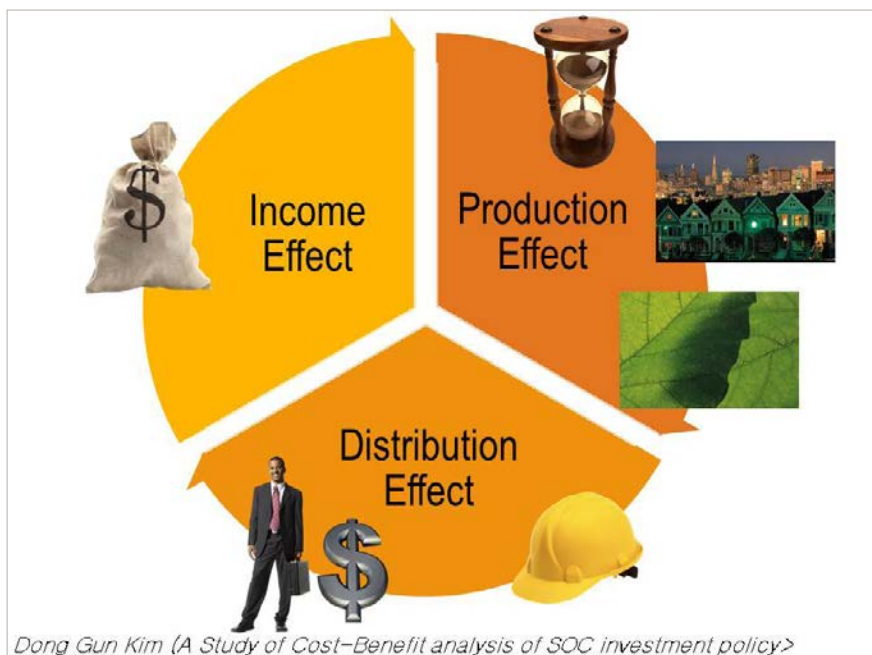
40,000 people attracted to regeneration areas

Turkey Marmaray Project

\$260 billion investment made

Economic IRR (Internal Rate of Return) 13.4%

10 yrs, extra total investment of \$20 billion exp.





Innovation and Cooperation

- Technology
 - Extend the length of train
 - Increasing efficiency in transfer facilities
 - Travel more distance per day
 - High-speed Train
- Cooperation
 - Gov. – Gov.
 - Strategic policy sharing
 - Second-hand Railway and Trails
 - Gov. – Private Sector
 - Funding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Railway System for Economic and Green Growth”



Thank You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Trade and Environment" Oh, Jooyeon

Trade and Environment : Implications for South East Asia

Jooyeon Oh
M.A. Candidate of Internation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Contents

Does trade affect environmental 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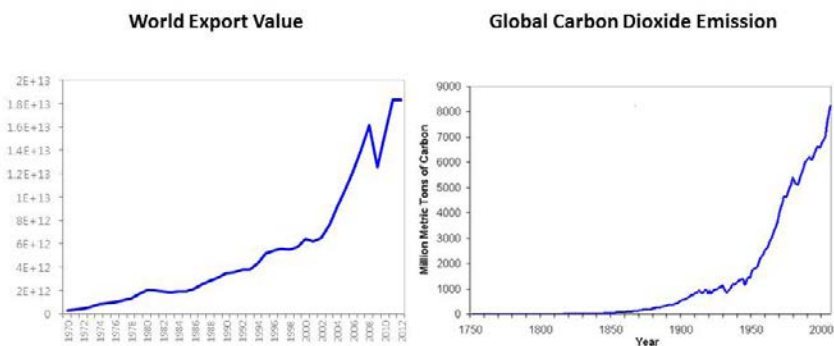
If so, how can developing countries prevent from becoming a pollution haven?

- 1 Environmental Kuznets Curve
- 2 Three Effects of Economic Growth
- 3 Factor Endowment Hypothesis
- 4 Pollution Haven Hypothesis
- 5 Implications for South East Asian countries

2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Trade and Environment”

1.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Sources: WTO

Sources: Carbon Dioxide Information Analysis Center,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201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Energy Outlook (20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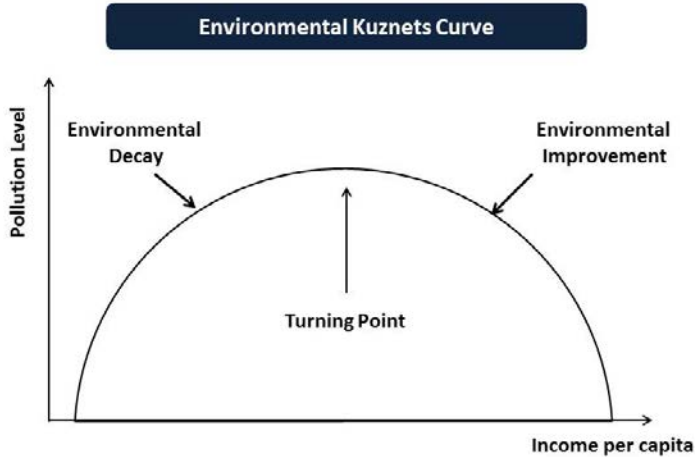
1.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Grossman and Krueger (1991)



4

1.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5

1.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KC)

Year: 1980-1997

Sample: OECD countries

Dependent variable: 6 air pollutants + 4 water pollutants

	OECD countries' Emission									
Pollutant	NOx	SO ₂	CO	SPM	VOC	CO ₂	BOD	Dissolved Oxygen	Nitrates	Phosphorous
Income (+)	✓	✓	✓	✓	✓	✓	✓	✓	✓	✓
Income ² (-)	✓	✓	✓	✓	✓	✓	✓	✓	✓	✓
Peak Point	\$17,675	\$7,621	\$24,744	\$8,650	\$42,216	\$63,771	\$7,034	\$6,514	\$32,504	\$10,436

✓: Signific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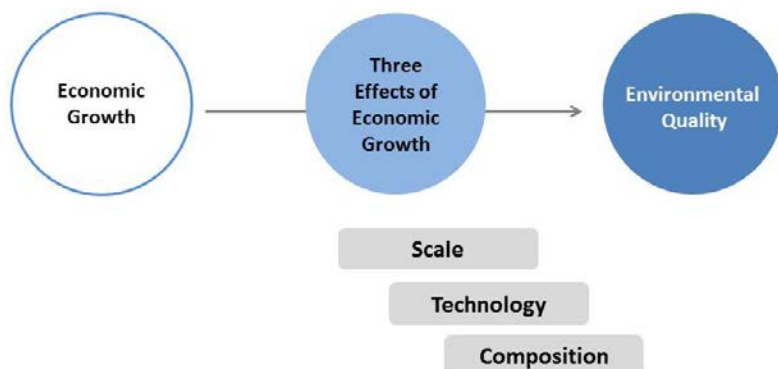
Inverted U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Pollution level

Source: Trade, the pollution haven hypothesis and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xamining the linkages, Cole (200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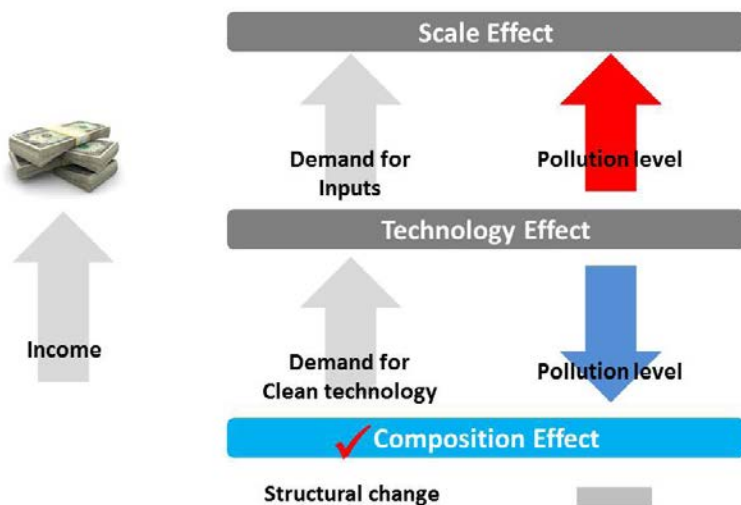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Trade and Environment”

2. Three Effects of Income growth



7

2. Three Effects of Income growth



8

2. Significance of Composition effect (Structural Change) on Environmental Quality

Year: 1980-1997

Sample: OECD countries

Dependent variable: 6 air pollutants + 4 water pollutants

Pollutant	OECD countries' Emission									
	NOx	SO ₂	CO	SPM	VOC	CO ₂	BOD	Dissolved Oxygen	Nitrates	Phosphorous
% of Manu. in GNP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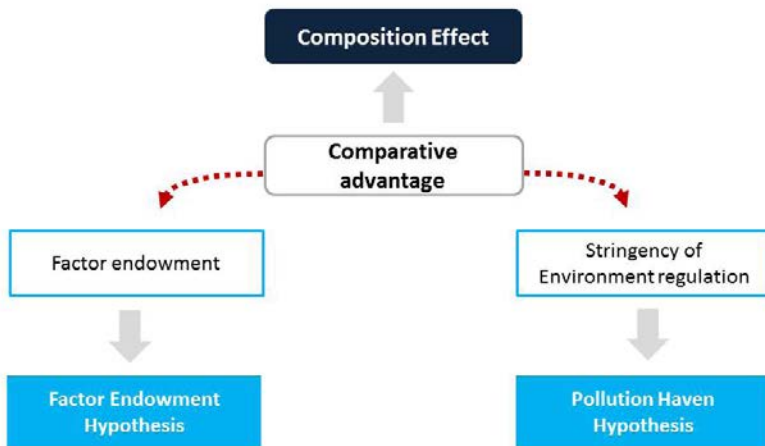
✓: Significant

Structural changes within economy is partly responsible for decline in pollution levels at high income level countries

Source: Trade, the pollution haven hypothesis and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xamining the linkages, Cole (2003)

9

2. What determines Composition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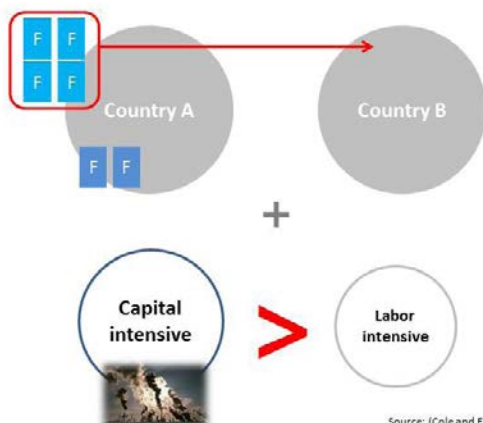


10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Trade and Environment"

3. Factor Endowment Hypothesis (FEH)

Hecksher-Ohlin Theory



Source: (Cole and Elliott, in press) (Antweiler et al., 200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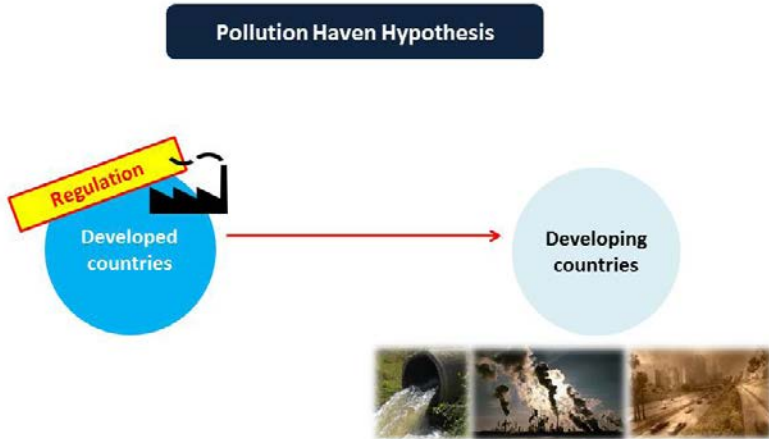
3. Factor Endowment Hypothesis (FEH)

Factor Endowment Hypothesis



12

4. Pollution Haven Hypothesis (PHH)



13

3. Factor Endowment Hypothesis (FEH)

Year: 1971-1996
 Sample: 44 countries
 Dependent variable: SO₂ concentration

Pollutant	SO ₂ concentration
Capital to labor ratio relative to world (+)	✓
(Capital to labor ratio relative to world) ² (-)	✓

✓: Significant

Capital abundant country opens market → country becomes dirty
Capital scarce country opens market → country becomes clean

Source: Is free trade good for the environment?, Antweiler, Copeland, and Taylor (1998)

14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Trade and Environment”

4. Pollution Haven Hypothesis (PHH)

Year: 1980-1997

Sample: OECD countries

Dependent variable: 6 air pollutants + 4 water pollutants

Pollutant	OECD countries' Emission									
	NOx	SO2	CO	SPM	VOC	CO2	BOD	Dissolved Oxygen	Nitrates	Phosphorous
% Dirty Export (+)		✓	✓		✓	✓	✓	✓	✓	✓
% Dirty Import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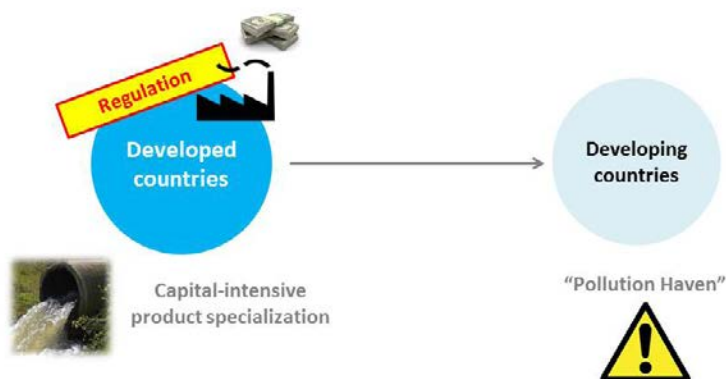
✓: Significant

In developed countries...
Increase in dirty export → Higher pollution level
Increase in dirty import → Lower pollution level

Source: Trade, the pollution haven hypothesis and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examining the linkages, Cole (2003)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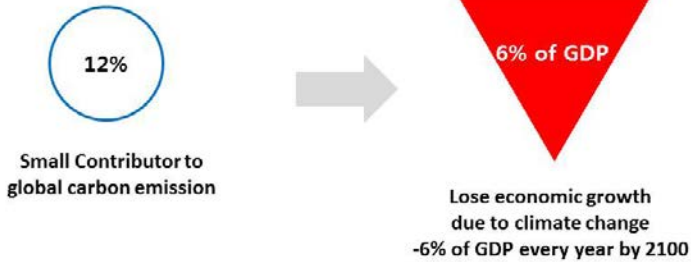
4. Considering Theories in Time series



16

5. Is this a significant issue to South East Asia?

Vulnerability of South East Asia



Source: ADB

17

5. Does Composition effect affect ASEAN pollution level?

Year: 1970-2001

Sample: ASEAN 5 countries

Dependent variable: CO₂ emission

	CO ₂ emission				
Country	Malaysia	Thailand	Indonesia	Singapore	Philippines
GNI per capita	✓			✓	
Manufacturing Value Added	✓	✓	✓	✓	✓
Foreign Direct Investment	✓	✓	✓		✓

✓: Significant

Economic structure significant on GHG emission

Sourc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Pollution in Five ASEAN Nations, In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Yasmine Merican et al. (2007)

18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Trade and Environment”

5. AS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reasing trend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ASEAN

19

5. ASEAN Environmental Regulati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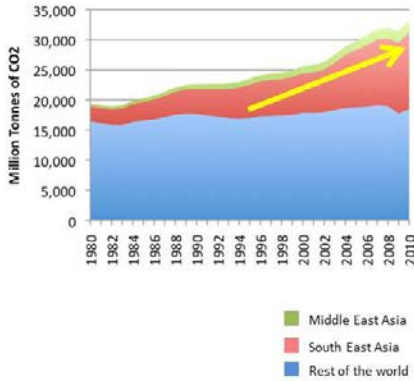
Rank	Country	ESI	Rank	Country	ESI	Rank	Country	ESI
1	Malaysia	54.0	4	Cambodia	50.1	7	Philippines	42.3
2	Myanmar	52.8	5	Thailand	49.7	8	Viet Nam	42.3
3	Laos	52.4	6	Indonesia	48.8			

Sour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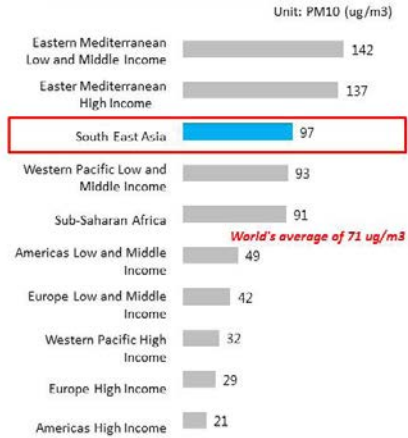
20

5. ASEAN Environmental Quality

ASEAN-5 CO₂ Emissions



Outdoor Air Pollution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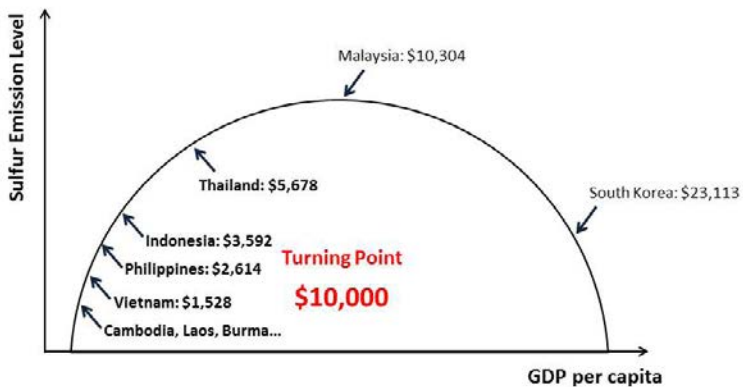


Source: WHO

21

5. Current Status of South East Asia

Inevitability of Pollution Rise in South East Asia



Countries: Indonesia; Japan; Malaysia; Republic of Korea; Thailand; Viet Nam; and Taiwan, Province of China.

Source: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in Asia, Asia-Pacific Development Journal, Hiroyuki Taguchi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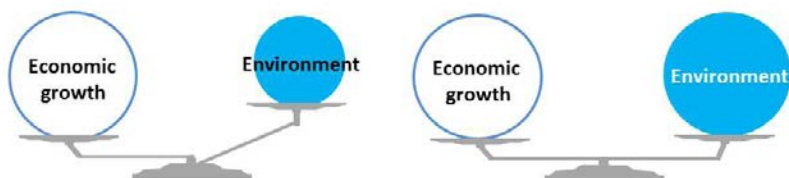
22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Trade and Environment”

5. Implications for South East Asia

*Inevitability of Pollution Rise in
South East Asia*

*But.. We can lower the extent
of potential pollution level*



23

5. Preventing ASEAN from becoming a pollution haven

1 | No 'Race to bottom'

- No Beauty Contest
- Pollution control cost is only 2% of total cost
- Improve domestic capacity

24

5. Preventing ASEAN from becoming a pollution haven

2 | Take advantage of global movement

- Reputation of MNEs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llows emission-reduction projects in developing countries to earn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credits

25

5. Preventing ASEAN from becoming a pollution ha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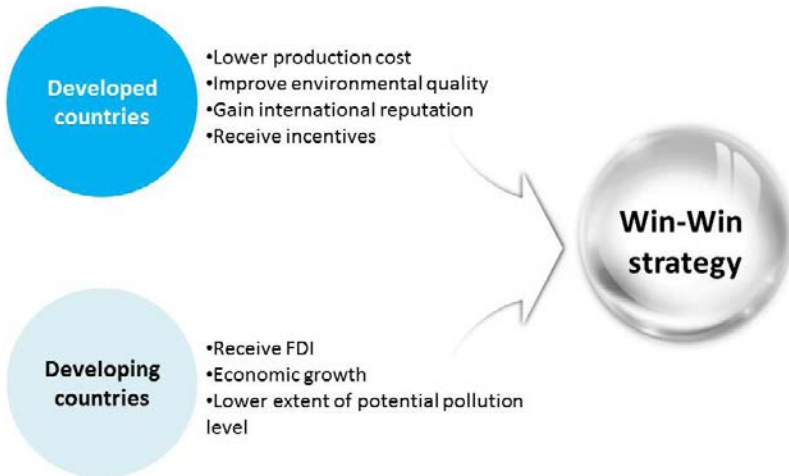
3 | Selective incentive to firms with clean technology

- Incentive: Subsidy/ tariff reduction to firms with clean technology
- Motivation is necessary to corporate

26

●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Trade and Environment”

5. Implications on South East Asia



27

Thank you



28

○ **The World Bank: “Expanding FTAs & Enhancing High-Tech in Export”** Park, Jeongjoon James and Kang, Areum

The World Bank,
Bangkok, Thailand
June 26, 2013



Expanding FTAs & Enhancing High-Tech in Export

- What Thailand can learn from Korea's experience
in moving towards high income country -

Jeongjoon James Park

M.A. Candidate in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Commerce Maj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um Kang

B.A. Candidate in
Linguist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conomic Growth Rate

Economic Growth Rate of Thailand by GDP

Year	Growth Rate (Korea)
2006	5.1% (5.2%)
2007	5.0% (5.1%)
2008	2.5% (2.3%)
2009	- 2.3% (0.3%)
2010	7.8% (6.3%)
2011	0.1% (3.7%)
2012	6.5% (2.0%)

Sources: Bank of Thailand, Statistics Korea (KOSTAT),
Office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 The World Bank: “Expanding FTAs & Enhancing High-Tech in Export”

Current Position

Ranking by GDP (nominal) in 2011

Rank	Country	GDP (million of US\$)
1	United States	14,991,300
2	China	7,318,499
3	Japan	5,867,154
4	Germany	3,600,833
...	...	...
15	South Korea	1,116,247
...	...	...
29	Thailand	345,649

Source: The World Bank

Contents

- Current Position
- South Korea as a right example
- Expansion of **Trade**
- Enhancement of **Education**
- Summary

Common F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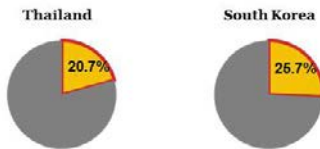
- Similar Economic Strategy: Export-oriented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Thailand	128.7%
South Korea	92.3%

Source: Metro Seoul 200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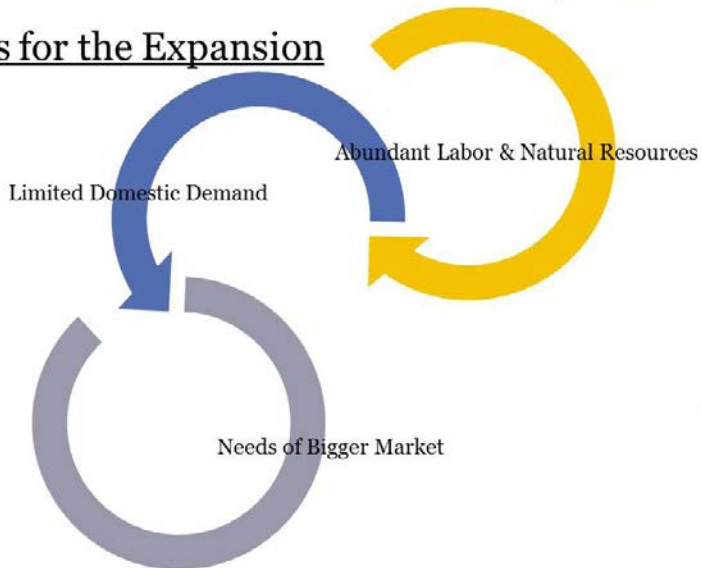
- Needs for High-Level Academics and Skilled Labors for High Technology Development

<High-technology Exports (% of manufactured exports)>



Source: The World Bank

Needs for the Expansion



● The World Bank: "Expanding FTAs & Enhancing High-Tech in Export"

Needs for the Expansion

Category	Thailand	South Korea
Export	226.16 B	548.2 B
Import	217.82 B	520.5 B
Revenue	8.34 B	27.7 B

Source: Metro Seoul 200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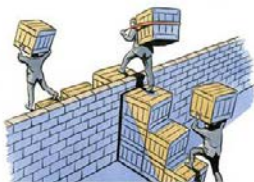
More Export ↑ + Less Import Expenditure ↓ = Greater Trade Revenue ↑



Free Trade Agreements (FTAs)

Thailand	South Korea
New Zealand (CEP)	ASEAN (10)
Peru	EFTA (4)
Australia	India
ASEAN (10)	Chile
Japan (EPA)	Singapore
China	EU (27)
South Korea	Peru
	The United States
	Turkey
	Colombia
15 partners	48 partners

Source: FTA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Thailand, KITA



Expected Effects from FTAs

Reform

- Reform of domestic systems and current FTA utilization

Investment

- Possibilit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Development

- Development in domestic firms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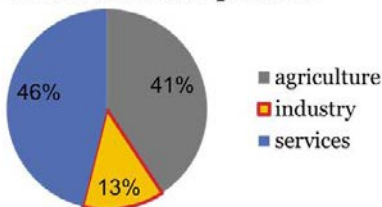


Current Situations of Thai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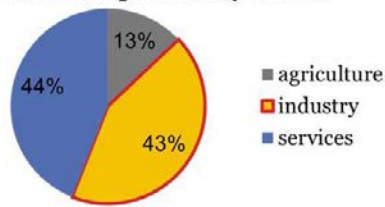
Needs for
Skilled Labor

High-Tech
Exports

<Labor Force Composition>



<GDP Composition by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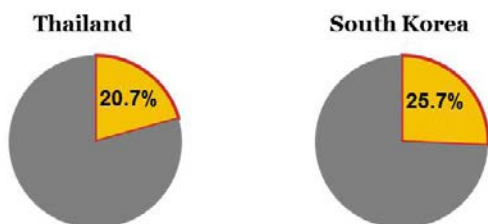
Source: CIA World Factbook, 2012

● The World Bank: “Expanding FTAs & Enhancing High-Tech in Export”

Current Situations of Thailand



<High-technology Exports (% of manufactured ex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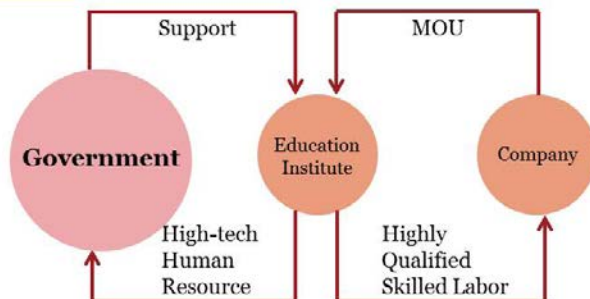
Source: The World Bank

Two Cases to be Introduced

	University Educ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Meister High School
Education Stage	Post-secondary	Secondary
Starting Age	20	17
Content	Education & Research	Education & Training
	High-technology Studies	High-technology Tools & Drills
Characteristics	Academic	Practical
Government Support	100%	100%

University Educ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 Meister High School

Model



Two Cases to be Introduced

	University Educ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Meister High School
Education Stage	Post-secondary	Secondary
Starting Age	20	17
Content	Education & Research	Education & Training
	High-technology Studies	High-technology Tools & Drills
Characteristics	Academic	Practical
Government Support	100%	100%

● The World Bank: "Expanding FTAs & Enhancing High-Tech in Export"

University Educ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Private

KAIST

Government



Company: POSCO

University Educ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uilt in 1971**
- **Research-oriented Departments**
- **Active Recruit of World-famous Scholars**
-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 : The Association of East Asian Research Universities (AEARU)
 - The Asian Science and Technology Pioneering Institutes of Research and Education (ASPIRE) League

University Educ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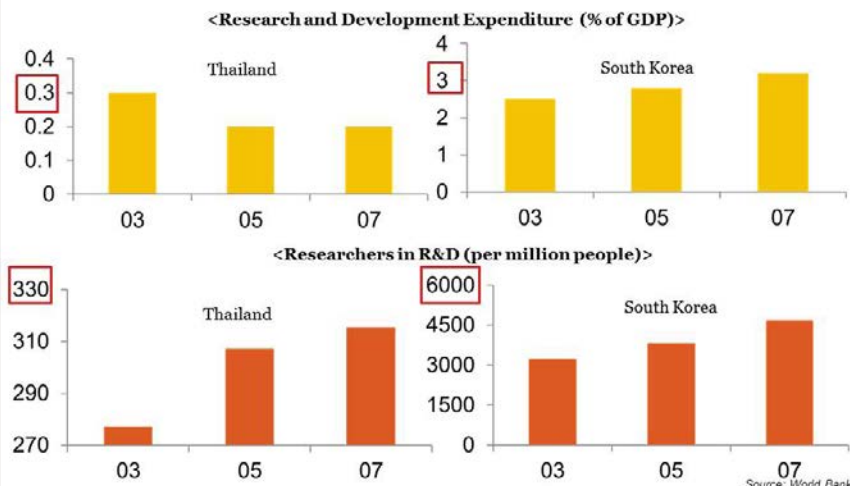
College of Engineering	College of Information Science & Technology
-Mechanical Engineering -Aerospace Engineering -Ocean systems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Engineering -Biochemical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Nuclear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Industry and System Engineering -Information Service Engineering -Industrial Design Engineering



- Building Research Centers
- Involvement in Collaborative Studies
- Investment for R & D
- Investment for High-value Labor Force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y Educ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 The World Bank: “Expanding FTAs & Enhancing High-Tech in Export”

Two Cases to be Introduced

	University Educ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Meister High School
Education Stage	Post-secondary	Secondary
Starting Age	20	17
Content	Education & Research	Education & Training
	High-technology Studies	High-technology Tools & Drills
Characteristics	Academic	Practical
Government Support	100%	100%

Meister High School



“Meister High School”

: High schools customized to industrial needs

—Regulations for primary-secondary education act, section 90

Cultivation of Skilled Lab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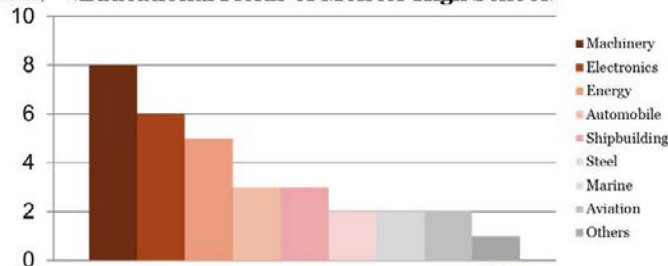
- Skilled labors need long time to educate.
- Industries for 21st century require skilled labors.

Failure of Previous Vocational Education

- Previous vocational school system is of low-quality.
- Education and training are separated.

Meister High School

(Number) <Educational Fields of Meister High School>



New Media, Mobile, Bio Industry, Semiconductor, Medical Machinery, Shipment, Robot, Petrochemistry, Precision Manufacturing, Eco-Friendly Agriculture, Fishery, Horse

Source: Meister High School Webpage, www.meister.co.kr

Meister High School



Kyungbuk Mechanical Engineering High School

<Com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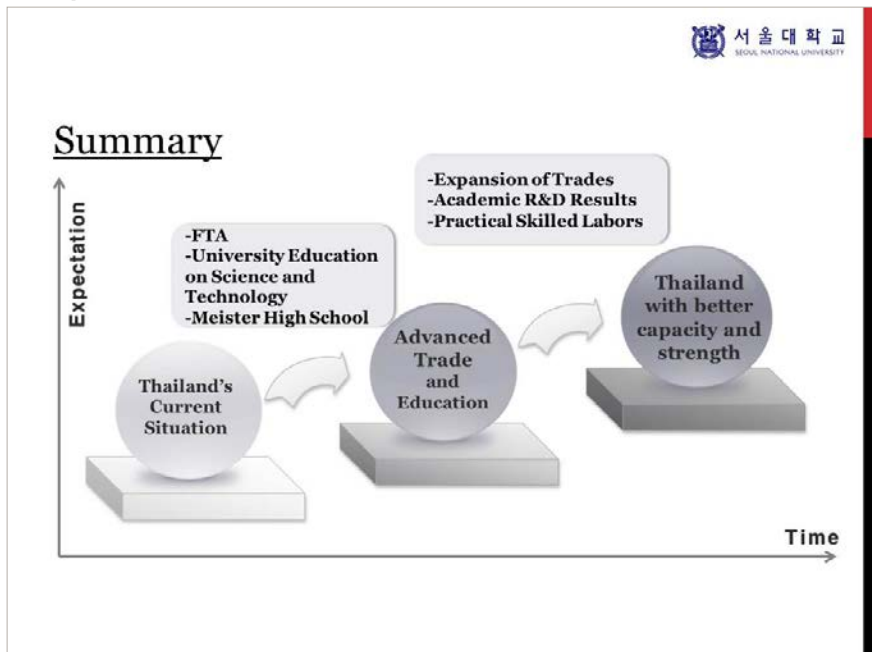
	Machinery				Mechatronics		
	Machinery Design	Precision Machinery	Mold Production	Metal Processing	Automatic System	Electricity Control	Electronic Engineering
Class	2	2	2	2	2	2	3
Student	40	40	40	40	40	40	60

<MOU>

- Opportunities of on-the-job training
- Advice for career path
- Involvement in developing curriculum and books



● The World Bank: “Expanding FTAs & Enhancing High-Tech in Export”



○ World Health Organization: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Park, Hyun-woo



World Health
Organization

26 June, 2013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Hyun-woo Park

B.A Candidate for Animal Biotechnology,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Objective

History &
Current Status



**H7N9 is not
a global threat.**

Drug &
Vaccine



**But we still need
solutions for AI.**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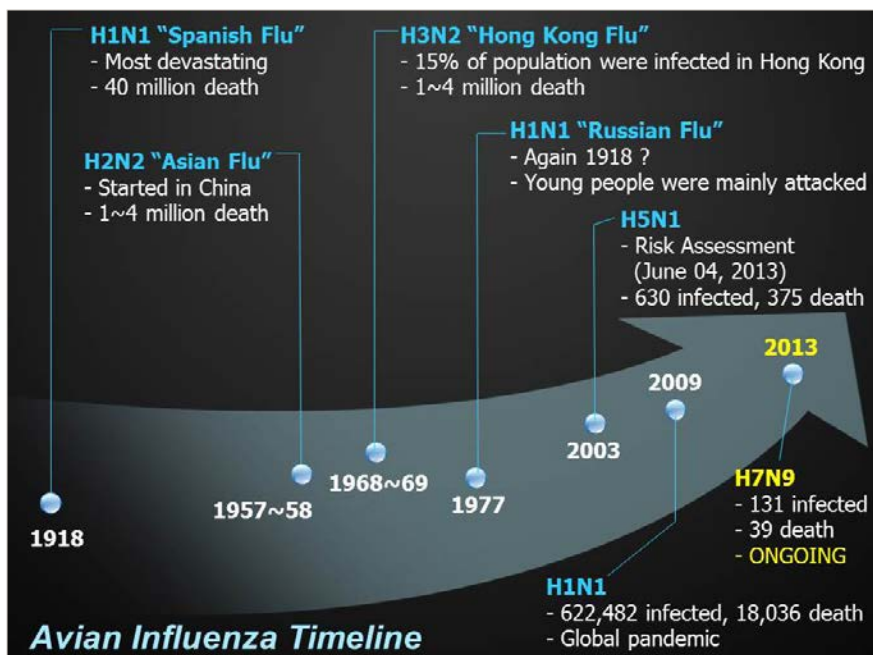
Contents

Q1.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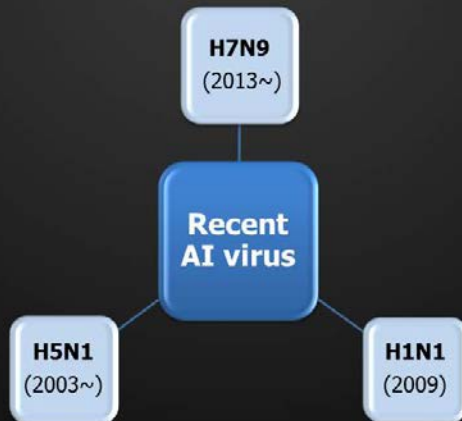
- • Historical Aspect
- • Current Status

Q2. Any possible solutions for AI?

- • Treatment Aspect
- • Prevention Asp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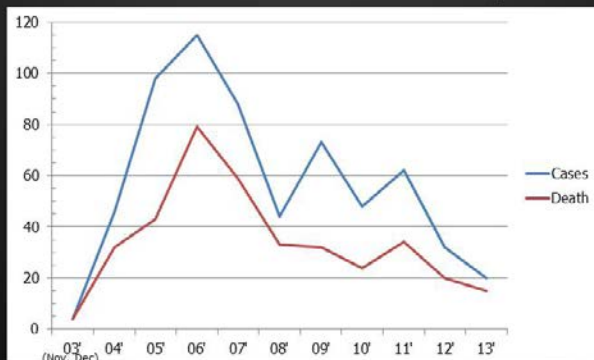
Global threat?



Historical Aspect: H5N1

H5N1 Status: 04 June, 2013

Total 630 cases, 375 death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 World Health Organization: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Historical Aspect: H1N1

Pandemic (H1N1) Status: 22 July,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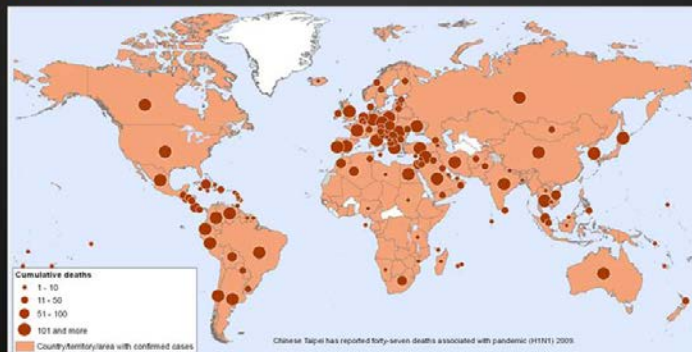


© WHO 2009. All rights reserved.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Historical Aspect: H1N1

Pandemic (H1N1) Status: 15 August, 2010



© WHO 2010. All rights reserved.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Historical Aspect: Comparison

Category	H5N1 (2003~)	H1N1 (2009)	H7N9 (2013~)
Duration			
Origin			
Infected			
Death			
Fatality			
Vaccine			
Transmissible			
Characteristic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Historical Aspect: Comparison

FIRST 3 MONTHS...

H7N9: 132 infected
 39 death
 79 recovered (~07 Jun, 2013)
 14 in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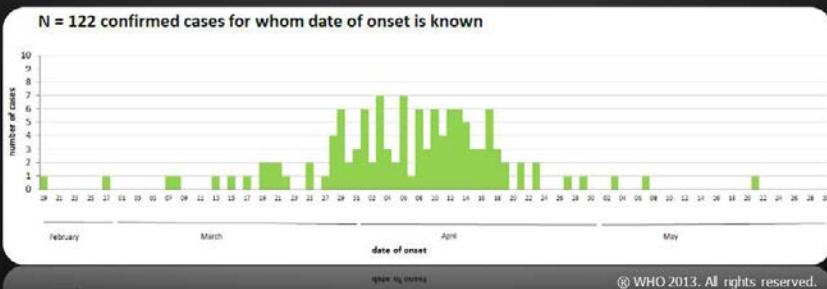
H5N1: 4 infected / 4 death (~31 Dec, 2003)

H1N1: 134503 infected / 816 death (~24 Jul, 2009)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 World Health Organization: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Current Status of H7N9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Current Status of H7N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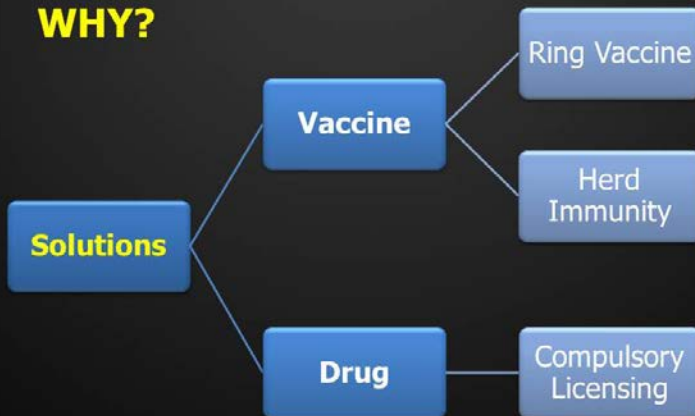
- ✓ Only 14 people are in hospital
- ✓ Last infected case: May 21, 2013 (6-year-old boy)
- ✓ Chinese poultry market is in recovery phase
- ✓ Source of infection has been identified & controlled
- ✓ Chinese Authorities: Ended emergency response plan

H7N9 is not a global th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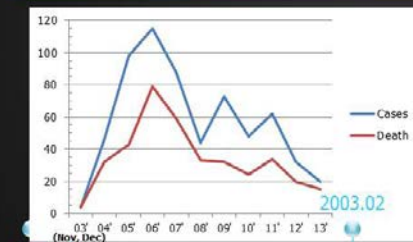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Possible Solutions

WHY?



Why do we need sol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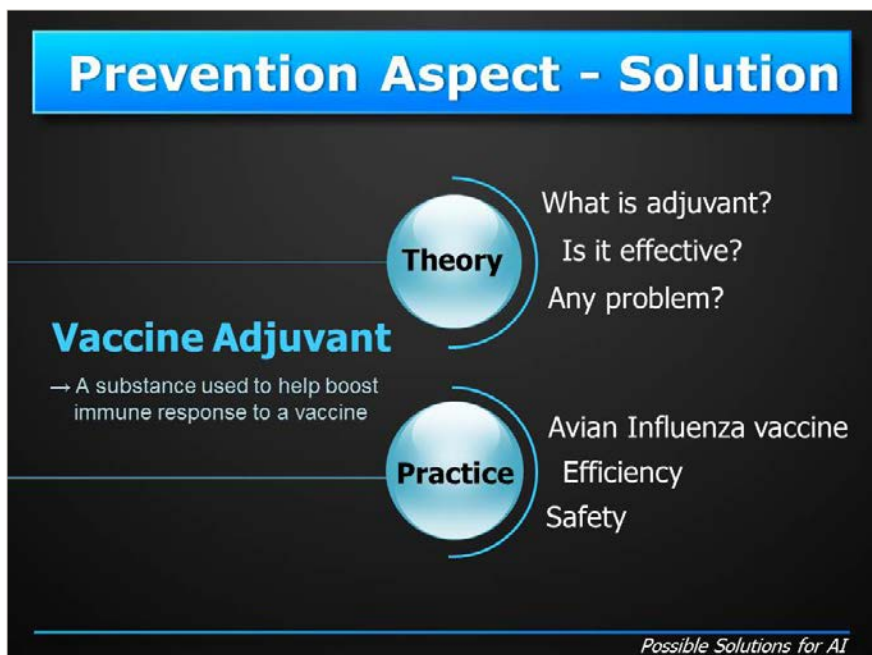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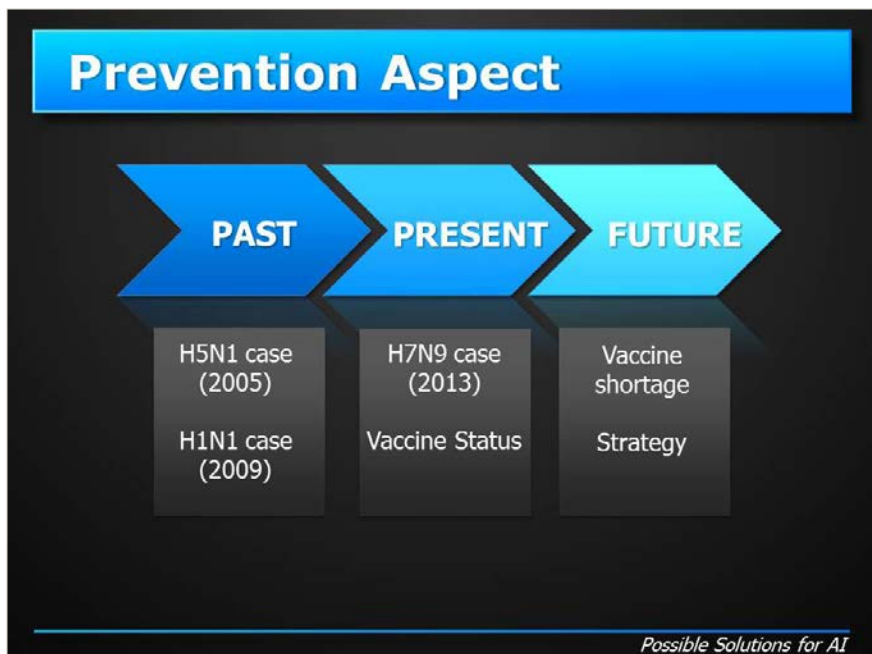
1996

2003.02
2 human cases, 1 fa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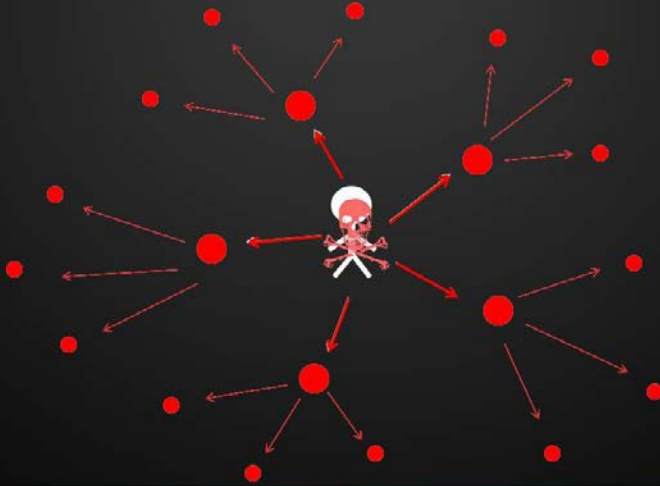
Highly pathogenic H5N1 outbreak from poultry
18 human cases, 6 fatal

Possible Solutions for AI

● World Health Organization: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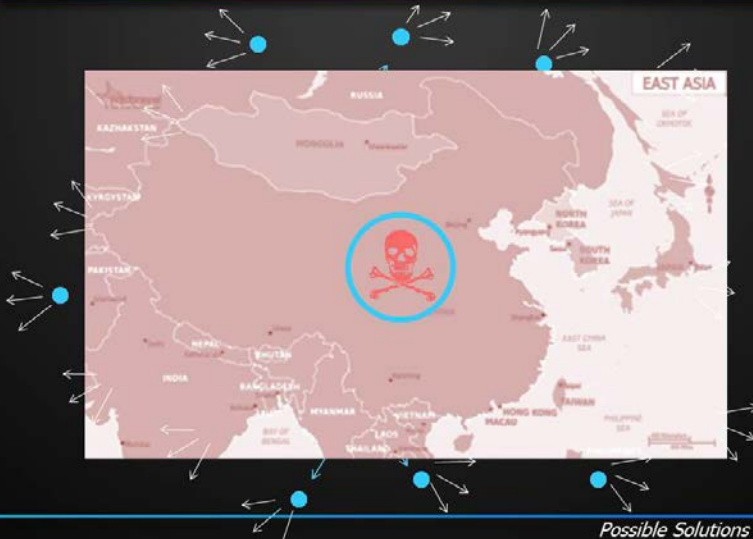


Prevention Aspect – Solution



Possible Solutions for AI

Prevention Aspect – Solution



Possible Solutions for AI

- World Health Organization: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Prevention Aspect – Solution



Possible Solutions for AI

Prevention Aspect –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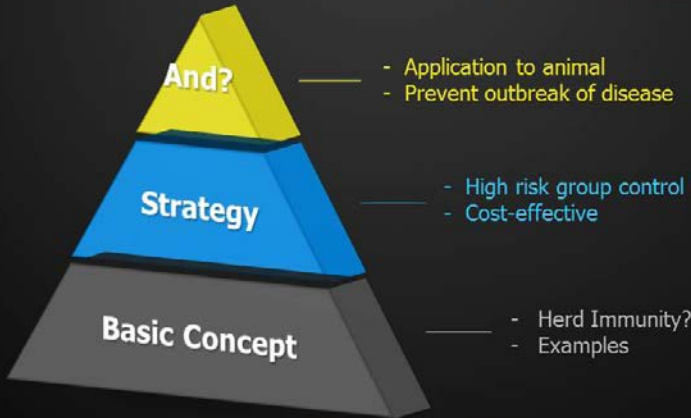
Ring Vaccine



Possible Solutions for AI

Prevention Aspect - Solution

Herd Immunity



Possible Solutions for AI

Treatment Aspect



Problem of PATENT

Possible Solutions for AI

- World Health Organization: "H7N9, Is This a Global Threat?"

Treatment Aspect - Solution

Q. How to solve patent problem?

A1. Wait until patent expire → **Passive solution**

A2. Minimize infection (vaccine) → **Still need drugs**

A3. Voluntary Licensing → **Ideal, but unrealistic**

A4. Compulsory Licensing

Possible Solutions for AI

Treatment Aspect - Solution

Difficulties of compulsory licensing in developing nations

To take effect

TRIPs

Actual problems

To produce drugs

Poor facilities

Low productivity

High demand

To import drugs

Parallel import

Regulation

High cost

Possible Solutions for AI

Summary

History &
Current Status



**H7N9 is not
a global threat.**

Drug &
Vac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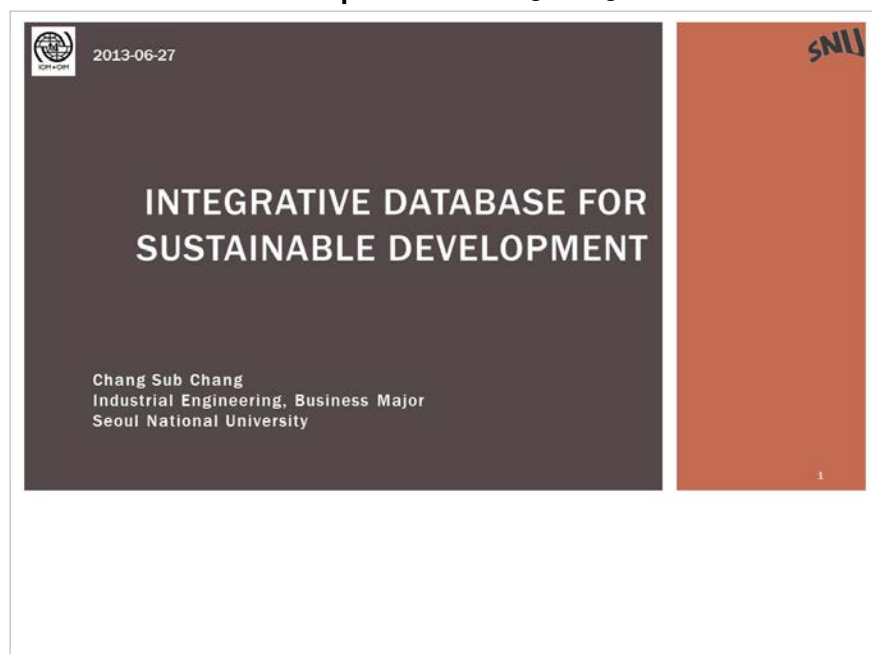
**But we still need
solutions for AI.**

THANK YOU!

Hyun-woo Park

B.A Candidate for Animal Biotechnology,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ntegrative Datab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ng, Chang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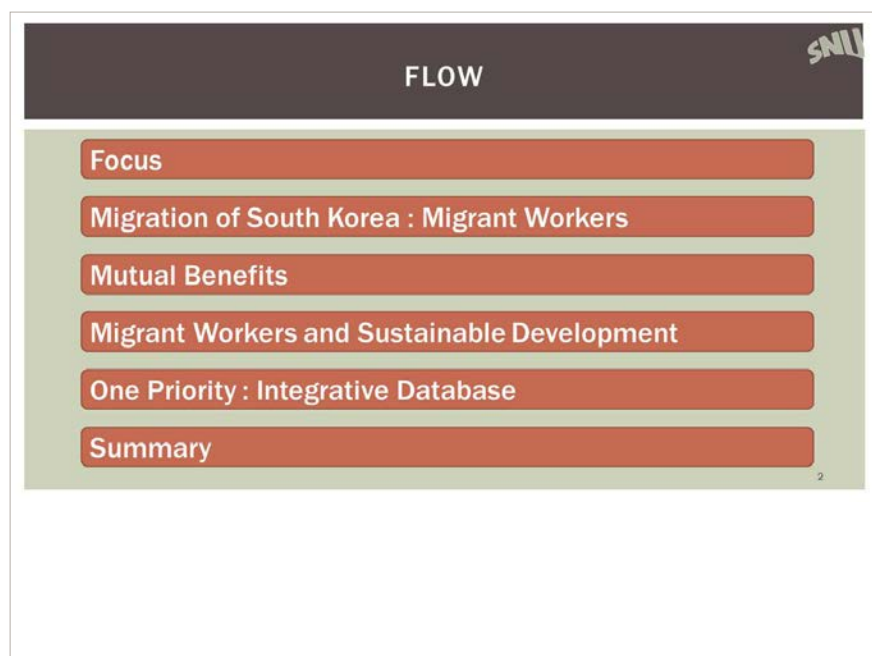
 2013-06-27

INTEGRATIVE DATAB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ng Sub Chang
Industrial Engineering, Business Maj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NLU

1



FLOW

- Focus
- Migration of South Korea : Migrant Workers
- Mutual Benefits
- Migrant Worker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One Priority : Integrative Database
- Summary

SNLU

2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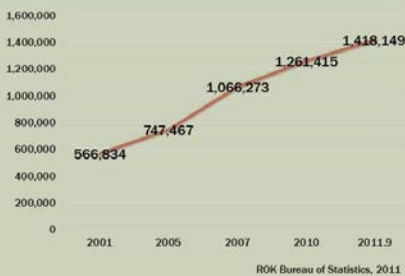
Outline **some of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mig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dentify **one priority** moving forward to ensur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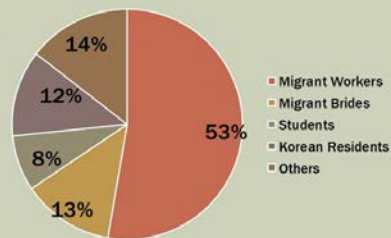
3

SOUTH KOREAN MIGRANT WORKERS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Migr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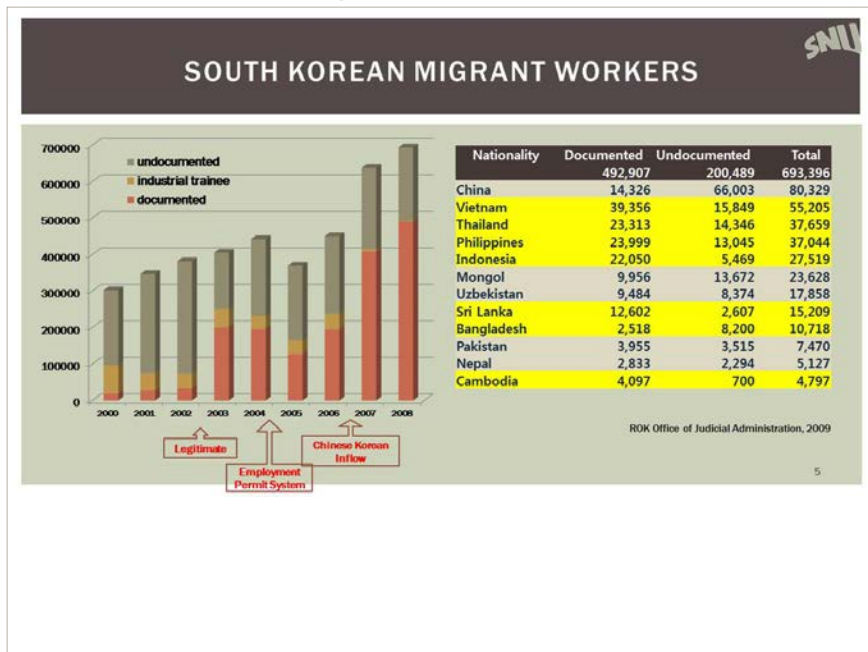


Various Kinds of Migrants



4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ntegrative Datab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UTH KOREAN MIGRANT WORKERS (CURRENT)

Situation

- Bound number of working years(5 years max)
 - Going back to home countries
 - Left undocumented/to the other countries
- Short-term profit focused system
 - Re-training migrant workers whenever they come
 - Not proper job in home countries

Problem

- Job Discontinuity
- Brain drain
- Inefficiency from repetitive skills training
- Job mismatch

Low Sustainability

7

CURRENT MUTUAL BENEFITS

Sending countries : South-east Asian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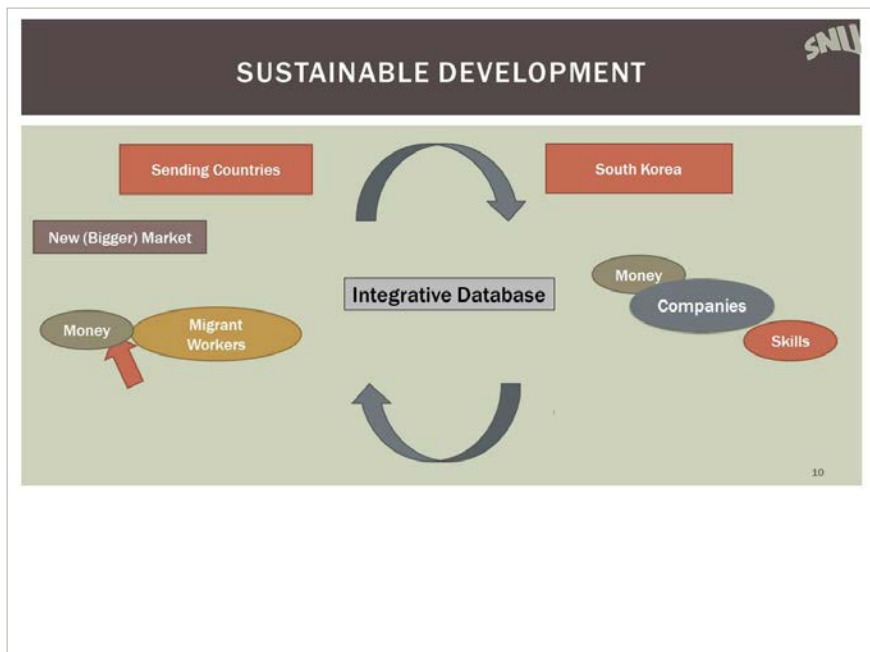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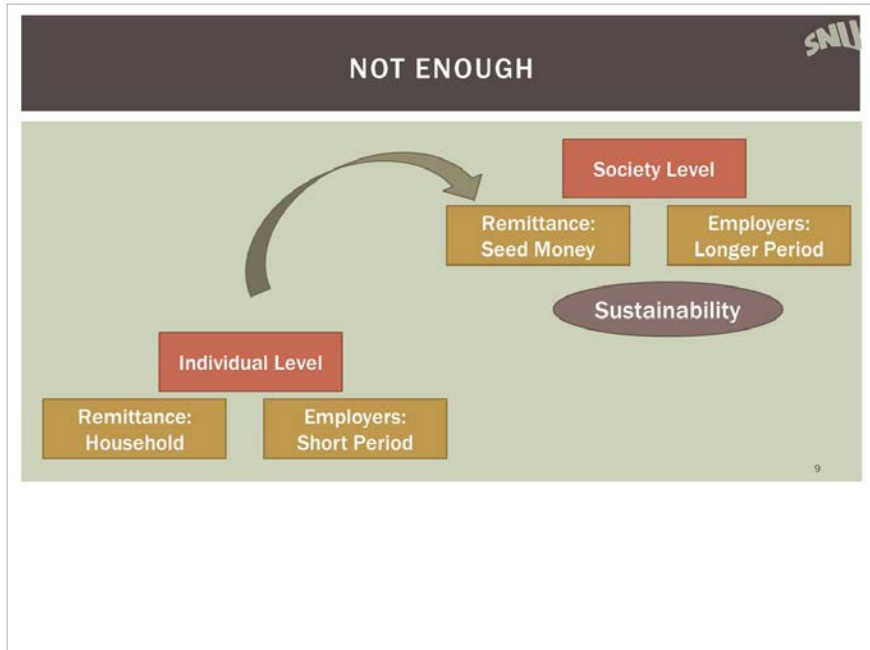
- Remittance
 - Household economy; individual level

South Korea

- Recruiting new workforce
 - Aging Workforce
- Relatively Cheap Labor Cost
 - Competency in global market

8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ntegrative Datab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UTUAL BENEFITS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Sending countries : South-east Asian countries (Migrant Workers)

- Seed money; society level
- Screening deficient companies
- Better job opportunities
- Life-long skills(human capital) development
- Technology Accumulation
- Needs and abilities based supply of human resources

South Korea

- Efficient supply of verified skilled workers
- Screening deficient workers

11

HOW TO CONSTRUCT INTEGRATIVE DATABASE

Sending Countries

- incentives for discretionary updates of data
- proper infrastructure for the database
- efforts to construct job opportunities

Governments;
Sending & South Korea

South Korea

- credible statistical data
- investment in the system in forms of ODA
- incentives for participating companies and migrant workers

Integrative Database

- smart technology
- cloud system

- grading workers
- certificate system
- employment based on the database

Companies

Migrant Workers

- grading employers
- personal competency registration
- regular updates

12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ntegrative Databas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MMARY

Migrant Workers

Sending Countries

Expand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Labor

13

**THANK YOU FOR YOUR
CONCENTRATION**

changsub.chang@gmail.com
+82-10-3553-1956

14

- UNESCO: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Yang, Hyejin and Hwang, Hyunjung

UNESCO, Bangkok
June 27, 2013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Hyejin Yang & Hyunjung Hw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verview



● UNESCO: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Overview



UNESCO's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 Peace
- Eradication of poverty
- Sustainable development
- Intercultural dialogue; education, the sciences, cultur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Fostering **1) Cultural diversity**,
2) Intercultural Dialogue and a **culture of peace**

The promotion of **1) Cultural Diversity**

"common humanity heritag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 one of the most pressing contemporary issues

2) Intercultural Dialogue

The world's cultural wealth is its variety in
dialogue. While each culture draws from its own
roots, it must not fail to blossom when crossing
other cultures

UNESCO- CULTURE - **MISSION**

**to advance knowledge, standards and
intellectual cooperation in order**

- to protect, safeguard and manage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 to promote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the dialogue** of cultures
with a view to fostering a **culture of peace**

● UNESCO: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Overview



Traditional culture



☐ Heritage protection

☐ Tolerance

☐ Better understanding

Pop culture



☐ Entertainment

☐ Tolerance

☐ Better understanding

Same effect
/function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the intercultural dia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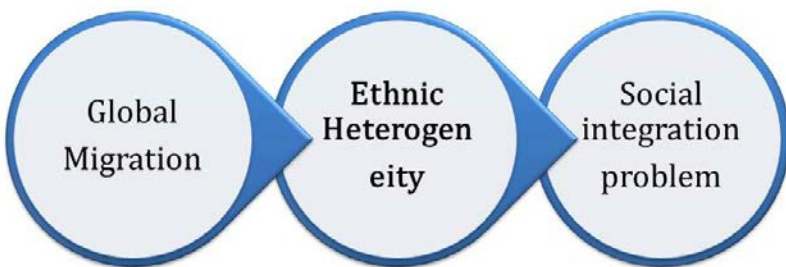
Characteristics of Pop culture

- ✓ Constantly changing
- ✓ Based in large and heterogeneous groups of people

Fundamentals of the Human Mosaic: A Thematic Approach to Cultural Geography, *Terry G. Jordanbychkov* (2006)

- ✓ Less attention
- ✓ Just one of business industries?
- ✓ Possibility!

- ✓ Difficulties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 Intercultural dialogue



"A Third Demographic Transition" = Ethnic Transition
David Coleman (2006)

● UNESCO: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Multiculturalization as failure



"Multiculturalism was a "failure" in France
" - **Nicolas Sarkozy**



"Our country's long-standing policy of multiculturalism is a failure" - **David Cameron**



"the approach to build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o live side-by-side and to enjoy each other... has failed, utterly failed." -
Angela Merkel



Overview



Does **Pop culture** contribute to mutual understanding and tolerance?

YES,
Through the example of
Korean Pop culture

- UNESCO: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Korean Pop Culture, K-Wave



Growth of Korean Pop Culture

Began from abou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Early popularity in Asian region

First forays outside of Asia from 2009 to 2010

Global success from 2011 to present



The Korean Wave as Seen Through YouTube Hits for Korean Music Videos

793,574,005 Total Hits

- Over 10,000,000
- 5,000,000 to 10,000,000
- 1,000,000 to 5,000,000
- 100,000 to 1,000,000
- 10,000 to 100,000
- Under 10,000

(as of 2010)



* This illustration is based on an image originally published in the JoongAng Daily on January 16, 2011.



- UNESCO: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Influence of Korean Pop Culture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Within
Korea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Impact1: Better recognition of Korea

Impact2: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each other

Better recognition of Korea



“Over the past decade, South Korea, with a population of around 50 million, has become **the Hollywood of the East**”, CNN, 2010.10

“Korean **national brands** are moving from Samsung, Hyundai, to Suju and Kara”, BBC, 2012.8

-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each other



● UNESCO: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Long history of hatred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ns who used to be perceived
"violent" "naughty"



are now more perceived as
"gentle" "sensitive"

Sayuri



- ▶ Donated for Korean women who used to be comfort women in colonial period
- ▶ “If at least one person changes his or her idea of a Japanese person, I would say I succee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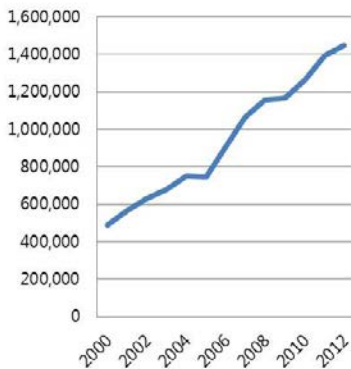
By sharing pop culture between different countries,

Mutual understanding is more successful and intercultural dialogue is facilitated.

● UNESCO: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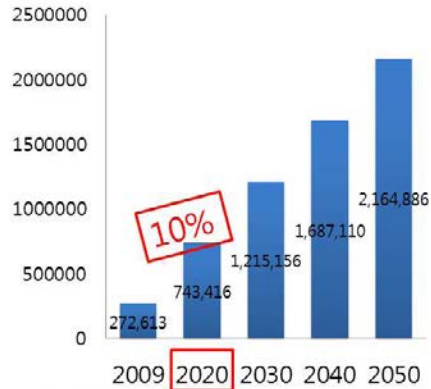
Within Korea

Resident Aliens in Korea



<Sour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3.1)>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Sourc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2)>

- Rapid multiculturalization in Korean society

Nichkun of 2PM



Korea & Thailand

Tourism with
elephants in
Thailand

코끼리
목욕시키기
TRAVEL THAILAND
태국 북부 메콩 계곡

가짜와 진짜 여행을 제공하는 것은 코끼리 여행을 보는 것은 자기만의
가치와 관습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코끼리 여행을 경험하든, 모든 것은
코끼리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행복하다.
서비스는 9월-12월, 7월-12월, 12월-12월, 9월-12월
여행 계획은 코끼리 여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코끼리 여행이다.



Whose food is this? (Nickhun's)

Nickhun Impact

Nickhun influences Koreans to have

A higher **interest** in Thailand and Thai
culture (tourism, nature, food)

A Better **recognition** of Thai people living
in Korea

- UNESCO: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Reality Programs



a Korean TV show “The Real Man”, in which entertainers experience Korean Ar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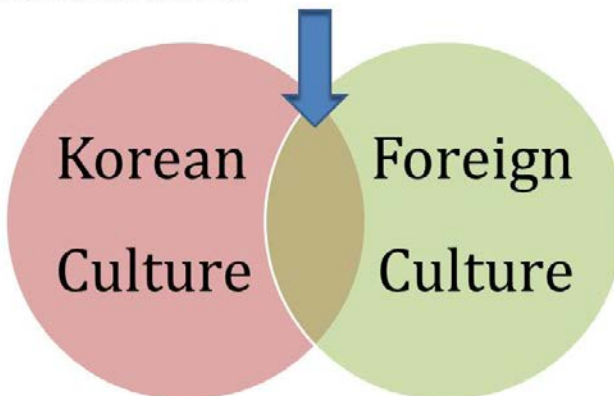
With pop culture,
Cultural diversity within a country is better
preserved, as well as helping intercultural
dialogue.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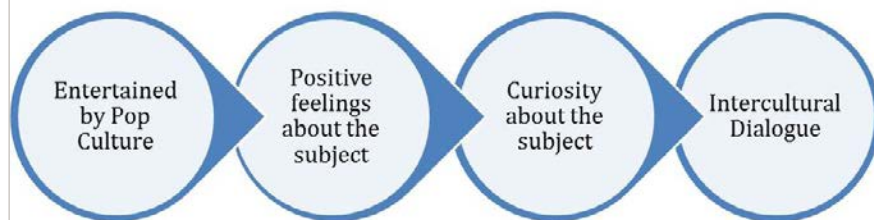
What we've been missing

✓ Not them but us



● UNESCO: “Pop Culture as a Medium of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How can it happen?



In other words,

- Unintended impacts mass media have toward people
 - Solving the prejudice for various ethnic groups
 - Favorable attitude (respect) for them
 - Being in their shoes
- Better understanding & Tolerance
- Peace,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ank you

Hyejin Yang

M.A. candidate of International Studies
Area Studies (American Studies)

Hyunjung Hwang

B.A. candidate of Western History
and Business Administration

- **World Food Programme: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
Bae, Hankyul



28. 06. 2013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

Hankyul Bae
Seoul National University

Enhancing the partnership between WFP and Korea by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 will be a long term, fundamental way of **overcoming hunger** in the 21st century characterized by **climate change**.

contents

Introduction

-Definition and causes of hunger

1. Korea's experience of overcoming hunger

-New Village Movement

-National Forestation Project

2. Implications for WFP

-Forestation be integrated to "Food for New Village"

-Importance of Forestation in the 21st century

Conclusion

Acute hunger or starvation

Short-term, less than 8%

HU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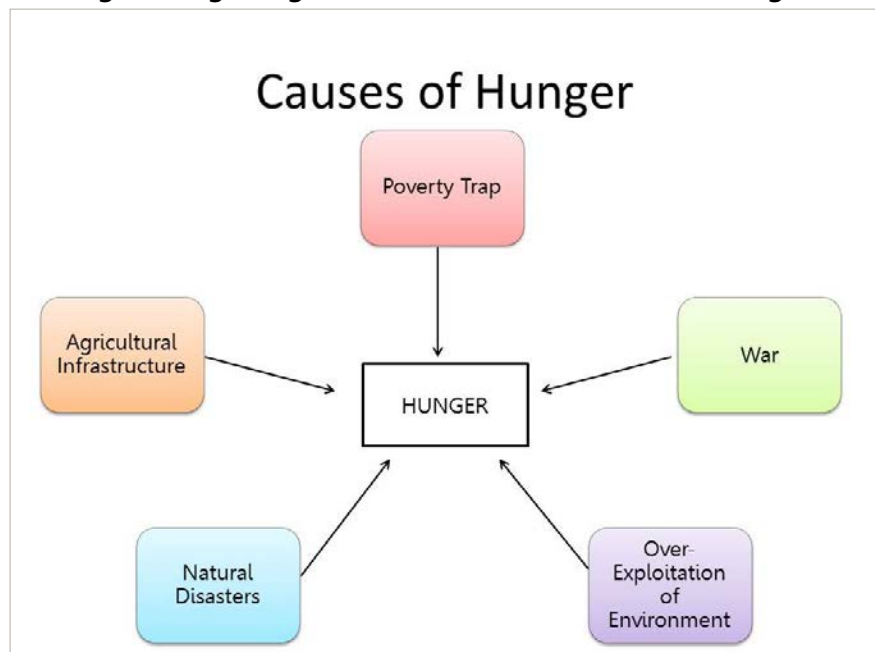
Daily undernourishment

Mid/long-term, majo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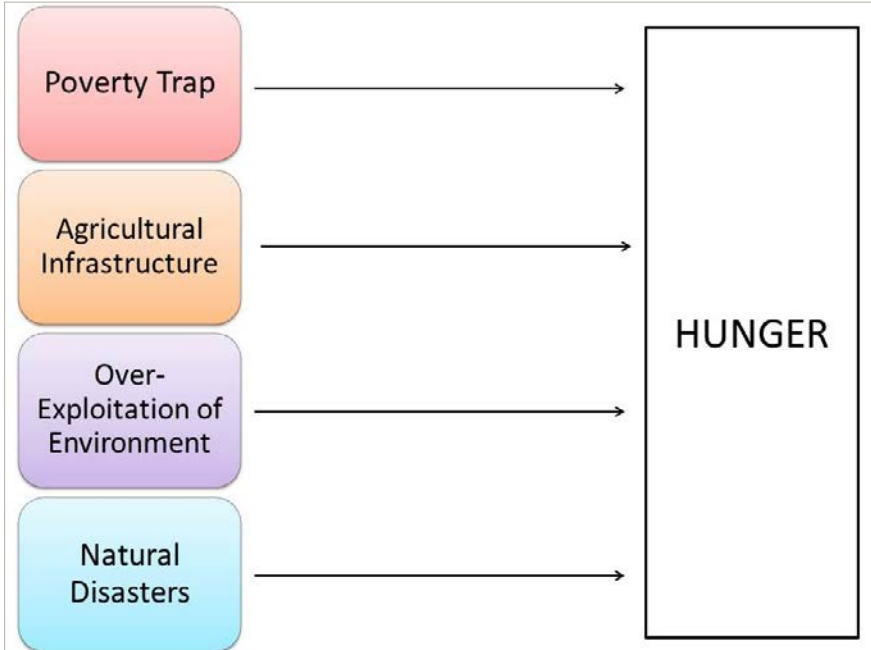
870 million...

→ 1 in every 8 people

● World Food Programme: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



Poverty Trap	“The poor are hungry and their hunger traps them in poverty”
Agricultural Infrastructure	ex) Roads, Warehouses, Irrigation
Over-Exploitation of Environment	ex) Deforestation, Overcropping, Overgrazing
Natural Disasters	ex) Desertification, Flood, Drought



Korea's economic miracle

1953



2013



- World Food Programme: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

Korea's economic miracle

1953

Aid receiving
country



2013

Aid providing
country



How could Korea overcome hunger?

1. New Village Movement (1970~8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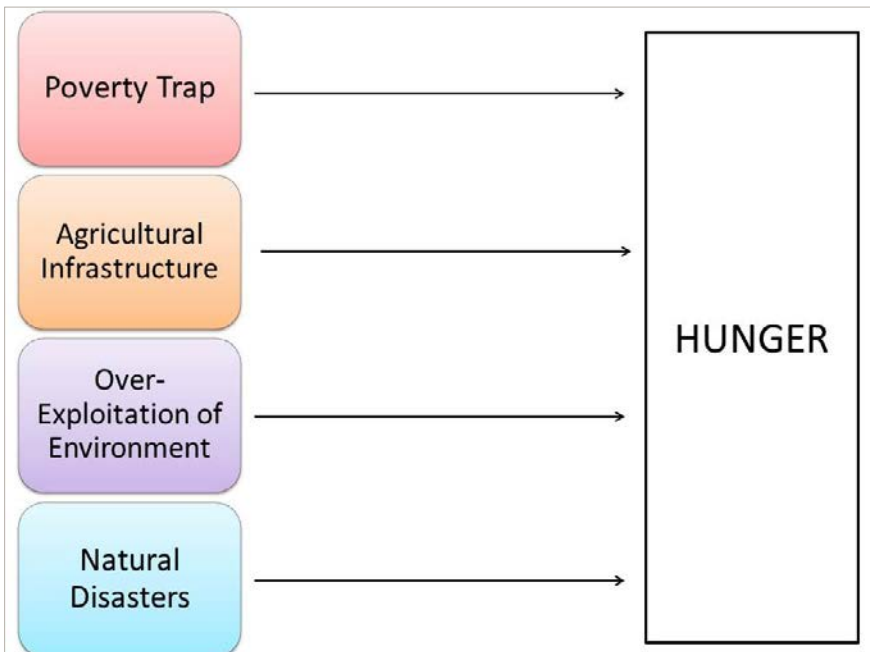
- Promoted self-help and collaboration
- Central government:
provided raw materials free of charge
- Locals: build whatever they wish to



How could Korea overcome hunger?

1. New Village Movement (1970~80s)

- Brought modernized facilities & infrastructure (irrigation systems, bridges and roads)
- Improved basic living conditions
- Increased community income
- Cornerstone of Korea's economic miracle



- World Food Programme: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

Food for New Village

- WFP- Korea 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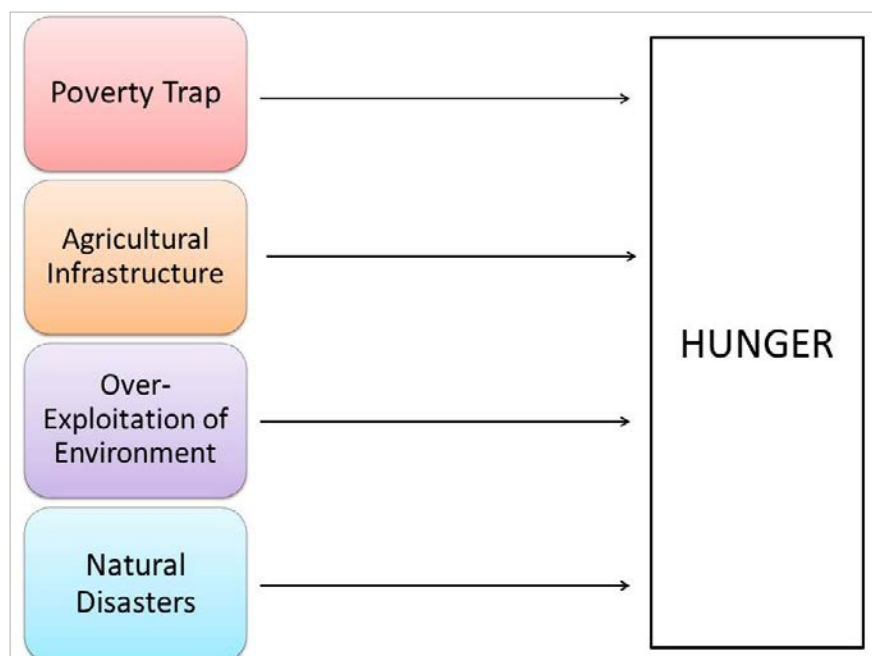
- Assist househ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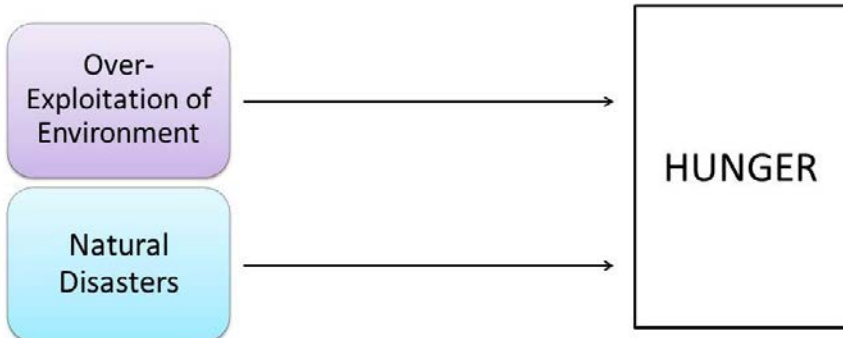
- Build/rebuild infrastructure



- Improve access to food
- Take full advantage of development opportunities



However, Hunger Still Remains



How could Korea overcome hunger?

2. National Forestation Plan(1973~1997)

- 10 billion trees
- 65% of national terri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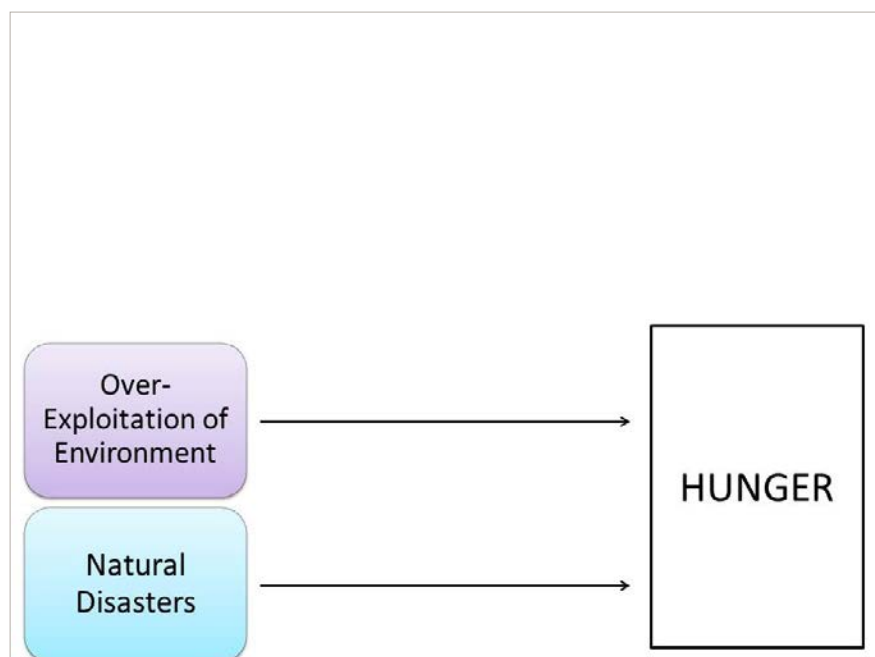


- World Food Programme: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

How could Korea overcome hunger?

2. National Forestation Plan (1973~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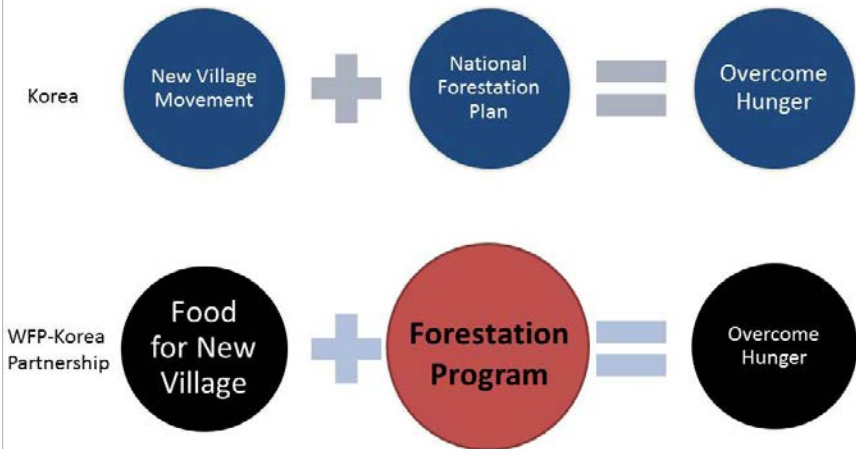
- Minimized effect of flood and drought
- Minimized consequences of urbanization



Summary



Suggestion



- World Food Programme: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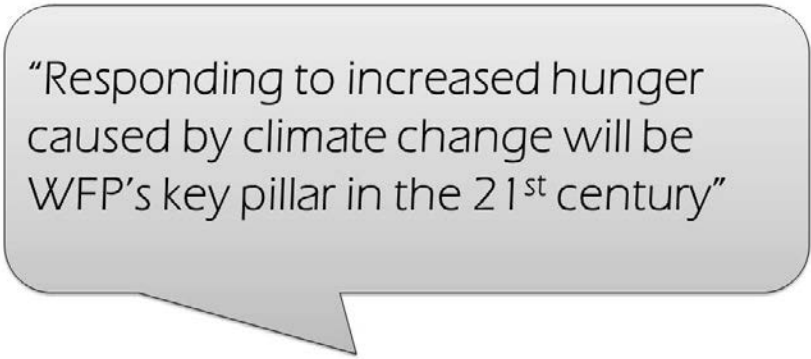
21st Century and Climate Change



**Forestation
Program**



**Climate
Change**



“Responding to increased hunger caused by climate change will be WFP’s key pillar in the 21st century”

WFP, <Hunger and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

- Natural disasters : 84 % climate-related
Ex. Desertification, drought, flood
- Climate-related disasters: recently doubled
- More frequent and severe disasters predicted



Climate Change and Hu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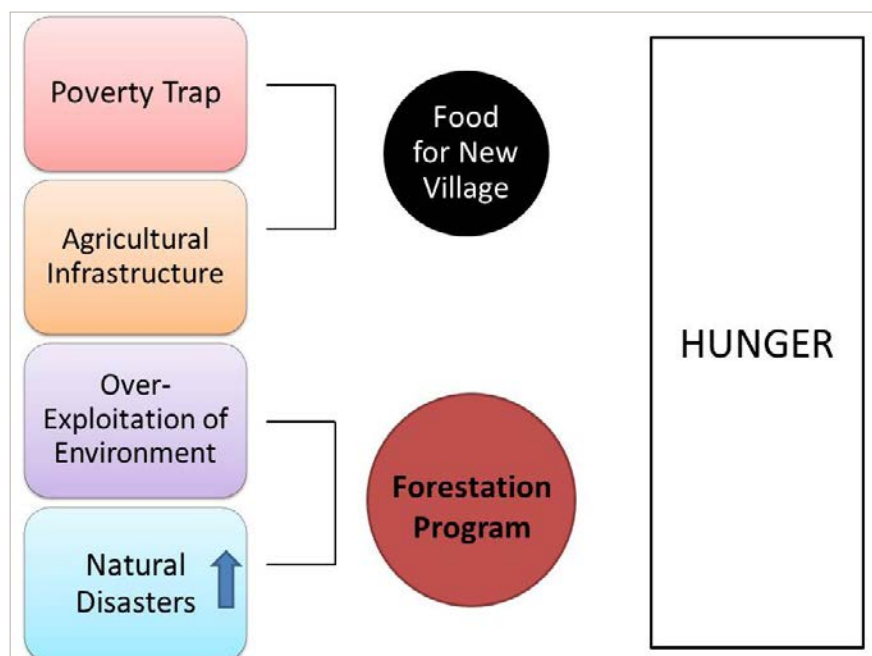
- Affects the poorest of the poor
- Multiplies food insecurity
- Increases hunger and malnutrition



- World Food Programme: “New Approach to Fight Against Hunger: Integrating Forestation into Food for New Village”

Effects of Forestation

- Prevent desertification
 - Minimize the increased impact of drought and flood by controlling water supply
 - Reduce the severe consequence of deforestation
 - Provide nutrition to soil
 - Slow down temperature rise through photosynthesis
-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 Save the most vulnerable people



Conclusion



Thank You

- UN Environment Programme: "A Current Issue on Aero-Biology & Allergy" Lee, Seungeun



A Current Issue on Aero-biology and Allergy

An Environmental Approach to Public Health

Seungeu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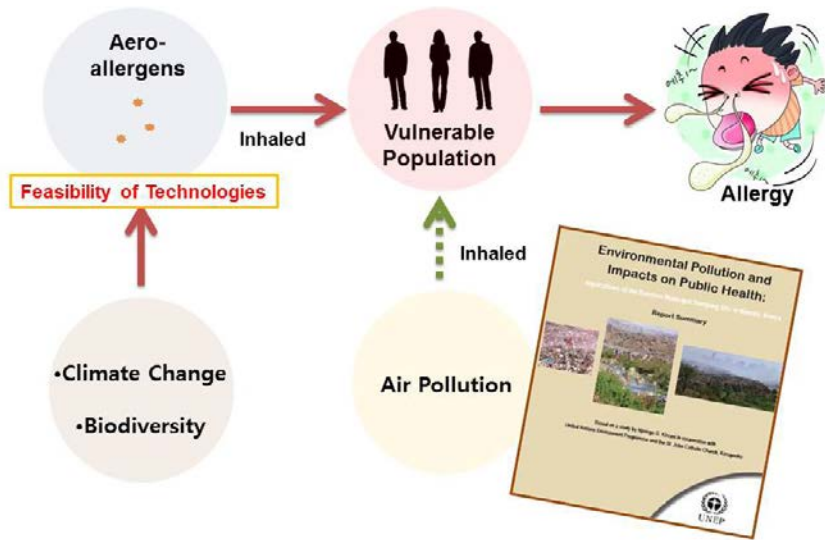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ero-biology?

: Studies on *Biological Substances in the Air*

1. **Bio-aerosols**: So many but invisible
2. **Bio-technologies** now can make us see **Bio-aerosols**

• Flows of Topic



Contents

1. Why UNEP needs to Manage Aero-allergens

- I. Allergy and Aero-allergens
- II. Complex Issues of Aero-allergens in Asia-Pacific region
 - **Environmental Challenges:** Climate Change & Biodiversity
- III. Feasibility of Technologies to Monitor Aero-allergens

2. How UNEP meets the Needs to Manage Aero-allergens

- IV. Unmet Needs for Managing Aero-allergens
- V. How UNEP meet the Ne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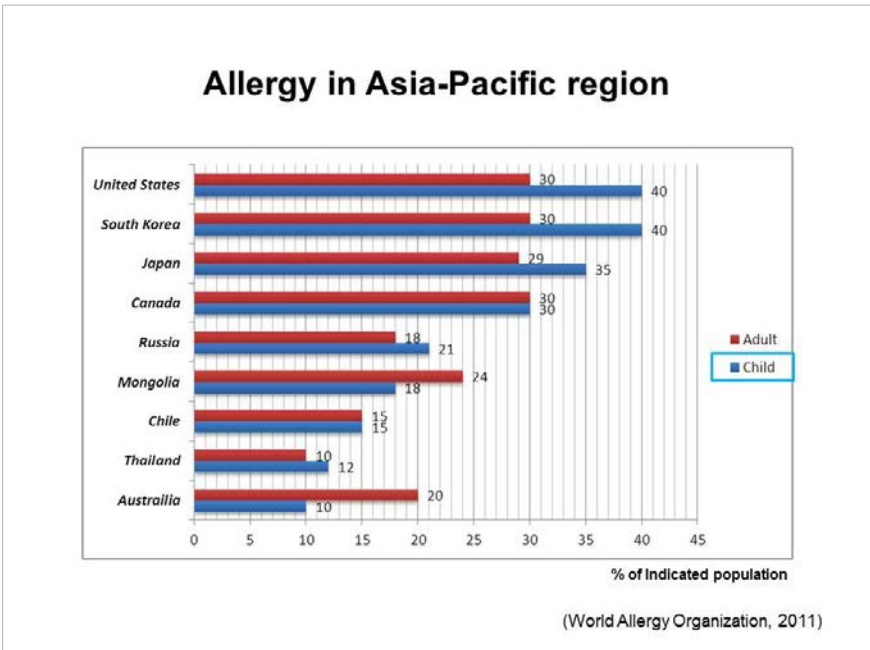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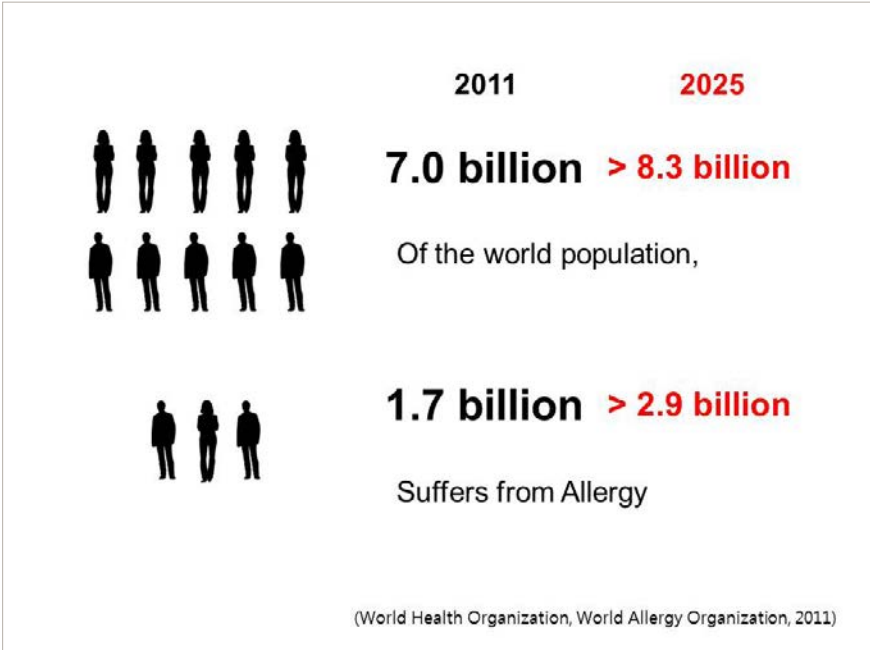
- UN Environment Programme: “A Current Issue on Aero-Biology & Allergy”

Why UNEP needs to Manage Aero-allerg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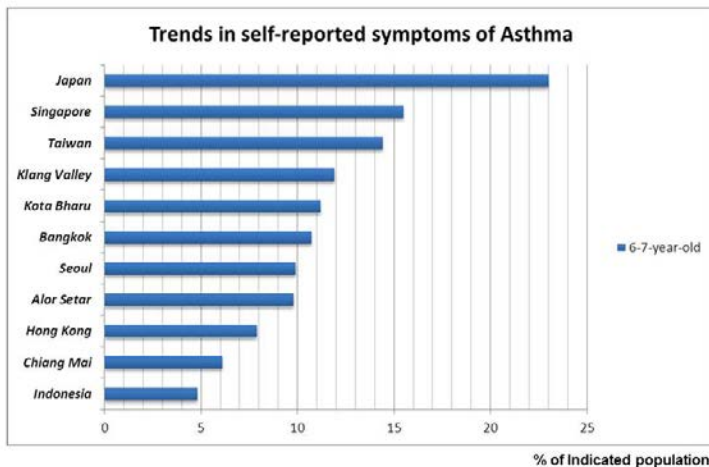
I. Allergy & Aero-allergens

A huge population suffers from **Allergies**, and **Allergen Inhalation** causes the most severe



- UN Environment Programme: "A Current Issue on Aero-Biology & Allergy"

Allergen Inhalation causes the Most Severe



(Gary W. K. Wong., et al., AAI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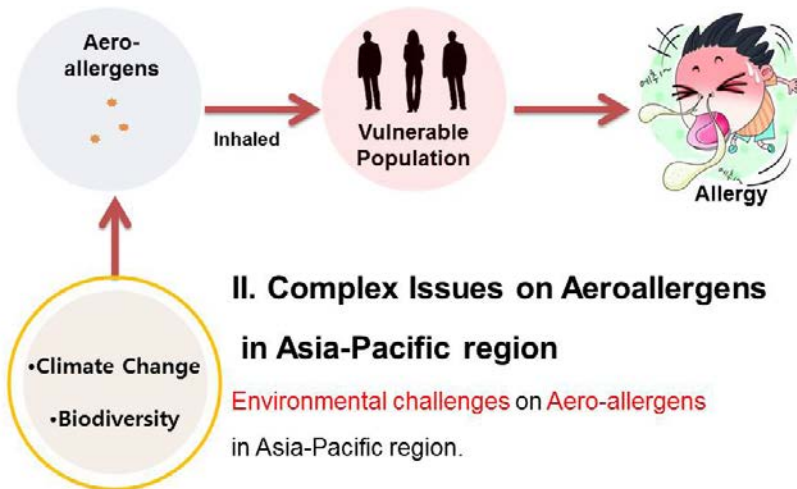
US \$ 1.8 billion

: Annual socio-economic costs of asthma in South Korea

(Korea Asthma Foundation, 2005, Report of the KCDCP, 2009)

What is Aero-allergen?

Aero(Air)+Allergens



● UN Environment Programme: "A Current Issue on Aero-Biology & Allergy"

Environmental Challenges I: Climate Change

Heating



Ragweed(Ambrosia sp.)

Warming increased total pollen production of **allergenic species** *Ambrosia psilostachya* by 84%.

(Wan, S. Q., et al., *Am J Botany*, 2002)

Floo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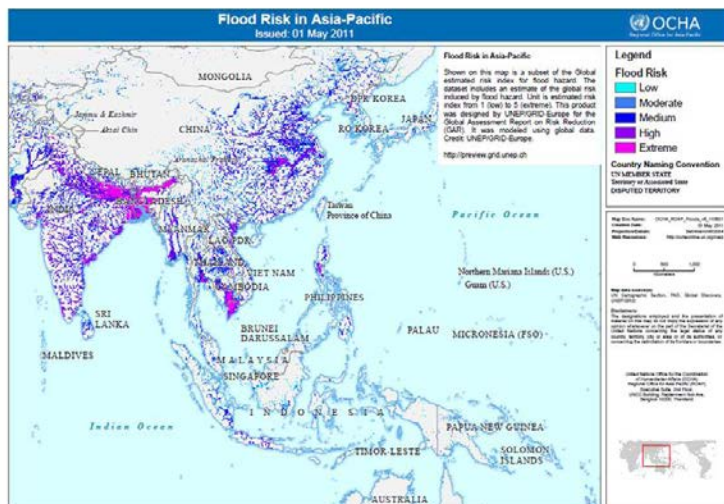


Katrina Cough

Mold spores are causing the widespread of **coughing** in New Orleans area which had experienced serious floods by Hurricane Katrina

(Chew G. L., et al., *Environ Health Perspect.*, 2006)

The Most Vulnerable Areas in Asia-Pacific Region



Environmental Challenges II: Biodiversity

Hygiene



Hygiene hypothesis

Children living on farms were exposed to a **wider range of microbes** have developed **less asthma**.

(Markus J., et al., *NEJM*,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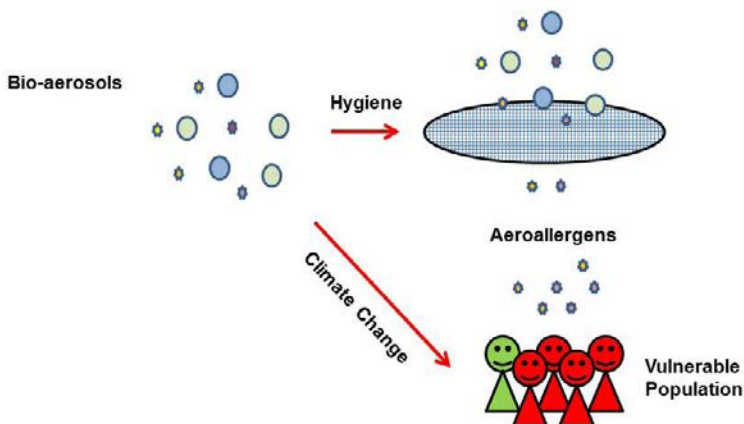
Antibiotics



Azole-resistant *Coccidioides* sp.

A life-threatening, recurrent, and **azole-resistant** coccidioidomycosis was observed in a patient who had received **long-term fluconazole therapy**.

(Kriesel, J.D., et al., *Medical Mycology*, 2008)



Complex Issues in Asia-Pacific region

Developing

Heating & Floo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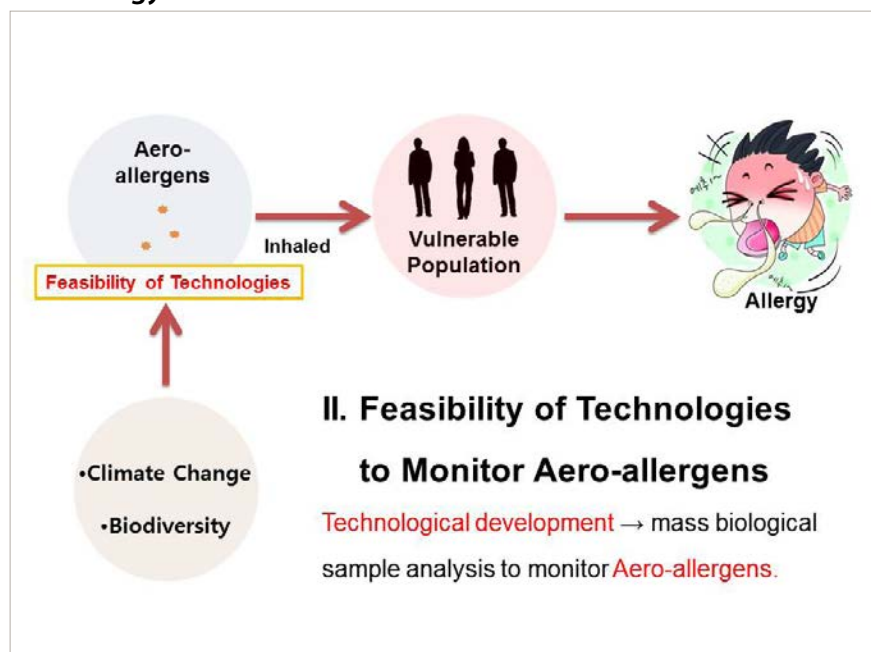
Not Clean

Developed

Hygiene & Antibio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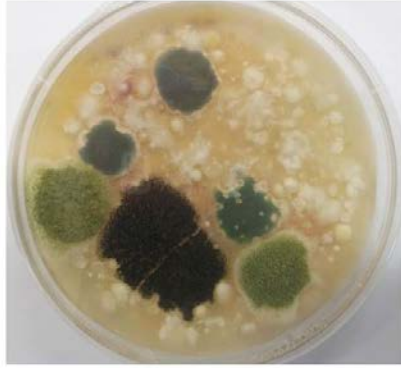
Too Clean

● UN Environment Programme: “A Current Issue on Aero-Biology & Aller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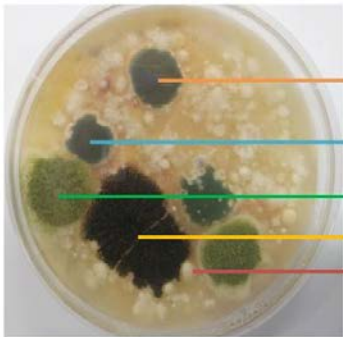
What is Technological Development ?

Technological Challenge: Mass Sample Analysis



We found 50 different kinds at **One Spot** !

Technological Challenge: Mass Sample Analysis



Sanger Sequencing

Sequencing #1

Sequencing #2

Sequencing #3

Sequencing #4

Sequencing #5

·
·
·

·
·
·

Traditional analytic method: **one by one-analysis**

● UN Environment Programme: "A Current Issue on Aero-Biology & Allergy"

Technological Challenge: Mass Sample Analysis



Patient I :50

Patient II :50

Patient III :50

.

.



Healthy I: 50

Healthy II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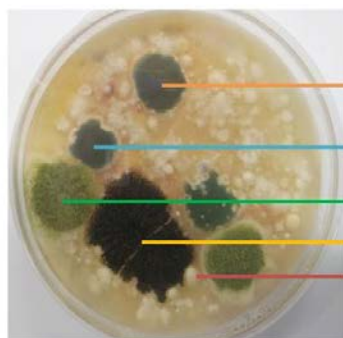
Healthy III :50

.

.

Environmental Biological Analysis, a **HUGE work.**

Technologies now available for Mass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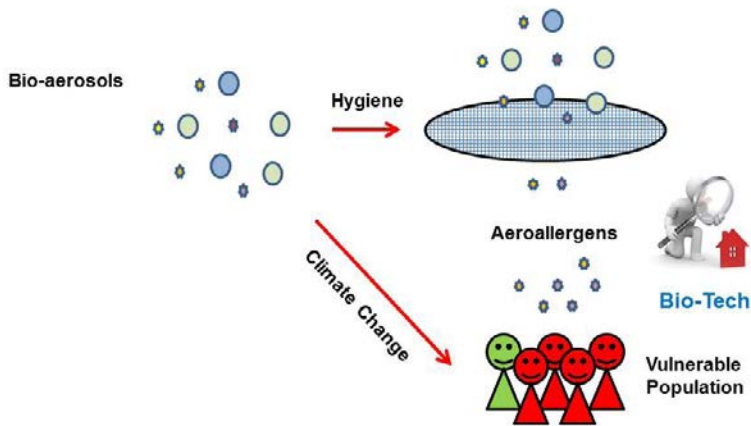
Next Generation Sequencing

Sequencing
of the Mix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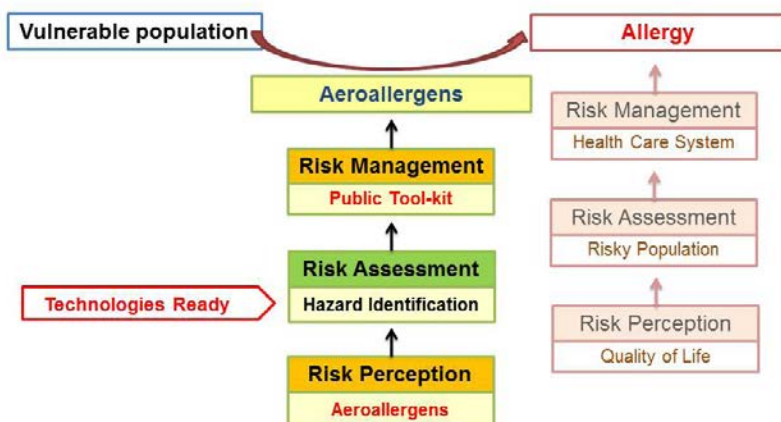
**Mass samples now can be analyzed
altogether within hours.**



Now is the time to draw this **Aero-allergen** issue, entangled with **Environmental challenges**, by adapting **latest bio-technologies** in Asia-Pacific region.

How **UNEP** needs to Manage Aero-allergens

IV. Unmet Needs for Managing Aeroallergens



The Health and Environment Linkages Initiative (HELI)



UNEP needs to take more actions on Aeroallergen issue



- To address issues
- Tool-kit to support and inform
- To target gaps in knowledge and tools

V. How UNEP meets the Needs

A LERT

“Target the **Right Origins**.”

T OOL-KIT

A White Book on Aeroallergens

Stakeholders: Decision-m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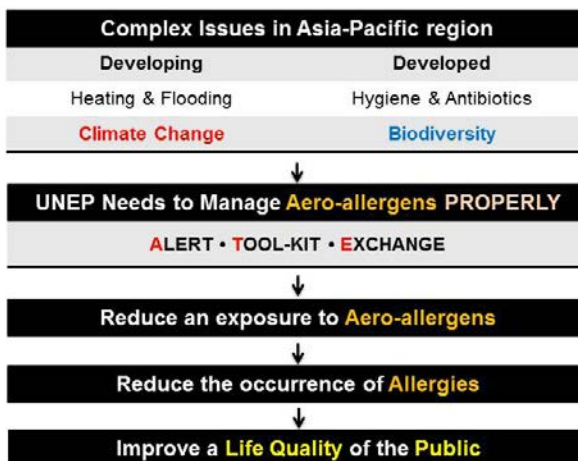
Professions: Current Issues

Public: **Easy Notes** on Species/Origins

E XCHANGE

“Do **Trade Information** and **Technology**.”

Summary



- UN Environment Programme: “A Current Issue on Aero-Biology & Allergy”



2013 하계 GTP 보고서
방곡: 국제기구 · NGO 편

2013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발행인 김태완
편집인 김태완

발행처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전화 02-880-1354
팩시밀리 02-877-0722

제작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전화 02-880-5220
팩시밀리 02-871-9473

©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2013

ISBN 978-89-967569-4-1 0530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3022780)

